

보험산업 전망과 과제

# 2027년 보험산업 전망

---

김 동 검(금융시장분석실장)

2026.10.22.

# 목 차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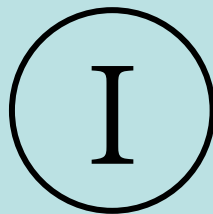
I . 경제·금융 환경

II . 보험산업 동향

III . 성장의 제약 요인

IV . 보험산업 전망

[부록]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



# 경제·금융 환경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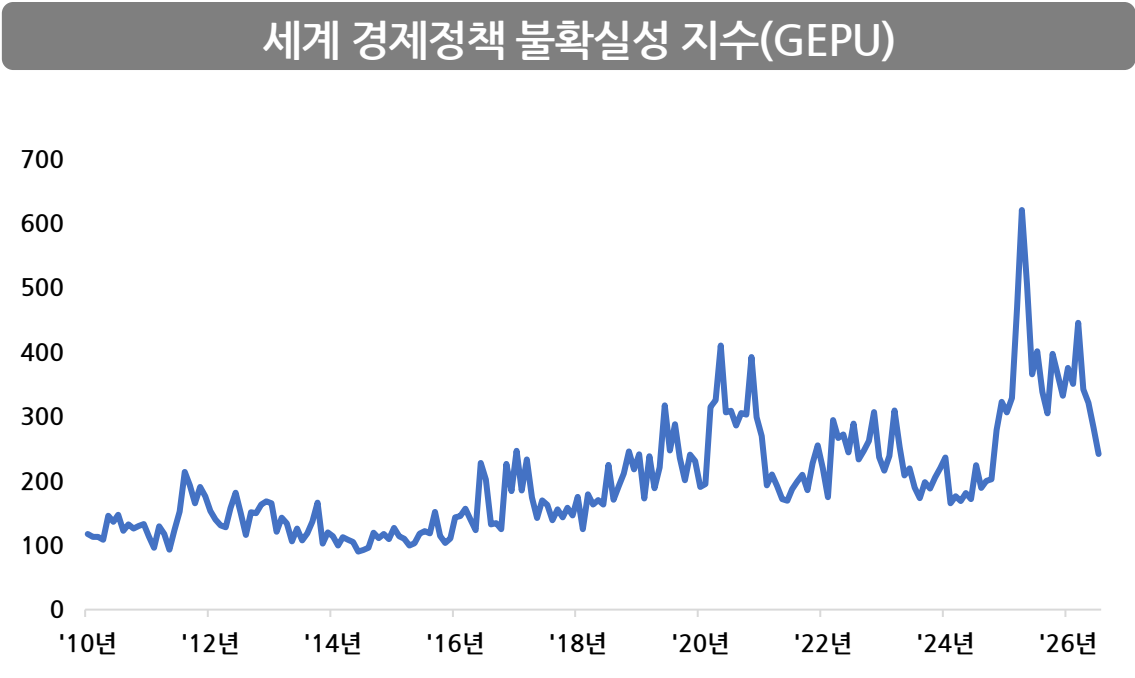
1. 대외 환경
2. 대내 여건

# 1. 대외 환경: 세계경제

-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둔화한 뒤 2027년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  - 세계 성장률 전망은 2025년 3.5%, 2026년 3.0%, 2027년 3.2%로, 2027년에도 2025년 수준을 하회함
-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급등한 뒤 하락하였으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
  - 2026년 초 일시 반등한 지수는 최근 하락했으나, 2025년 급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

| 세계 경제성장률 |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(단위: %)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구분       | 2025 | 2026(E) | 2027(E) |
| 세계       | 3.5  | 3.0     | 3.2     |
| 미국       | 2.1  | 2.2     | 2.1     |
| 유로지역     | 1.2  | 0.8     | 1.2     |
| 중국       | 5.0  | 4.5     | 4.3     |
| 일본       | 1.2  | 0.7     | 0.8     |

자료: 한국은행(2026. 8.), 『경제전망보고서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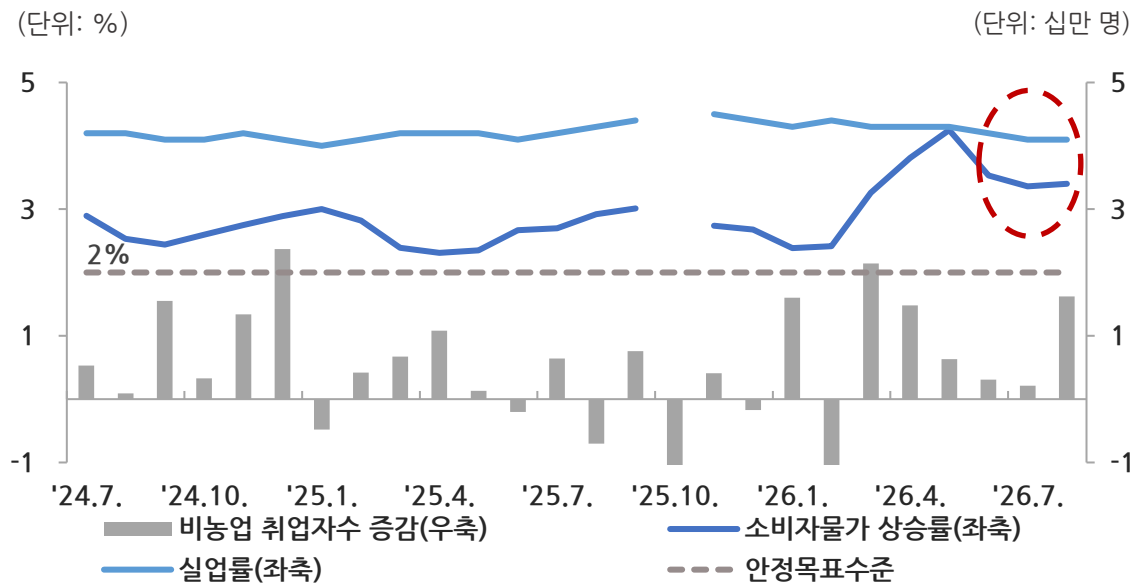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RED

# 1. 대외 환경: 미국 물가 및 금리

-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고점 이후 낮아졌으나 물가목표 2%를 상회함
  - 8월 물가 상승률은 3.4%, 실업률은 4.1%이며, 비농업 취업자는 전월보다 16.2만 명 증가함
- 9월 점도표는 향후 연도의 금리 전망이 대체로 낮아지는 가운데 위원별 전망 차이를 보여줌
  - 2028~2029년 금리 전망은 2026년보다 낮은 쪽에 분포하나, 같은 연도에도 위원별 차이가 나타남

미국 물가 및 고용 관련 지표



주: 물가는 전년동월대비, 2025년 10월 일부 결측  
자료: OECD; FRED

정책금리에 대한 Fed 전망: 점도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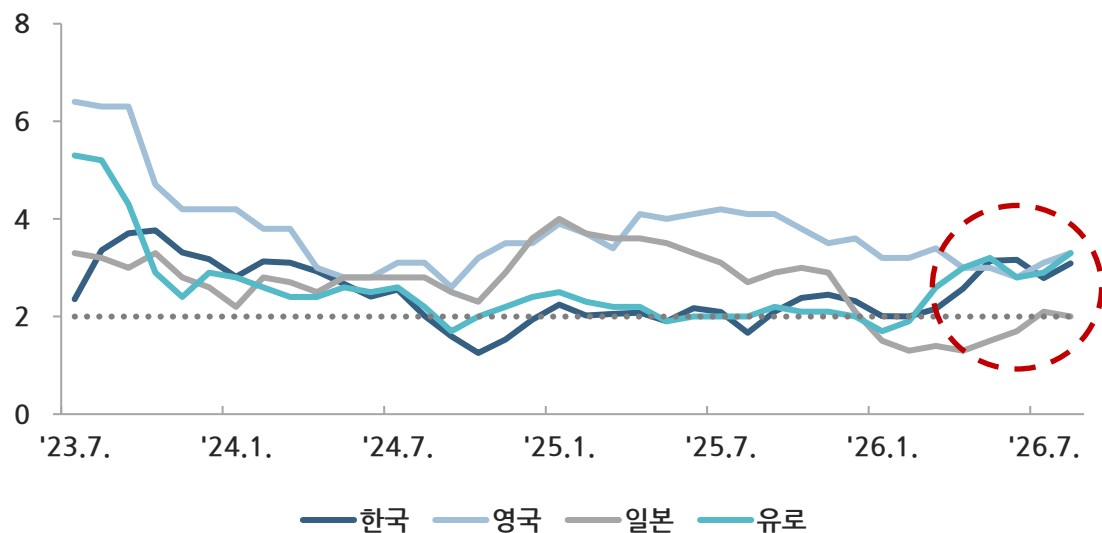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9월 기준  
자료: Federal Reserve Board

# 1. 대외 환경: 미국 이외 주요국 물가 및 금리

-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가별로 흐름과 수준이 모두 상이함
  - 8월 물가 상승률은 영국·유로지역 각각 3.3%, 일본 2.0%로, 국가별 차이는 최대 1.3%p임
- 시장에서는 한국·일본의 정책금리 상승, 영국의 하락, 유로지역의 유지를 예상함
  - 2027년 4/4분기 전망은 한국 3.25%, 일본 1.75%, 영국 3.50%이며 유로지역은 2.65%를 유지함

## 미국 이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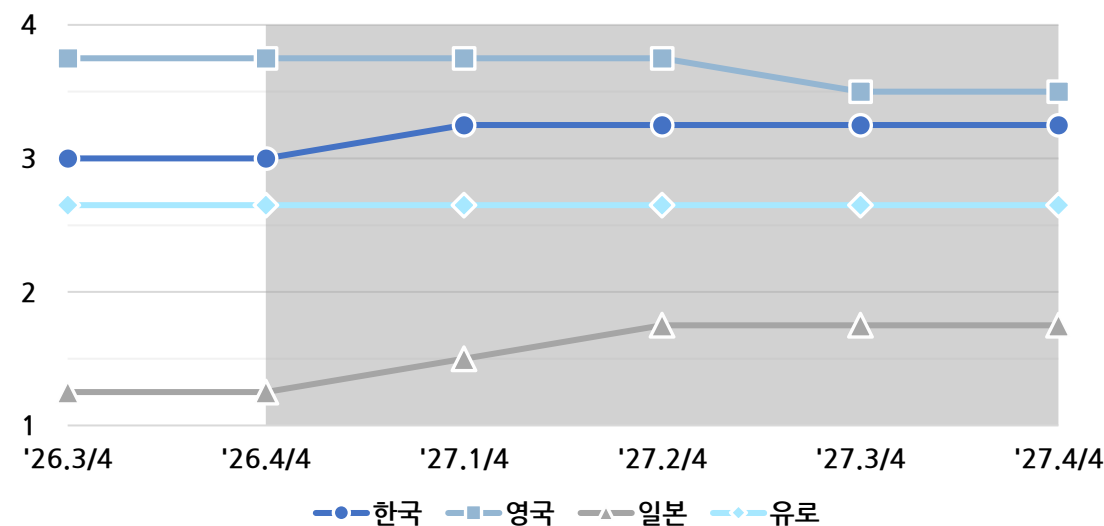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
자료: OECD; 일본 통계청

## 주요국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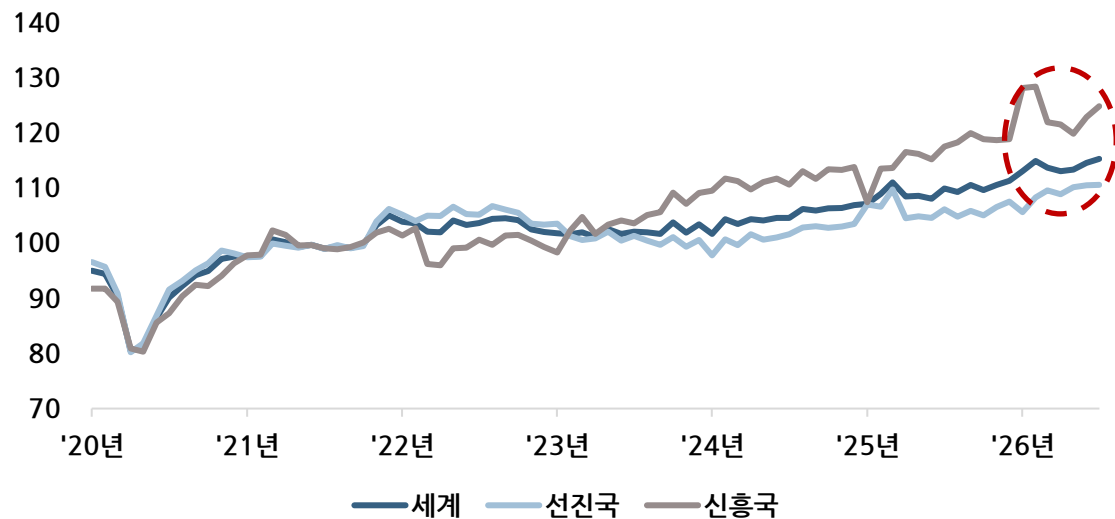
주: Reuters Poll(2026. 10. 6.) 기준  
자료: LSEG

# 1. 대외 환경: 세계교역

- 세계 상품교역량은 2020년 급감 이후 증가하였으며 신흥국의 회복 폭이 선진국보다 크게 나타남
  - 2026년 7월 지수는 세계 115.2, 선진국 110.5, 신흥국 124.7로 모두 2021년 평균(100)을 상회함
-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급등한 뒤 낮아졌으나 2023~2024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
  - 최근 지수는 2025년 고점을 크게 밑돌지만 단기 등락이 이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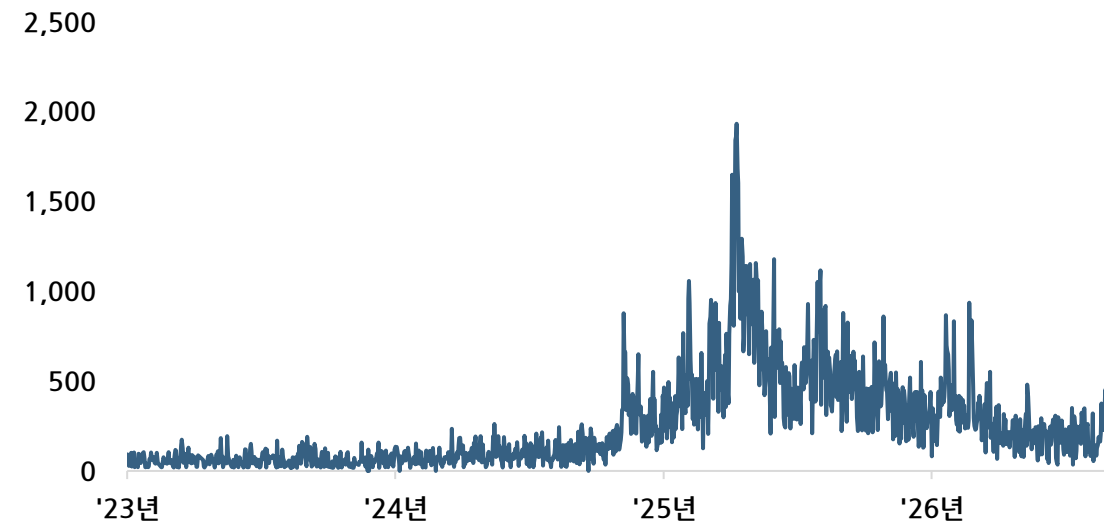
### 세계교역량

(2021=100)



주: 상품수입물량 계절조정 기준  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

###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(TPU)



자료: Matteo Iacoviello's Homepage

## 2. 대내 여건: 경제성장률

- 주요 기관은 2026년 국내 성장률이 2025년보다 높아지되 2027년에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
  - 2026년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 3.3%, KDI 3.2%, OECD·IMF 2.6%로 기관 간 차이는 최대 0.7%p임
-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5년 중 기준선 100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감
  - 2026년 8월 지수는 102.9로 기준선을 웃돌며, 2022~2023년의 하락 국면과 대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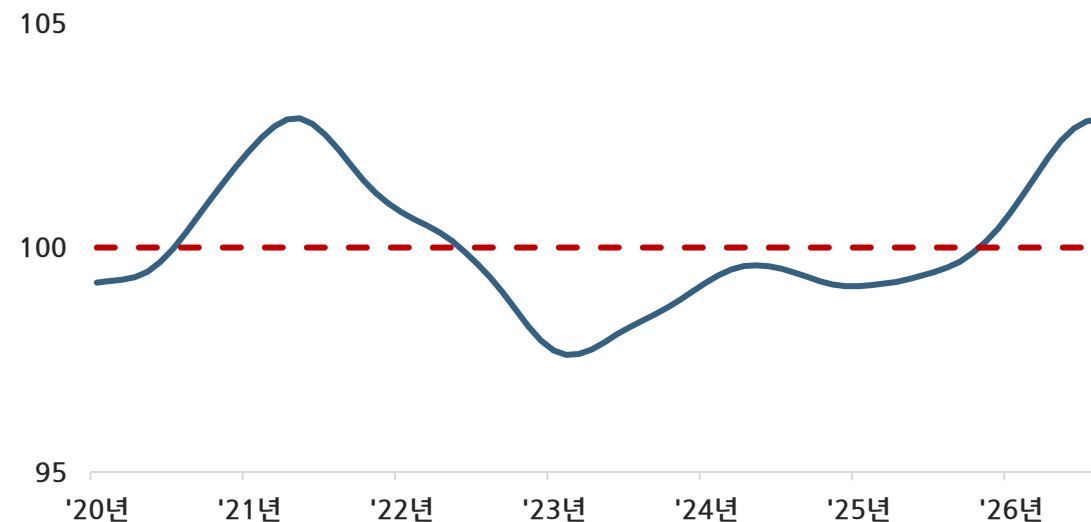
###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| 구분    | 2025 | 2026(E) |     |      |     | 2027(E) |     |      |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|
|       |      | 한은      | KDI | OECD | IMF | 한은      | KDI | OECD | IMF |
| 국내총생산 | 1.1  | 3.3     | 3.2 | 2.6  | 2.6 | 2.9     | 2.2 | 1.9  | 2.5 |
| 민간소비  | 1.5  | 2.1     | 2.3 | 2.2  | -   | 2.3     | 2.0 | 2.1  | -   |
| 설비투자  | 1.5  | 6.8     | 7.9 | -    | -   | 4.7     | 7.0 | -    | -   |
| 건설투자  | -9.7 | 0.2     | 0.1 | -    | -   | 1.9     | 2.7 | -    | -   |
| 상품수출  | 3.3  | 9.7     | 8.6 | -    | -   | 4.6     | 4.9 | -    | -   |
| 상품수입  | 1.9  | 9.8     | 9.2 | -    | -   | 4.6     | 6.7 | -    | -   |

자료: 한국은행(2026. 8.); KDI(2026. 8.); OECD(2026. 6.); IMF(2026. 7.)

### OECD 경기선행지수: 대한민국



자료: OECD

## 2. 대내 여건: 물가

- 주요 기관은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년보다 높아진 뒤 2027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
  - 2026년 전망은 한국은행·KDI 2.7%, OECD 2.6%, IMF 2.5%이며, 2027년에는 1.9~2.3%로 낮아짐
- 농산물·석유 제외 근원물가는 최근 상승한 반면, 기대인플레이션 장기전망은 유지됨
  - 8월 근원물가는 전월 2.5%에서 3.1%로 상승했고, 1년 기대는 2.6%, 5년 기대는 1.9%를 유지함

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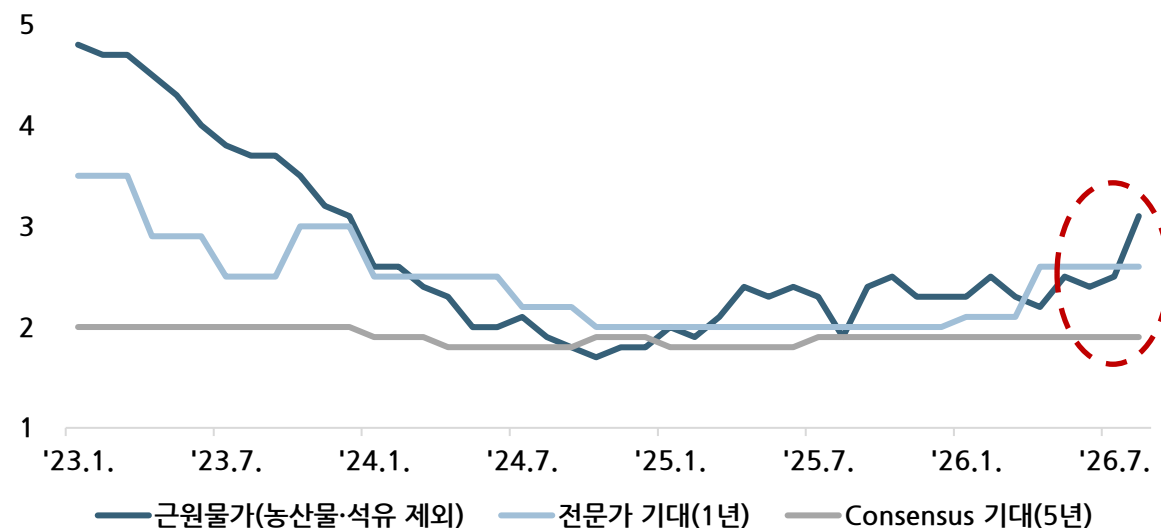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구분   | 2025 | 2026(E) | 2027(E)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한국은행 | 2.1  | 2.7     | 2.3     |
| KDI  | 2.1  | 2.7     | 2.2     |
| OECD | 2.1  | 2.6     | 2.2     |
| IMF  | 2.1  | 2.5     | 1.9     |

자료: 한국은행(2026. 8.); KDI(2026. 8.); OECD(2026. 6.); IMF(2026. 4.)

근원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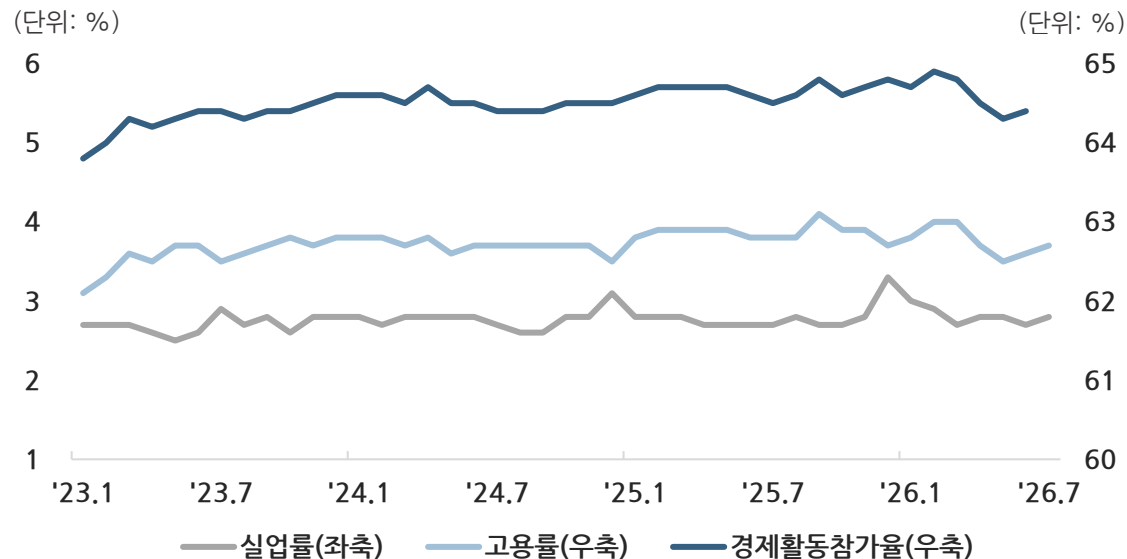


주: 근원물가는 농산물·석유 제외, 기대는 전문가 전망  
 자료: 한국은행; Consensus Economics

## 2. 대내 여건: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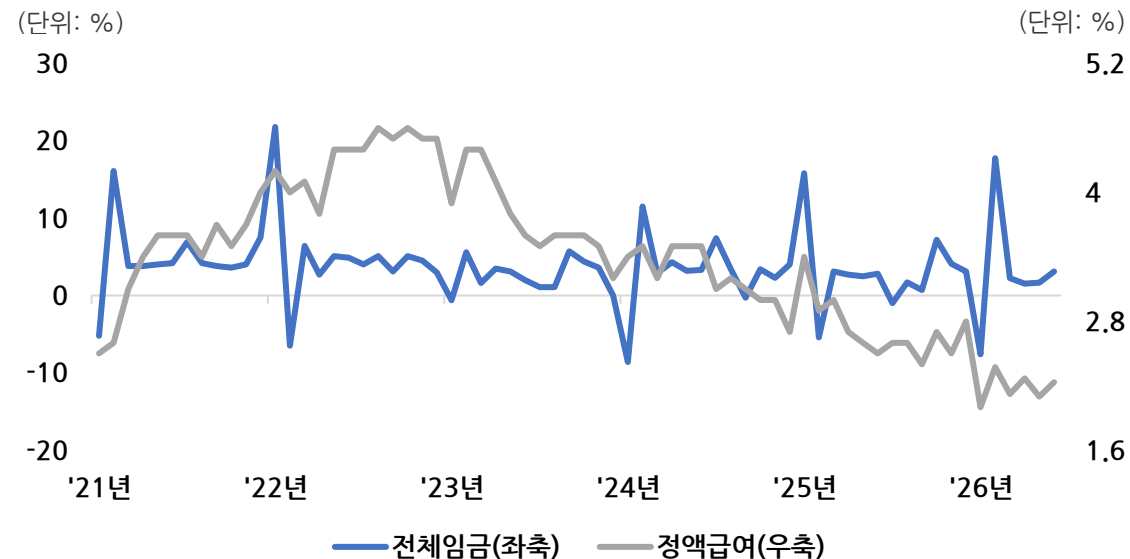
- 고용률은 5월 저점 이후 소폭 높아졌으며 실업률은 최근 2%대 후반에서 등락함
  - 고용률은 5월 62.5%에서 7월 62.7%로 상승했으며, 7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p 높은 2.8%임
- 전체임금 상승률은 월별 변동이 큰 반면, 정액급여 상승률은 2026년 들어 2%대 초반을 유지함
  - 전체임금 상승률은 2월 17.8%에서 6월 3.1%로 낮아졌으며, 6월 정액급여 상승률은 2.2%임

주요 고용지표



주: 계절조정계열, 고용·실업 7월/참가율 6월까지  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명목임금 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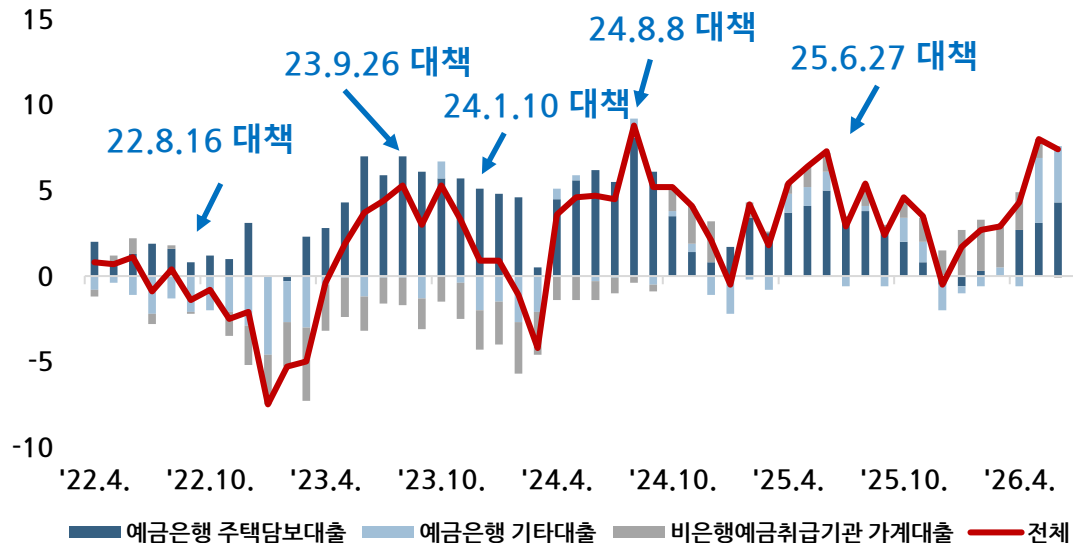
주: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
자료: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
## 2. 대내 여건: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
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2/4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6월에는 전월보다 소폭 줄어듦
  -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4.3조 원, 5월 8.0조 원, 6월 7.4조 원으로 5월에 가장 크게 늘어남
-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에서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0% 안팎에 머물러 격차가 확대됨
  - 7월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.35%, 수도권 0.72%, 비수도권 0.01%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

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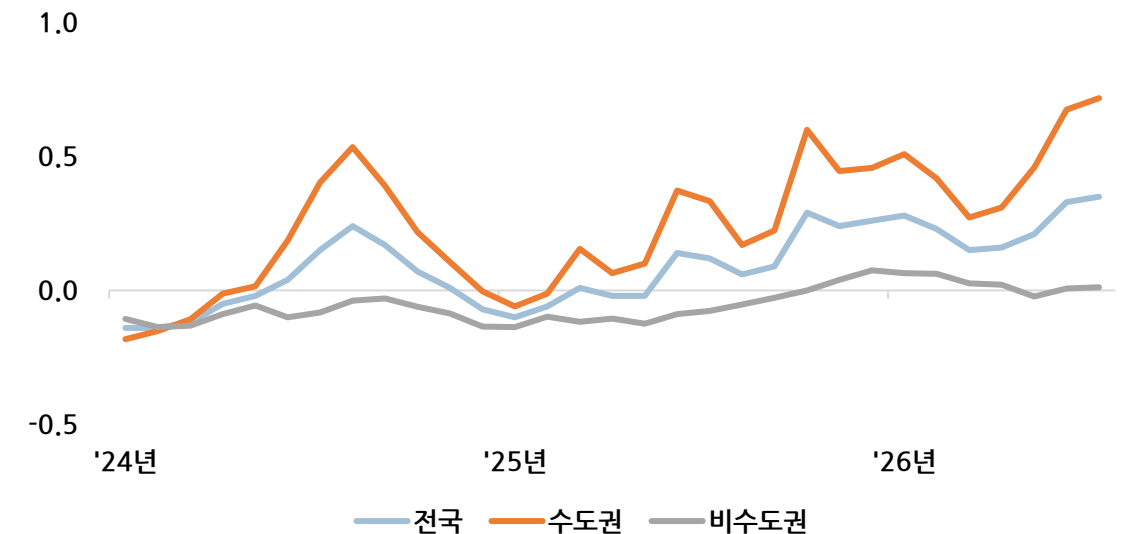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월대비, 조 원)



주: 전체는 6월, 은행은 8월까지(7·8월 잠정)  
 자료: 한국은행(2026. 9.), 『통화신용정책보고서』

주택매매가격 상승률

(단위: 전월대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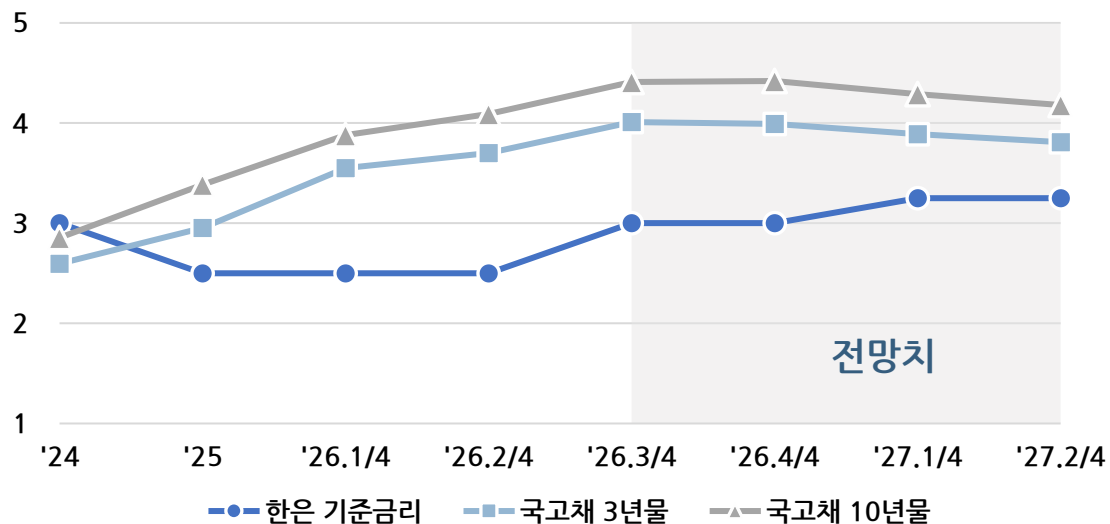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## 2. 대내 여건: 금리

- 8월 조사에서 국고채금리는 2026년 하반기 고점을 형성한 뒤 2027년 상반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  - 2027년 2/4분기 국고채금리 전망은 3년물 3.81%, 10년물 4.18%로, 2026년 하반기 전망보다 낮음
-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와 장단기 금리차는 2024년 이후 등락을 거쳐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
  - 8월 말 회사채(AA-)·국고채 스프레드는 68bp, 국고채 10년물·3년물 금리차는 47bp임

### 금리 컨센서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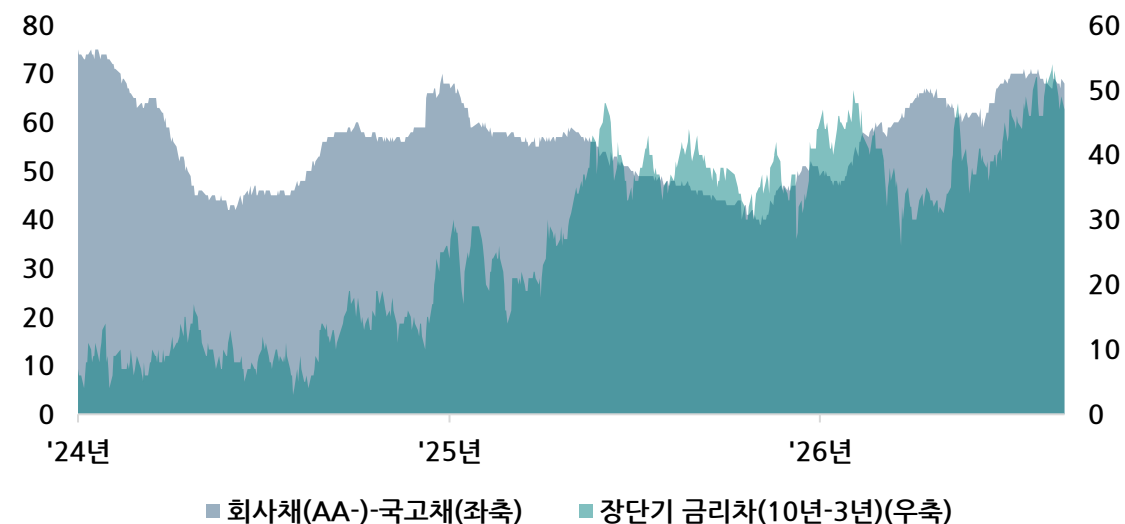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6년 8월 조사, 3/4분기부터 전망치(중간값)  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연합뉴스

### 장단기 금리차 및 회사채 신용스프레드

(b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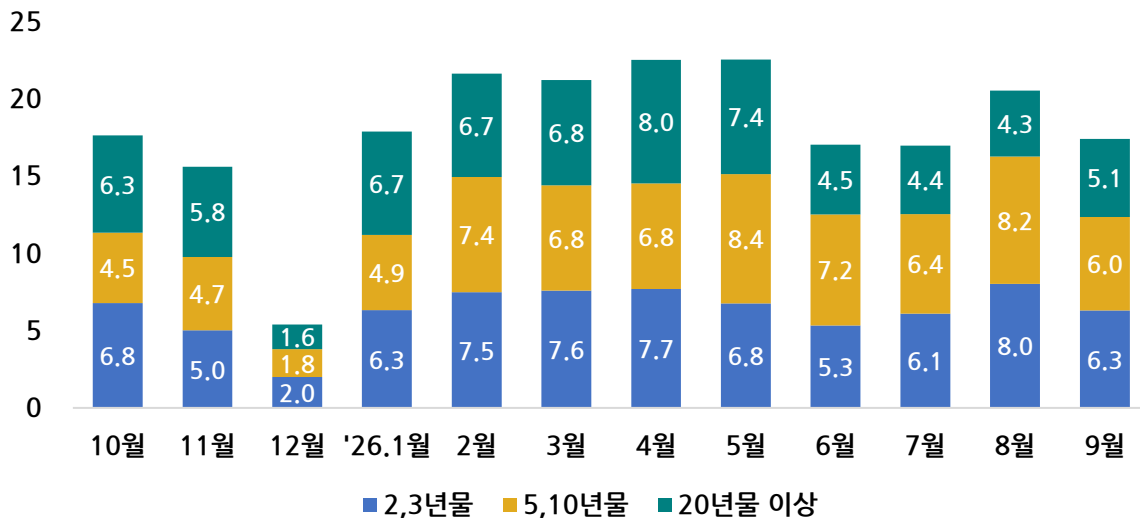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(2026. 9.), 『통화신용정책보고서』

## 2. 대내 여건: 국고채

- 최근 국고채 발행에서 장기물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, 투자자별 장기물 순매수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남
  - 20년물 이상 발행 비중은 2025년 10월 35.8%에서 2026년 9월 29.3%로 낮아졌으며, 월별 변동이 큰 편임
  - 정부는 2026년 장기물(20, 30, 50년) 발행 목표를  $35 \pm 5\%$ 로 제시하여 2025년 실적(38.6%)보다 낮게 설정함
- 한편,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는 듀레이션 매칭 진전, 금리수준 변화 등에 따라 만기 구간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

### 월별 국고채 발행규모 및 만기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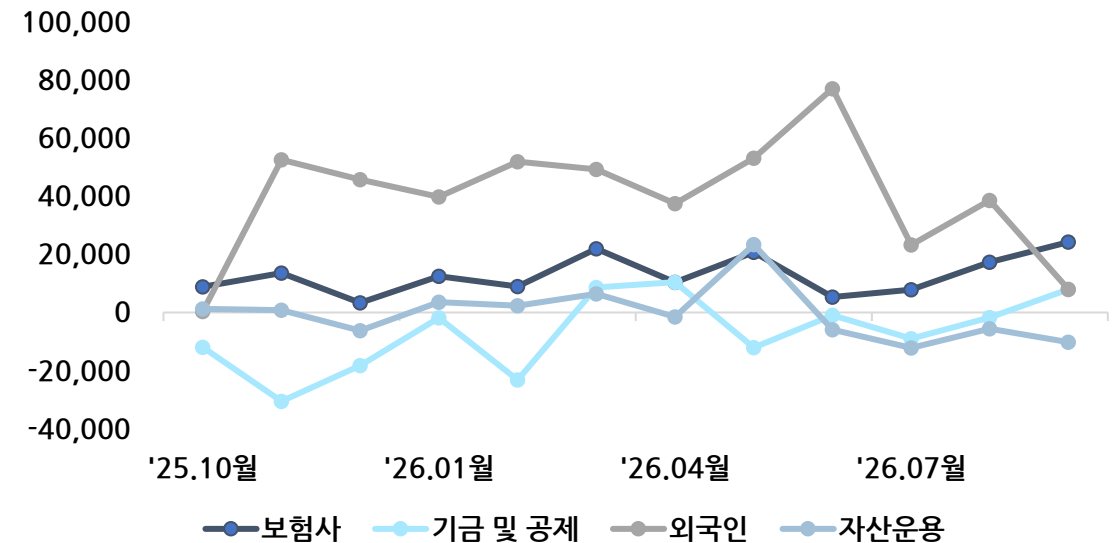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재정경제부 보도자료

### 주요 투자자 국고채 장기물 순매수 추이

(단위: 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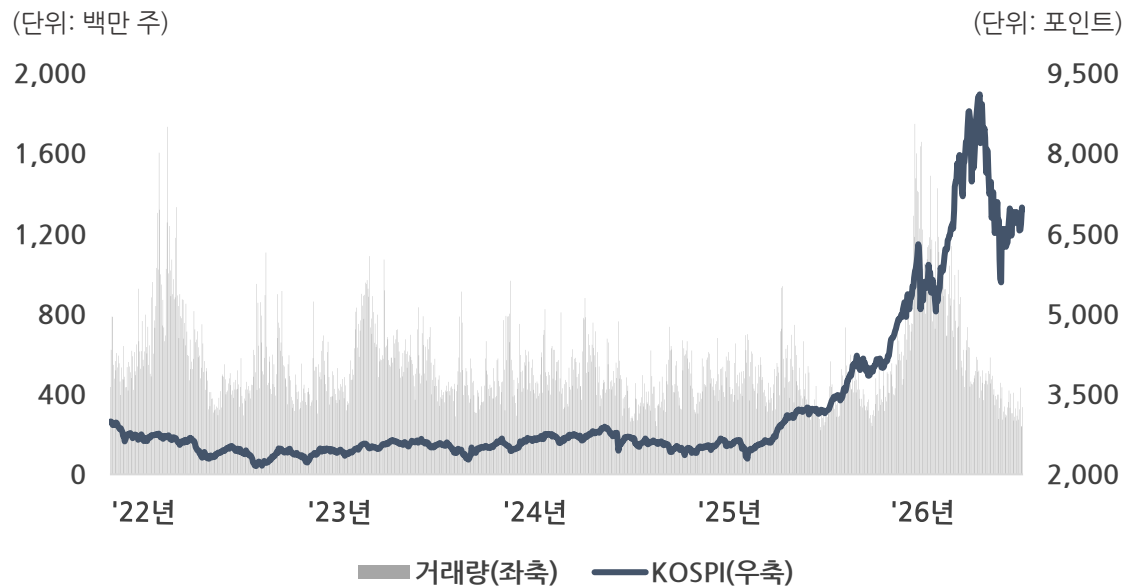
주: 장외시장, 잔존만기 10년 이상 국고채 순매수

자료: 연합인포맥스

## 2. 대내 여건: 주가 및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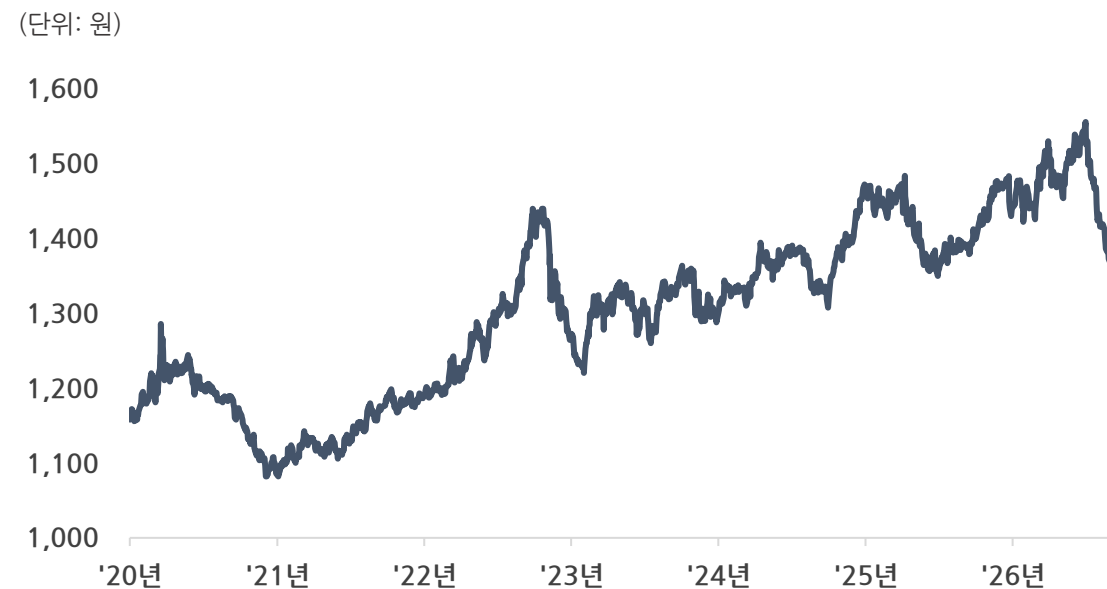
- KOSPI는 2026년 상반기 고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조정폭이 확대됨
  - 6월 고점 이후 하락과 반등이 반복되고 있으며, 최근 들어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
- 원/달러 환율은 2026년 상반기 상승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근 연중 낮은 수준을 기록함
  - 주가 하락과 환율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통상적인 동조 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임

### KOSPI 지수 및 거래량



주: 2026년 9월 8일까지  
자료: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

### 원/달러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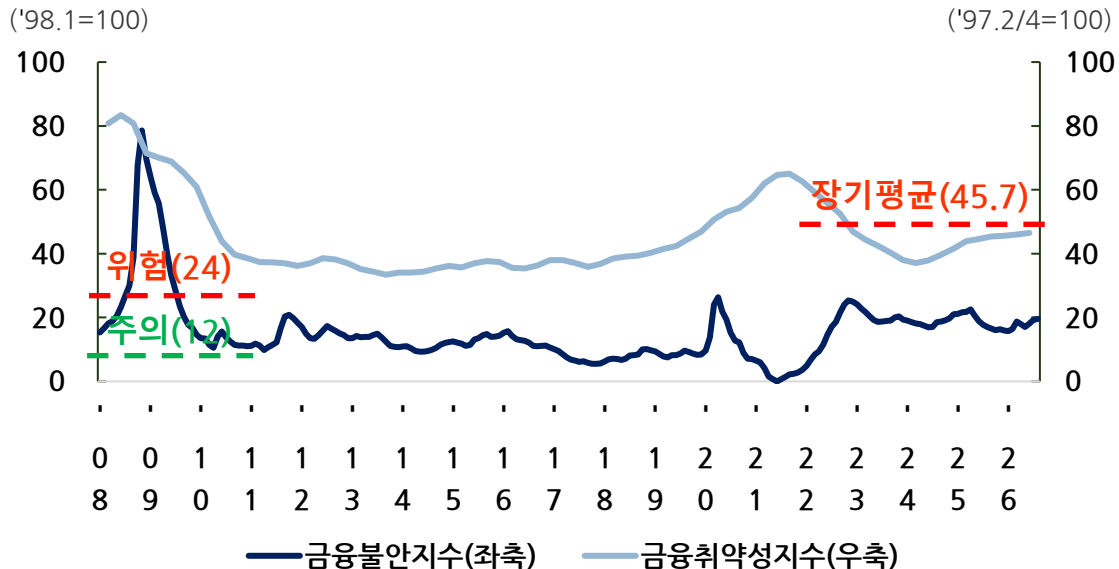


주: 2026년 9월 8일까지  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## 2. 대내 여건: 금융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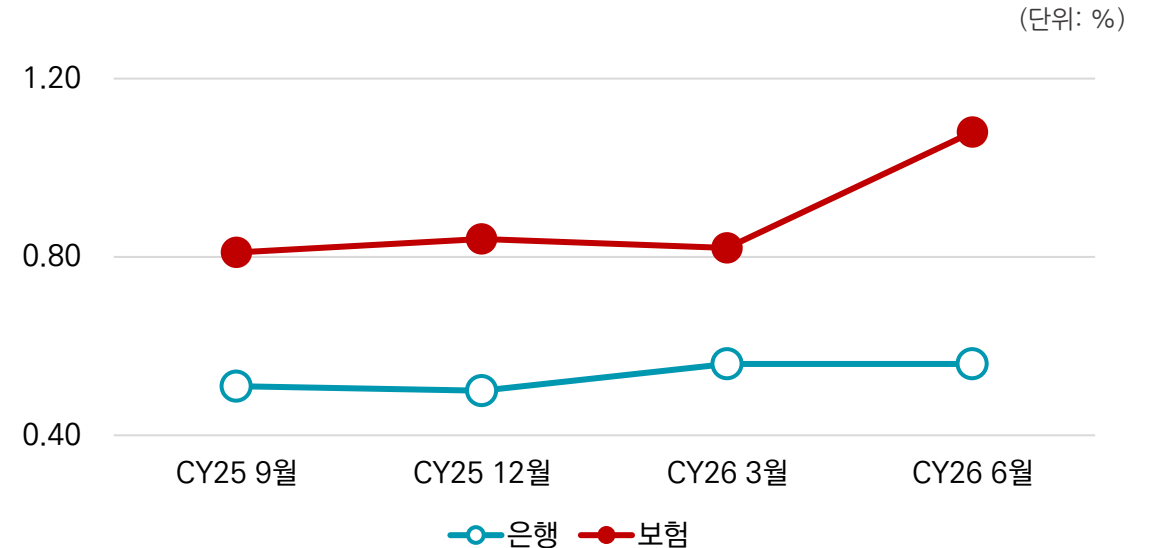
- 금융불안지수는 주의단계에 머물고 금융취약성지수는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임
  - 8월 FSI는 19.5로 주의(12)·위험(24) 기준 사이이며, 2/4분기 FVI는 46.5로 장기평균(45.7)을 상회함
- 대출 연체율은 가계보다 기업에서, 은행보다 보험에서 상승세가 뚜렷함

금융불안지수(FSI) 및 금융취약성지수(FVI)



주: FSI는 8월, FVI는 2/4분기까지  
자료: 한국은행; 제공 엑셀

업권별 연체율 현황



주: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임  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

### 3. 요약 및 잠재 위험요인

#### 경제·금융 환경 전망

| 구분    | 2025 | 2026(E) | 2027(E) |
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경제성장률 | ↓↓   | ↑↑      | ↓       |
| 물가상승률 | ↓    | ↑       | ↓       |
| 시장금리  | ↑    | ↑↑      | ↓       |
| 주가    | ↑↑   | ↑↑      | ↑       |
| 환율    | ↑    | =       | ↓       |

#### 대외적 위험요인

-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 및 물가압력 지속
- AI 투자 조정과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·투자 약화
- 미국 통상압력 확대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#### 국내 보험회사 CEO의 2027년 경영 위협요인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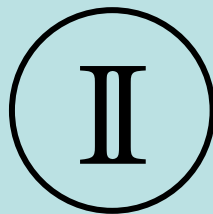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점)



주: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산업전망과 자사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임(N=29)

#### 대내적 위험요인

- 반도체 중심 성장의 소득·소비 파급 지연 및 업종 간 회복 격차 심화
-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
- 금리·생활비 부담 지속에 따른 취약가계·자영업자의 상환여력 약화



# 보험산업 동향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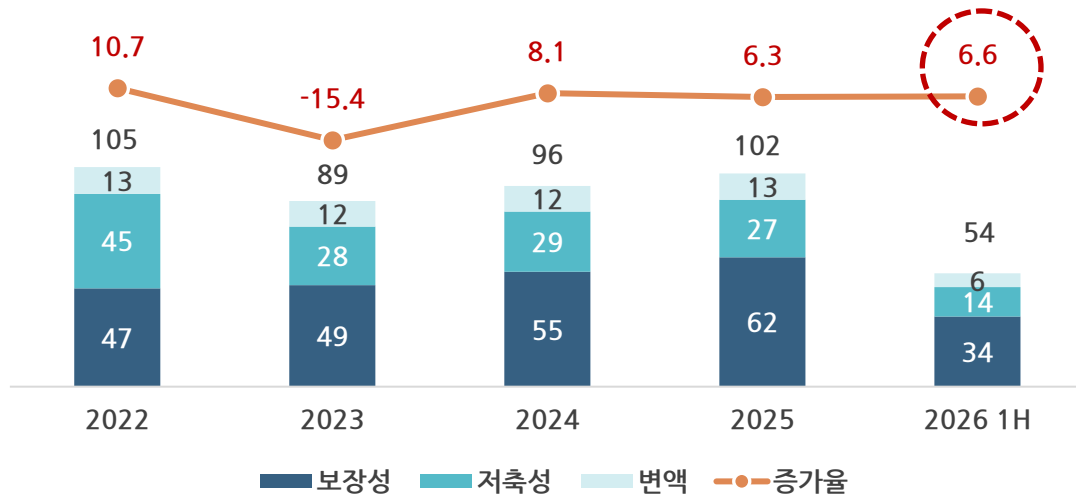
- 1. 성장성
- 2. 수익성
- 3. 건전성

# 1. 성장성 ① 생명보험: 전체(퇴직연금 제외)
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(퇴직연금 제외)는 54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6.6% 성장함
  - 보장성보험(+10.8%)과 변액보험(+3.9%)은 증가한 반면, 저축성보험(−1.3%)은 소폭 감소함
- 신규 판매 지표인 연납화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.8% 감소함
  - 변액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는 24.7% 증가했으나,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각각 14.9%, 5.0% 감소함

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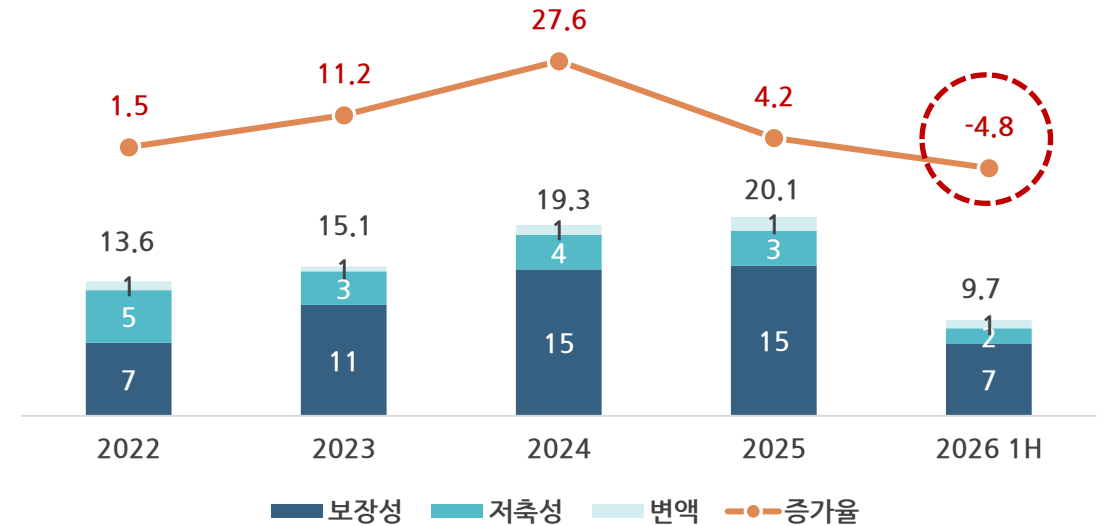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주: 퇴직연금 제외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생명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

(단위: 조 원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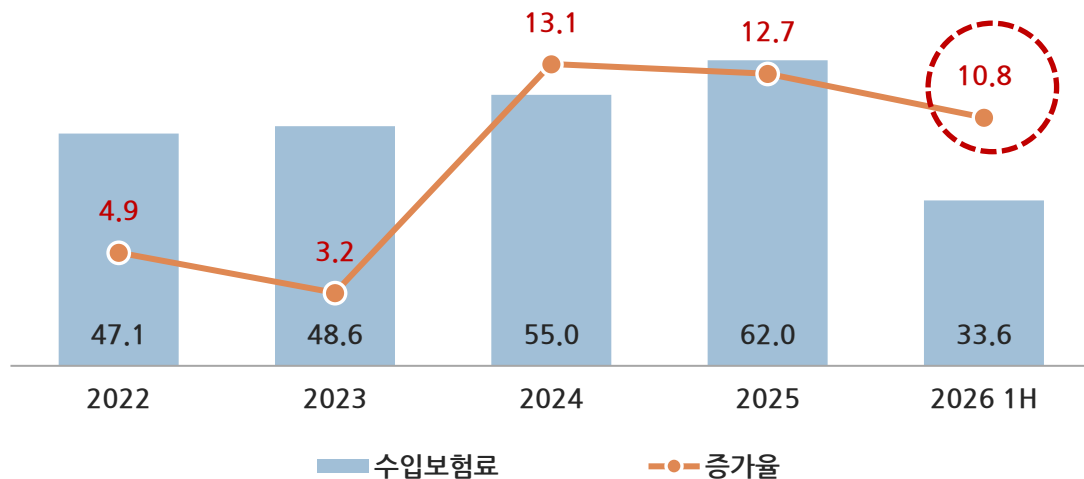
주: 퇴직연금 제외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 1. 성장성 ① 생명보험: 보장성보험
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33.6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10.8% 증가함
  - 2025년 건강보험 중심 신계약 확대와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가 계속보험료 증가를 견인함
  - 다만 전년 동기 건강보험 판매 급증의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 유입은 크게 둔화됨

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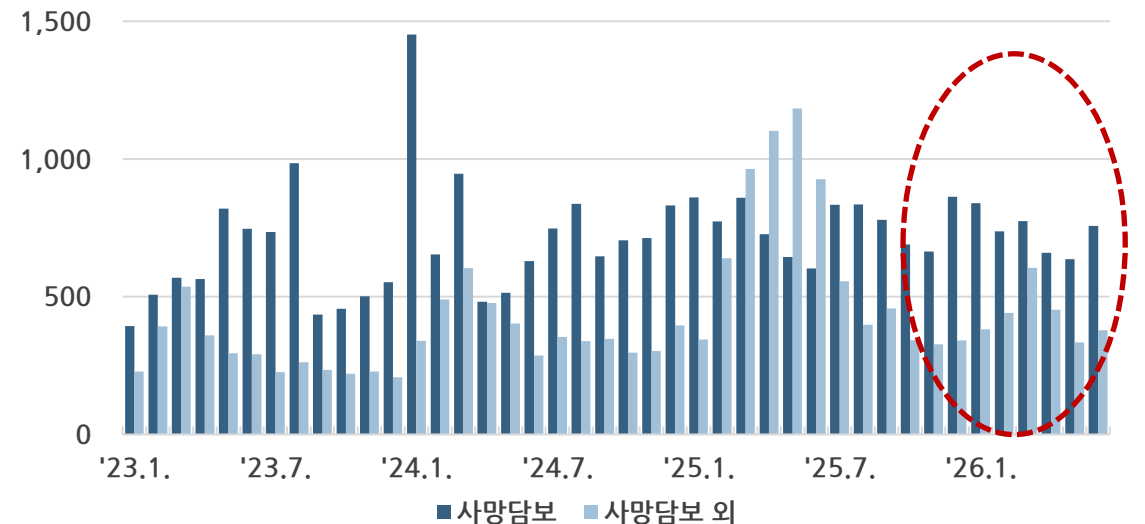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보장성보험 담보별 초회보험료

(단위: 억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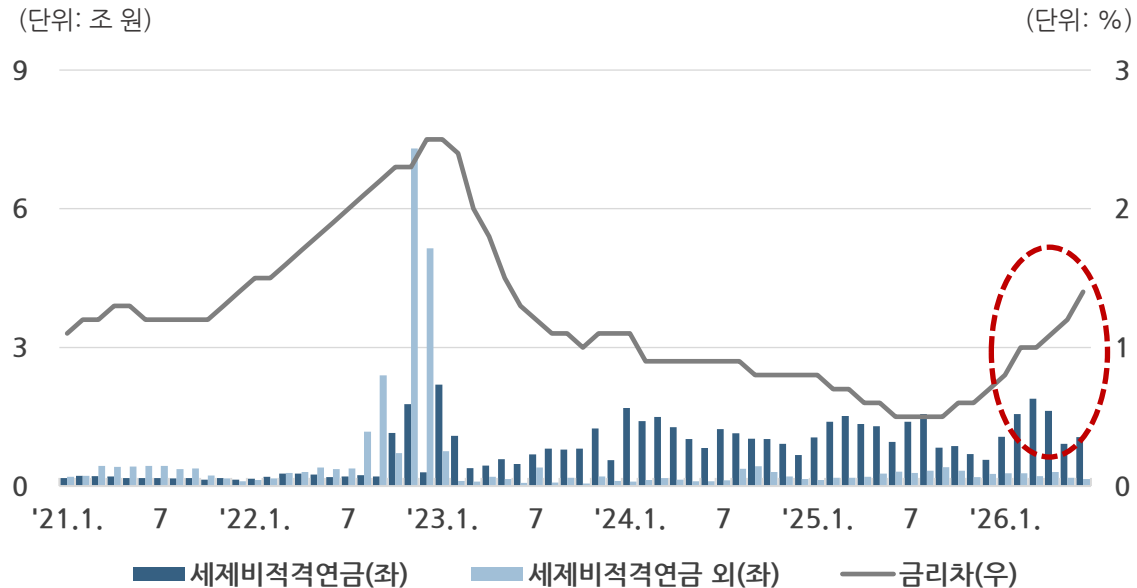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 1. 성장성 ① 생명보험: 저축성 및 변액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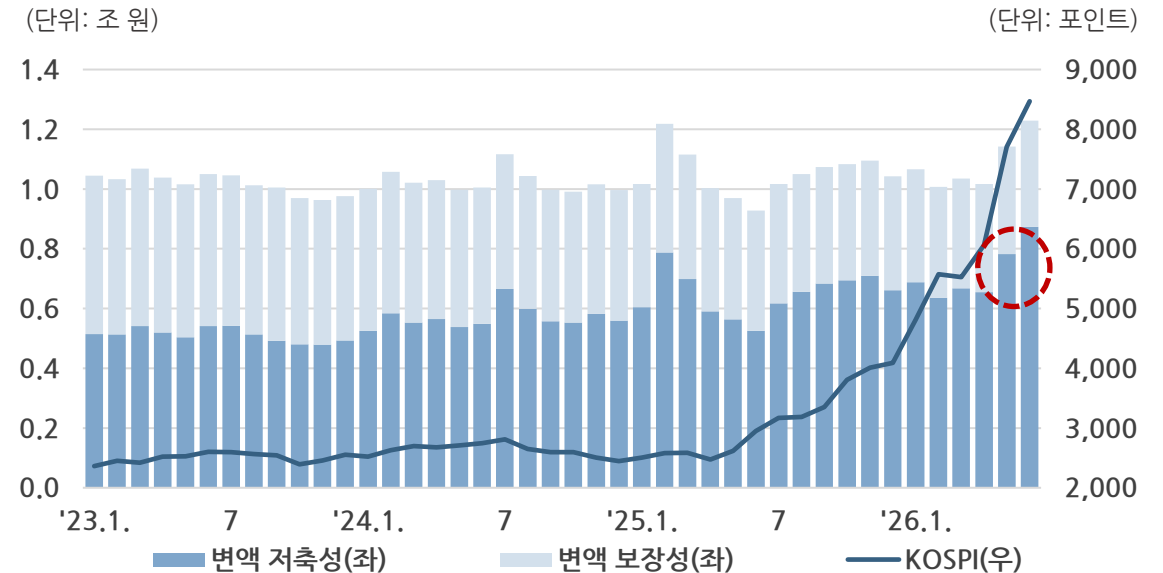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.0% 증가하는 데 그침
  - 초회보험료는 7.5% 증가했으나 증시 호조 속에 2/4분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, 계속보험료가 14% 감소함
-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증시 호조에 따른 신계약 및 추가납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.9% 증가함
  - 특히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4.1% 증가함

저축성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금리차



주: 금리차는 정기예금 연평균 이율과 공시기준이율의 차이로 산출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, 보험개발원

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및 주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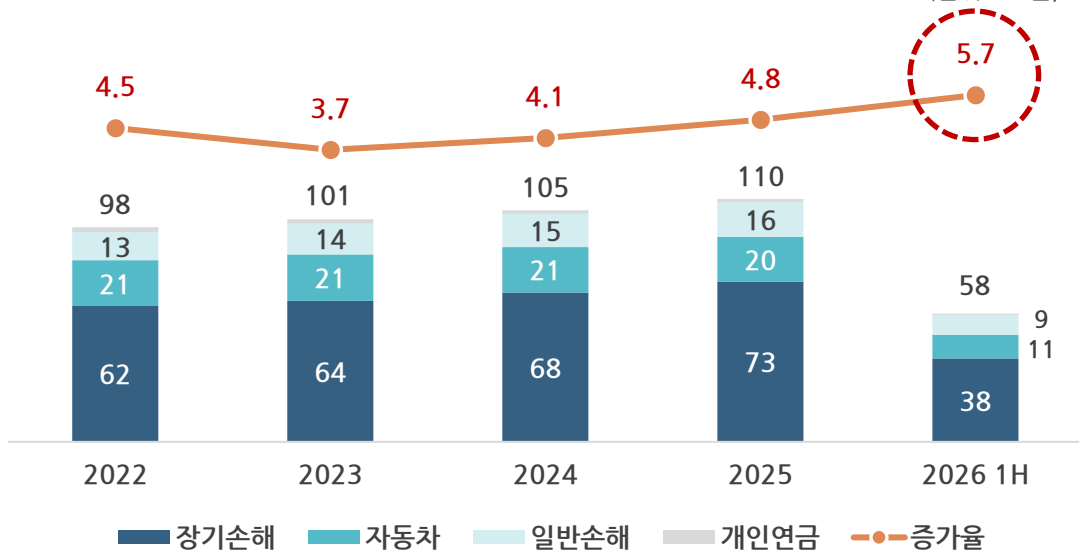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, 한국거래소

## 1. 성장성 ② 손해보험: 전체(퇴직연금 제외)

-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(퇴직연금 제외)는 58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5.7% 성장함
  - 장기손해보험(+6.0%)과 일반손해보험(+8.0%)이 성장세를 이어갔고, 자동차보험도 4.2% 증가함
- 장기손해보험의 신규 판매 지표인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함
  - 장기인보험 초회보험료는 2.9% 증가했으나, 장기물보험이 30.0% 감소함

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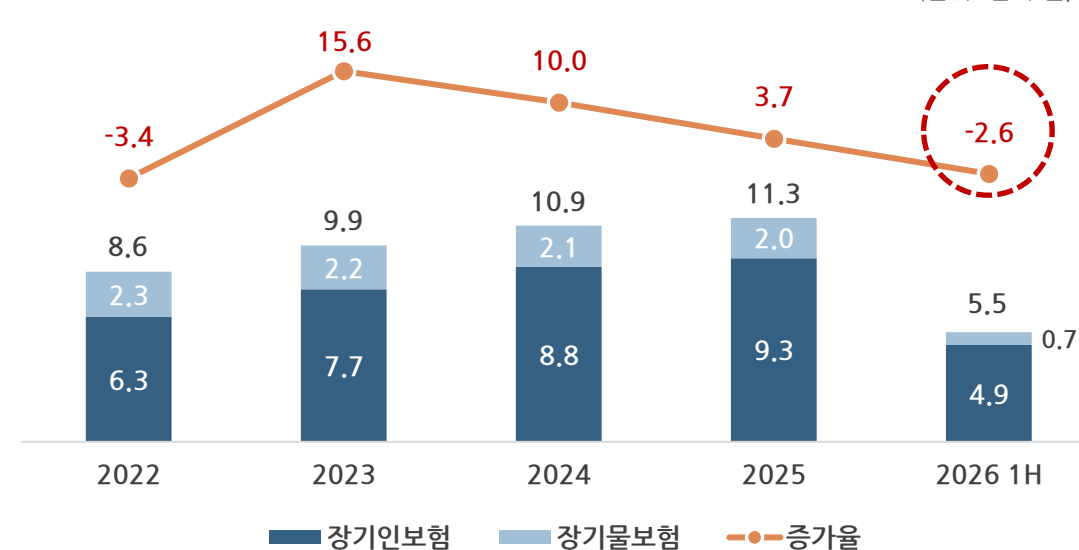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주: 퇴직연금 제외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

(단위: 천억 원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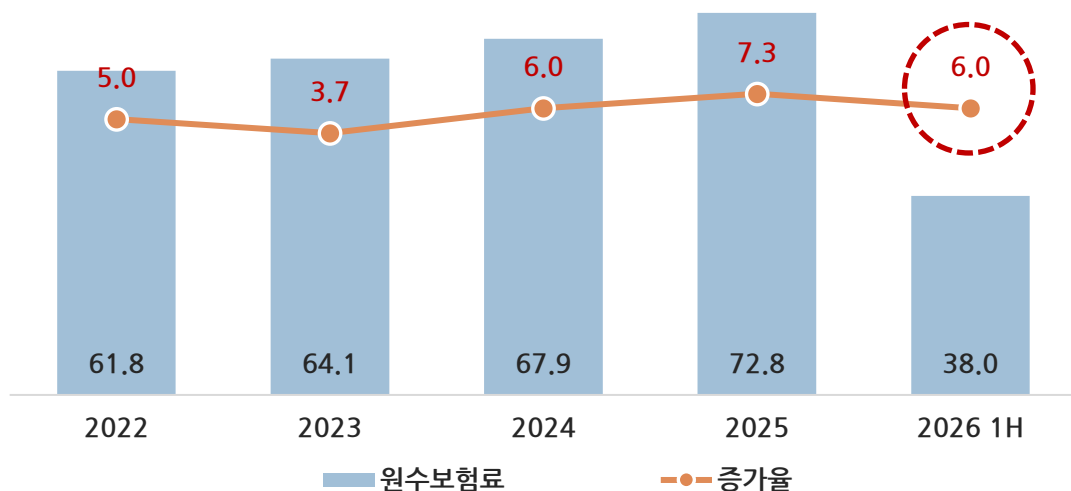
주: 저축성보험 제외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1. 성장성 ② 손해보험: 장기손해보험

- 2026년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0% 성장함
  - 계속보험료는 갱신 보험료 인상 등으로 5.9% 증가하며 원수보험료 증가분의 대부분(97%)을 차지함
  - 초회보험료는 치매·간병(+256억 원)·상해(+150억 원)가 늘었으나, 질병·운전자가 줄며 2.6% 감소함
  - 다만,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3~4월 판매 집종의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임

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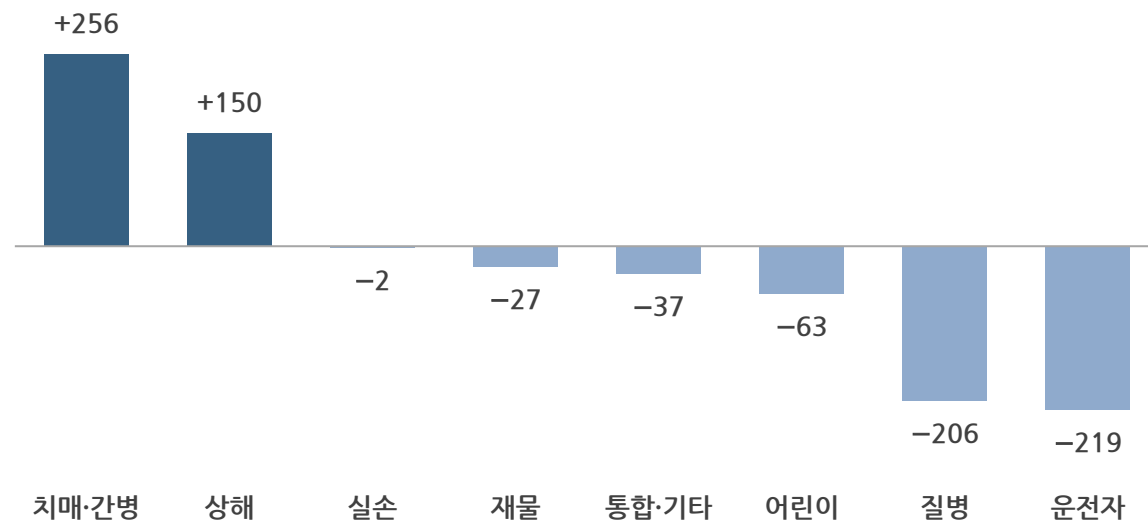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감(2026년 상반기)

(단위: 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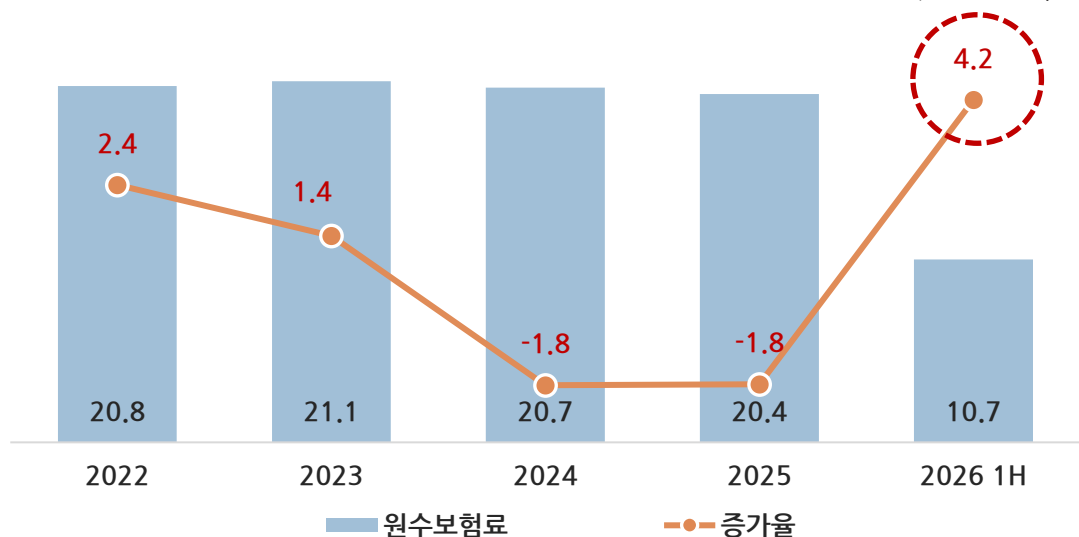
주: 저축성보험 제외,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1. 성장성 ② 손해보험: 자동차보험

-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.2% 증가함
  - 영업손실 확대에 따라 2026년 초 자동차보험료가 1.3~1.4% 인상되면서 원수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됨
  - 건당보험료는 2025년 78만 원에서 2026년 상반기(연환산 기준) 83만 원으로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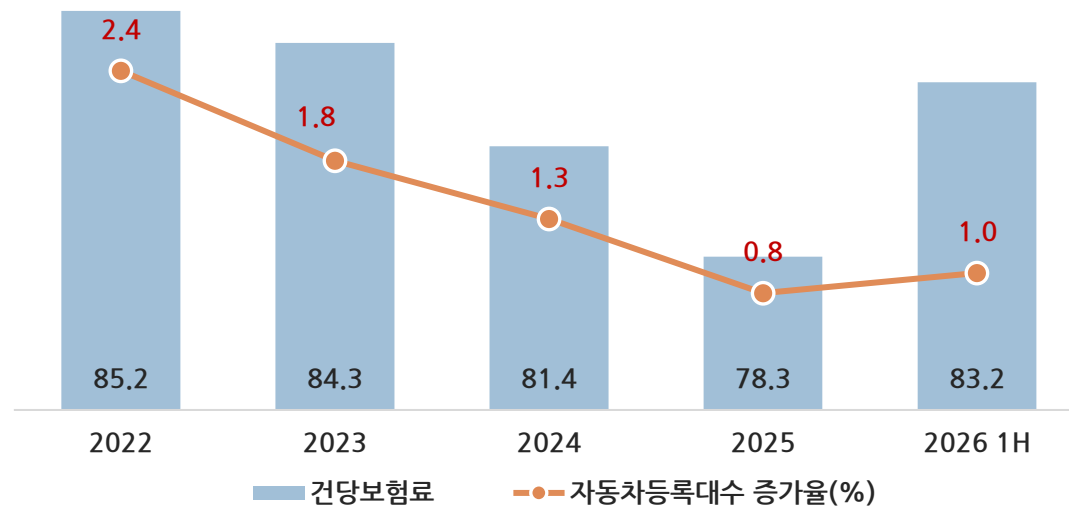
###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

(단위: 조 원, %)



### 자동차보험 등록대수 증가율 및 건당보험료

(단위: 만 원, %)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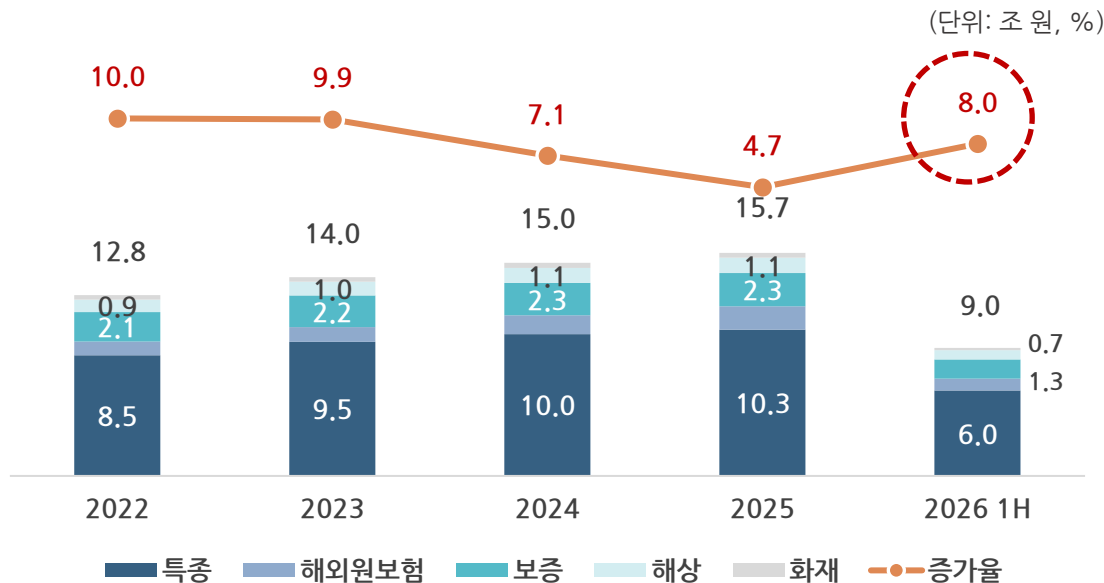
주: 누적 기준 손익과 손해율 기준임  
자료: 보험개발원; 금융감독원 보도자료

# 1. 성장성 ② 손해보험: 일반손해보험

- 2026년 상반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.0% 증가함
  - 특종보험은 배상책임 및 기업성 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5.8% 증가하며 일반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함
  - 해상보험(+13.6%)은 원화 약세와 전쟁위험 할증 등으로, 보증보험(+12.9%)도 크게 증가함
  - 화재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3.0% 감소함

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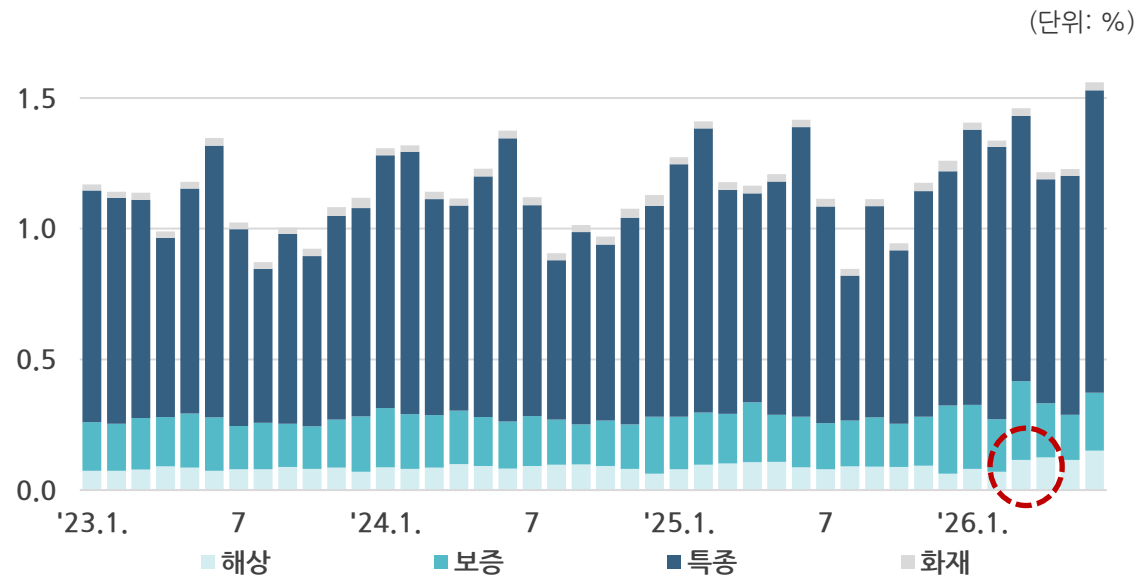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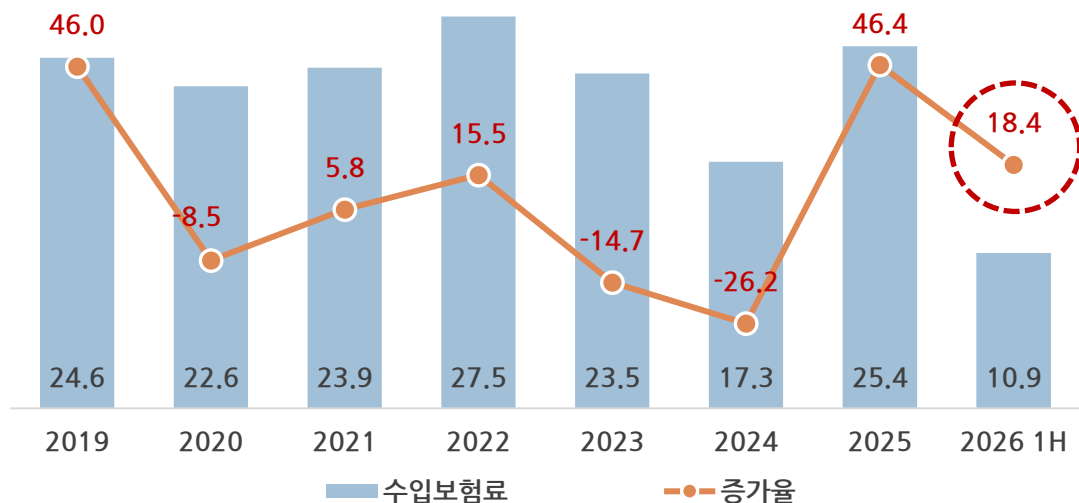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 1. 성장성 ③ 퇴직연금
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퇴직연금 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.4%, 24.1% 증가함
  - 은퇴소득 확보 수요 증가 및 IRP 시장 확대 등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  - 다만 실적배당형에 강점이 있는 증권업권의 적립금이 빠르게 늘면서 보험업권의 적립금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

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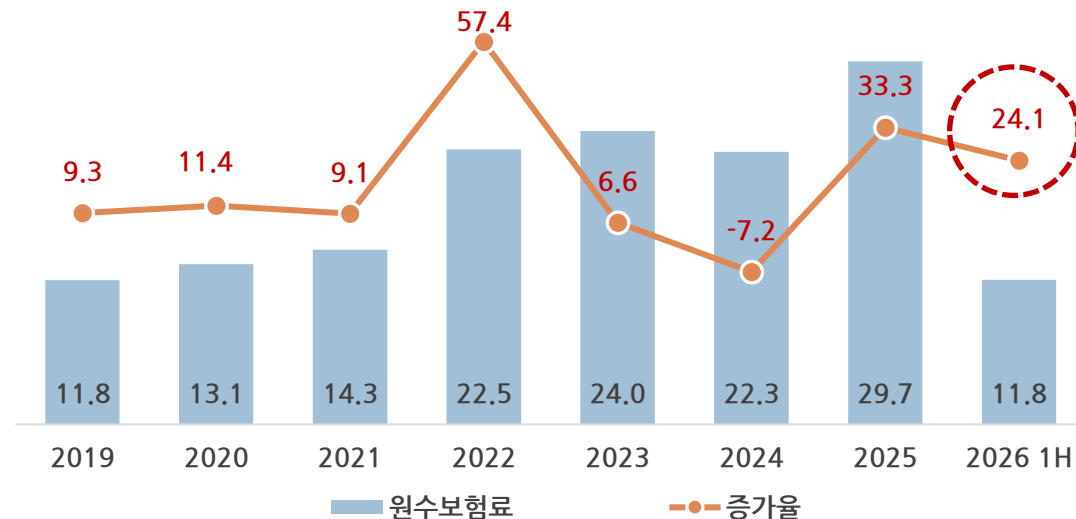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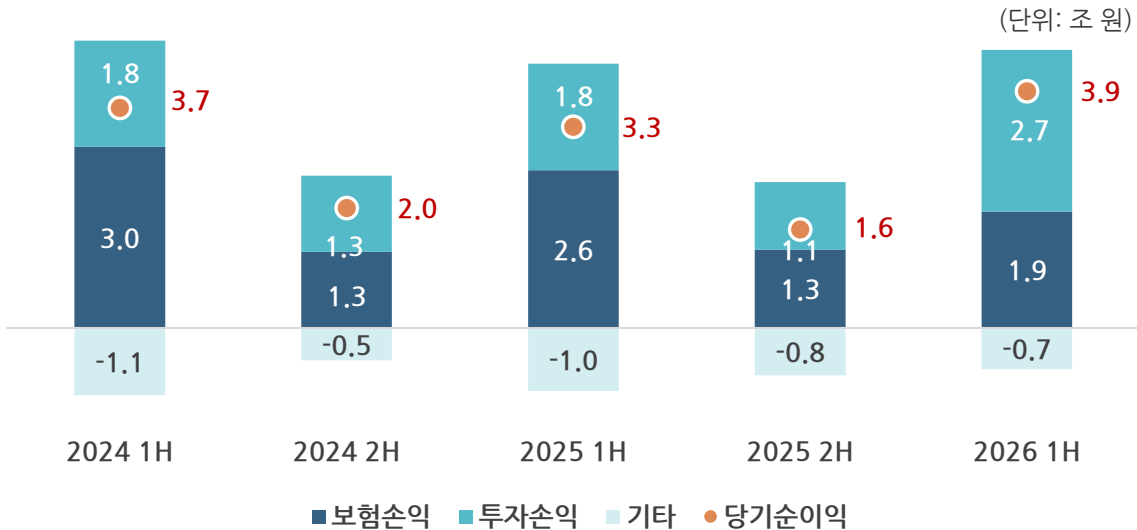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① 생명보험: 당기순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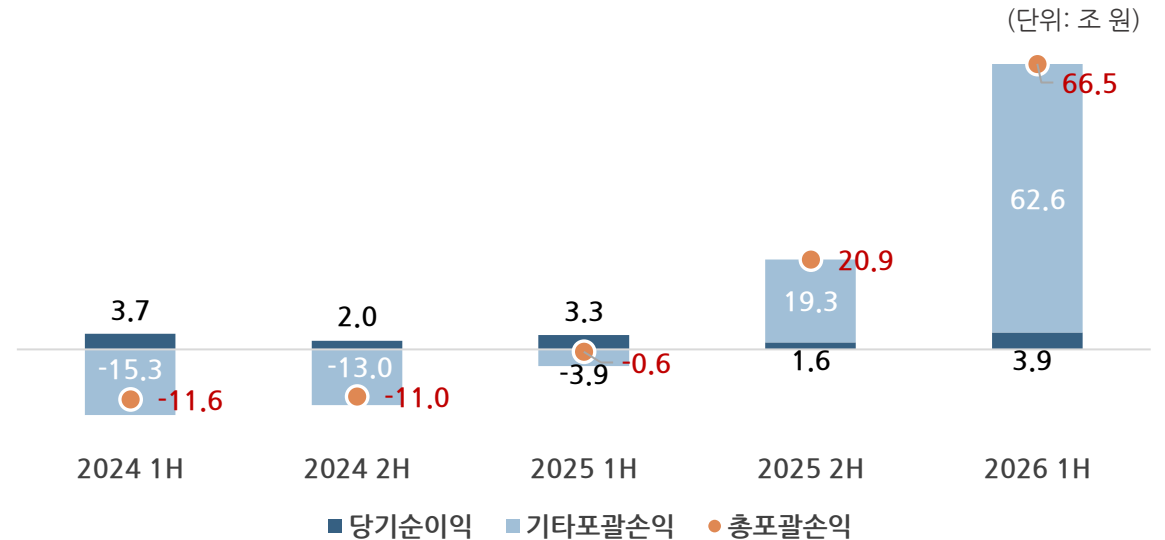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.9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18% 증가함
  - 보험손익은 26% 감소하였으나, 투자손익이 52% 증가함
- 총포괄손익은 66.5조 원, 기타포괄손익이 62.6조 원을 기록함

생명보험 당기순이익



주: 기타는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비용의 합  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생명보험 총포괄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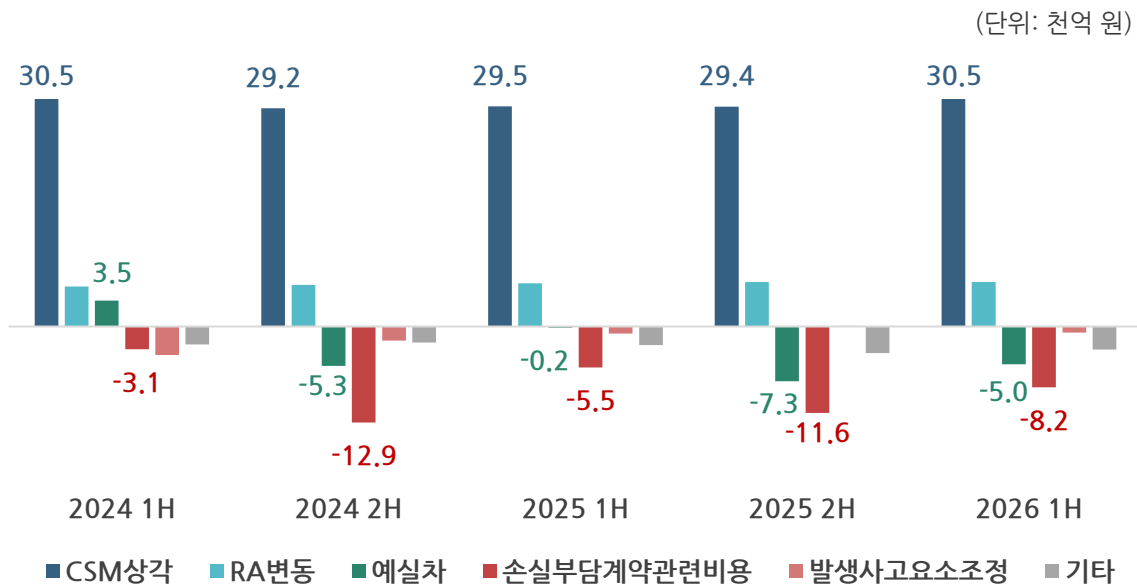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## 2. 수익성 ① 생명보험: 보험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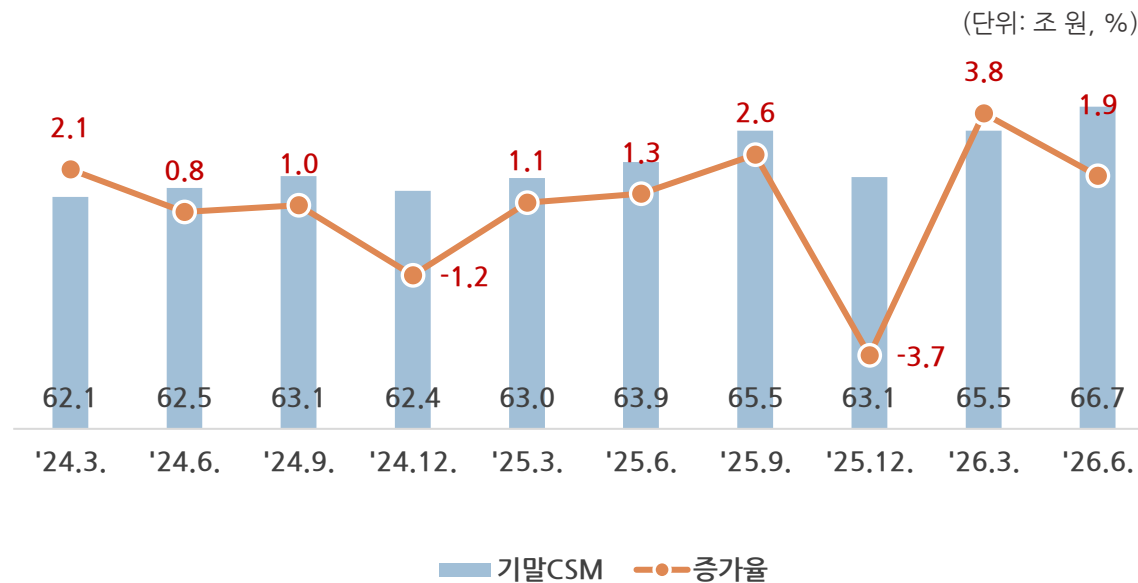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보험손익은 1.9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0.7조 원 감소함
  - CSM 상각액은 0.1조 원 증가했으나, 예실차와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이 각각 0.5조 원, 0.3조 원 악화됨
-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CSM 규모는 66.7조 원으로, 전년 대비 4.5% 증가함

생명보험 보험손익 구성

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생명보험 CSM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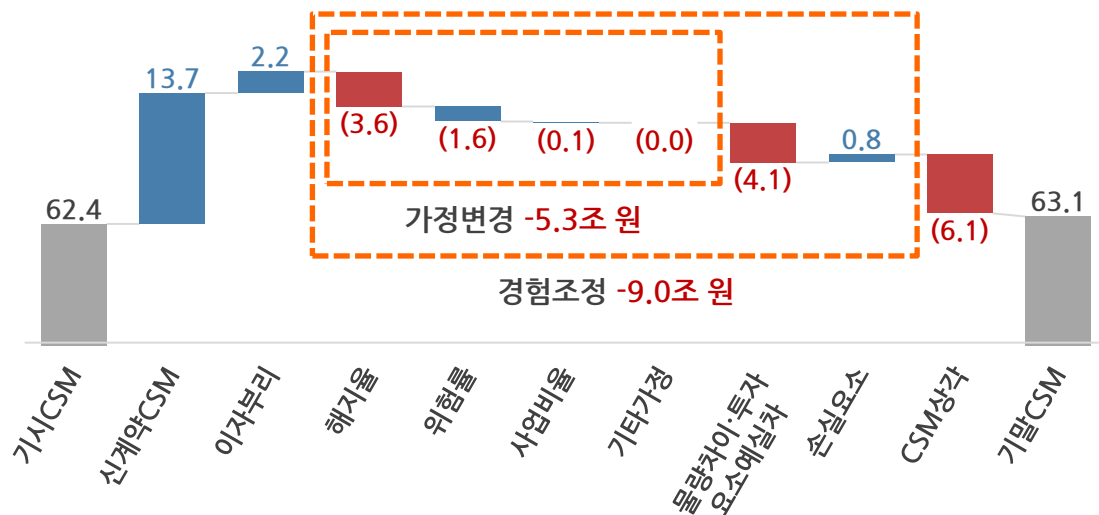
주: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① 생명보험: CSM

- 생명보험 CSM 변동의 주요 요인은 신계약CSM(+), CSM상각(-), 가정변경(-), 물량차이(-)임
  - 2025년 CSM 하락 변동에서 CSM상각, 가정변경, 물량차이는 각각 39%, 34%, 27%를 차지함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신계약 CSM 배수는 83.0%로, 전년 동기 대비 19.8%p 상승함
  - 연납화초회보험료는 감소했으나 신계약 CSM은 증가함

생명보험 CSM 변동(202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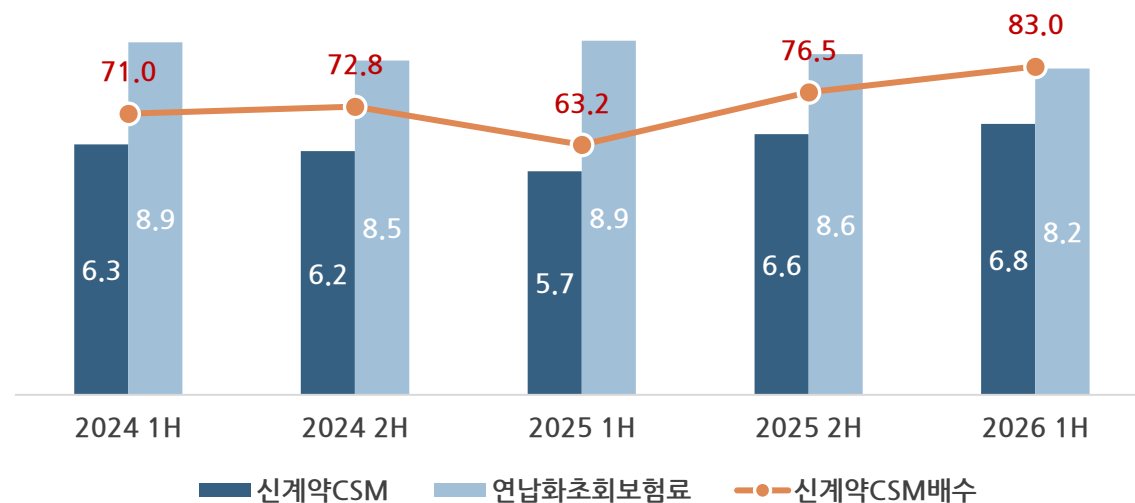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경영공시, 「사업보고서」

생명보험 신계약 CSM 배수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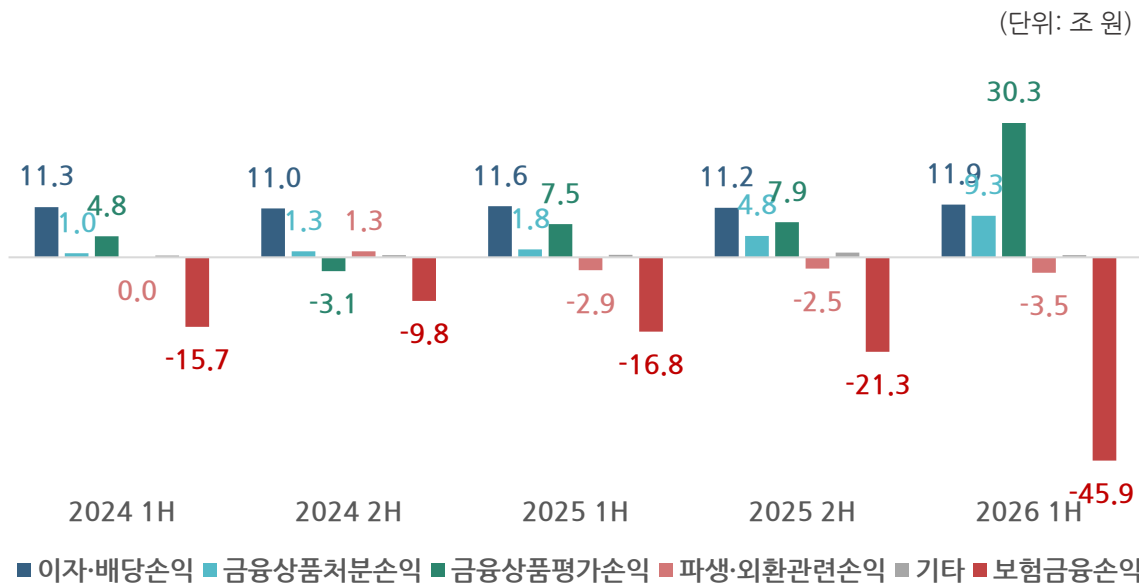


주: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대상, 신계약CSM배수 = 신계약CSM/연납화초회보험료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, 「사업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① 생명보험: 투자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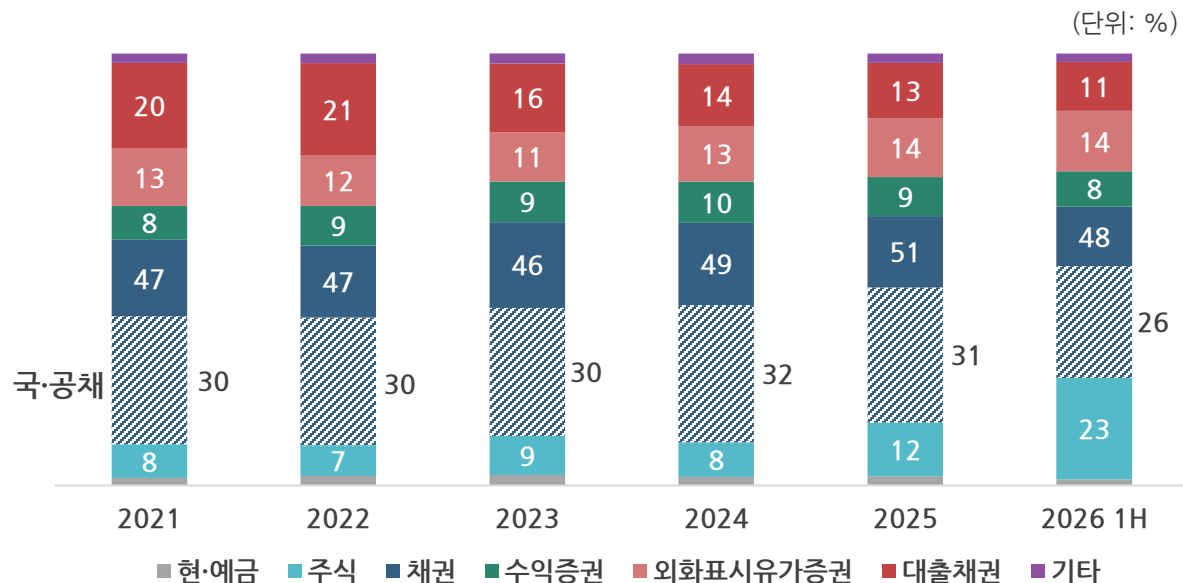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투자손익은 2.7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0.9조 원 증가함
  - 금융상품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이 각각 22.8조 원, 7.6조 원 증가한 반면, 보험금융손익이 29.1조 원 감소함
-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운용자산 비중은 채권(48%), 주식(23%), 외화표시유가증권(14%) 순임
  - 주식 비중은 1년 전보다 확대된 반면, 채권 비중은 축소됨

생명보험 투자손익 구성



주: 금융상품평가손익은 금융상품손상차손을 포함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생명보험 운용자산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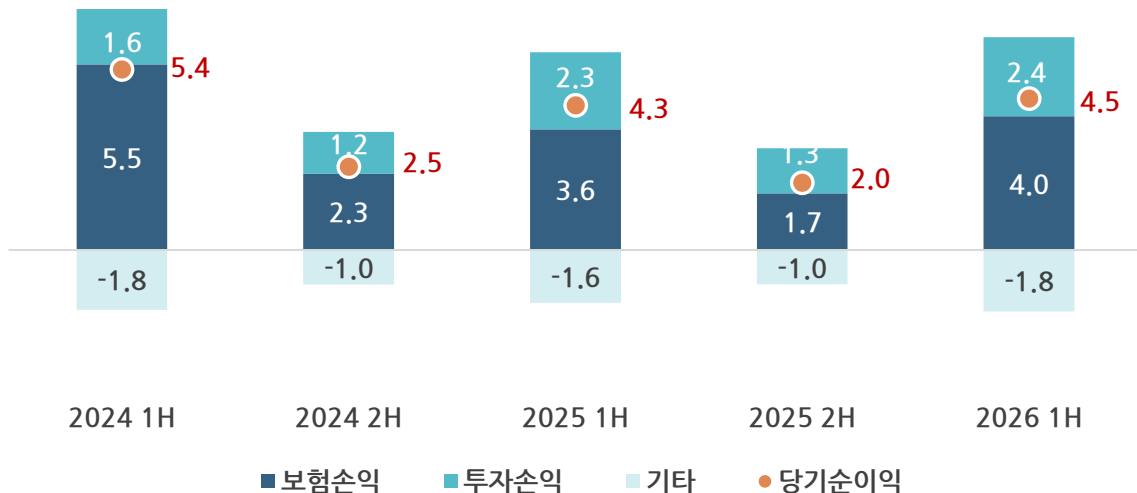
주: 2021~2022년은 IAS39/IFRS4 기준, 2023년 이후는 IFRS9/17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② 손해보험: 당기순이익

-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4.5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5% 증가함
  -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각각 11%, 3% 증가함
- 총포괄손익은 22.2조 원이며, 기타포괄손익은 17.6조 원을 기록함

### 손해보험 당기순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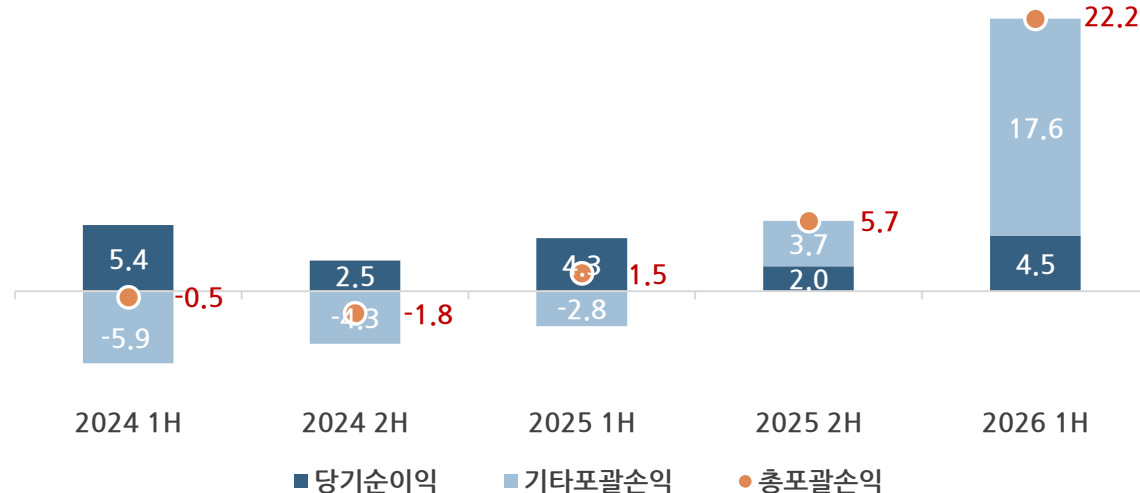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기타는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비용의 합  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### 손해보험 총포괄손익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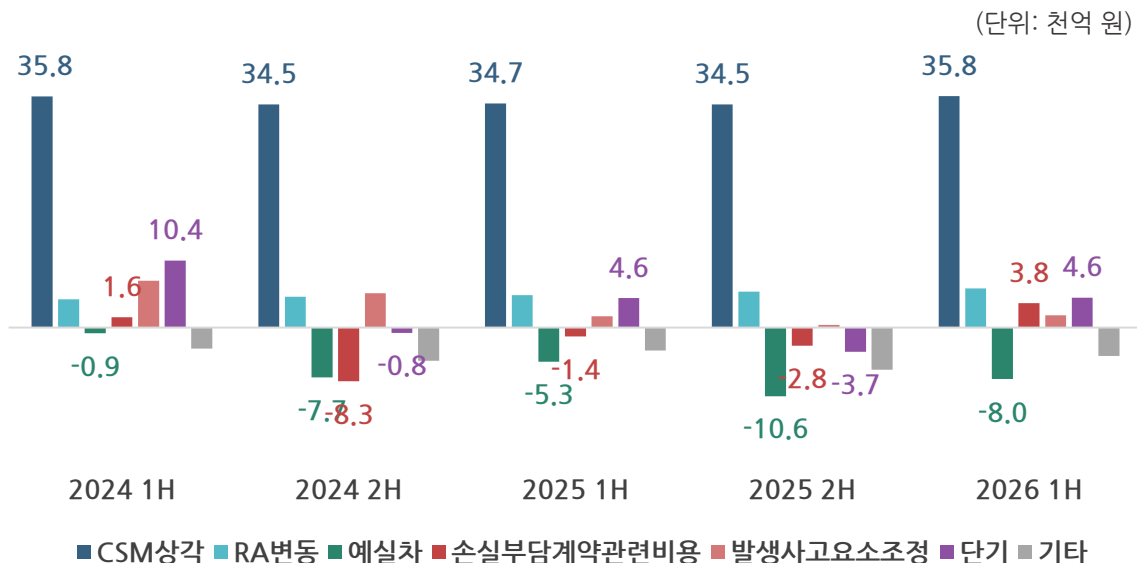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 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## 2. 수익성 ② 손해보험: 보험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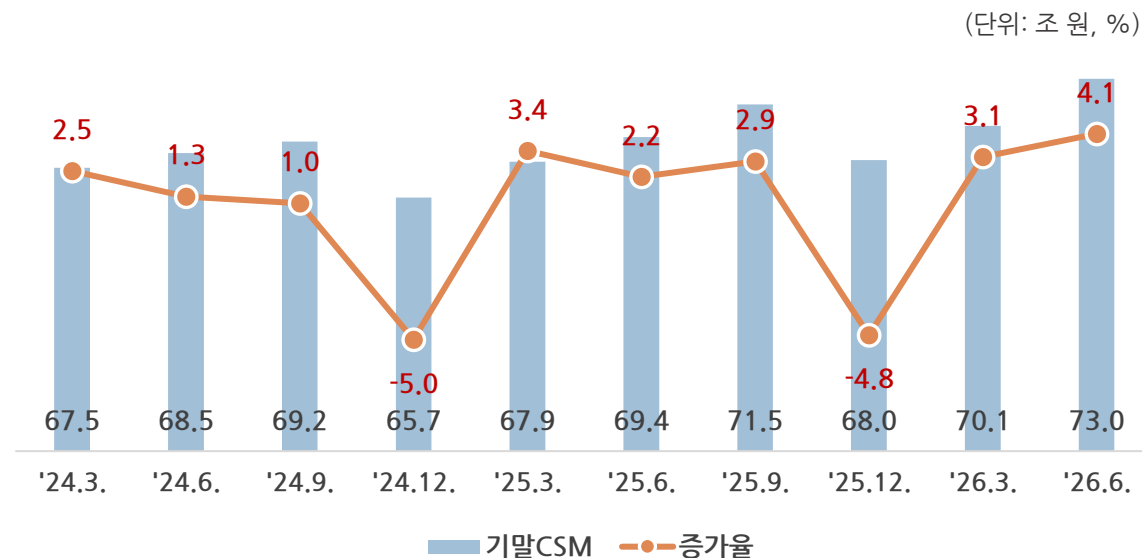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손익은 4.0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0.4조 원 증가함
  - 장기보험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이 환입으로 전환되며 0.5조 원 개선된 반면, 예실차는 0.3조 원 악화됨
  - CSM 상각액과 위험조정 변동이 0.2조 원 증가함
-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CSM 규모는 73.0조 원으로, 1년 전 대비 5.2% 증가함

손해보험 보험손익 구성
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손해보험 CSM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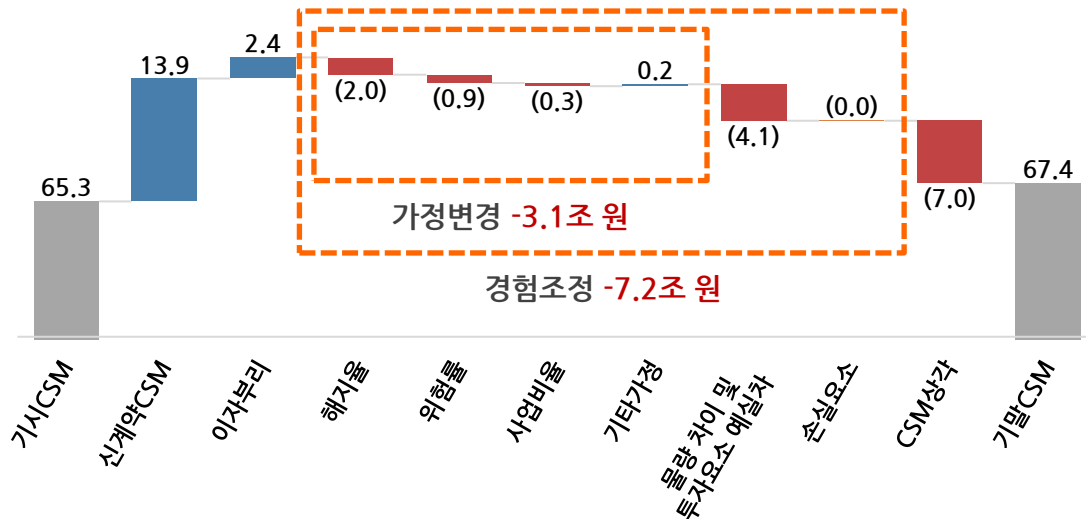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② 손해보험: CSM

- 손해보험 CSM 변동의 주요 요인은 신계약CSM(+), CSM상각(-), 물량차이(-), 가정변경(-)임
  - 2025년 CSM 하락 변동에서 CSM상각, 물량차이, 가정변경은 각각 49%, 29%, 22%를 차지함
-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계약 CSM 배수는 14.3배로, 전년 동기 대비 1.2배 상승함
  - 월납환산초회보험료는 9.8% 감소하였으며 신계약 CSM은 1.2% 감소함

손해보험 CSM 변동(202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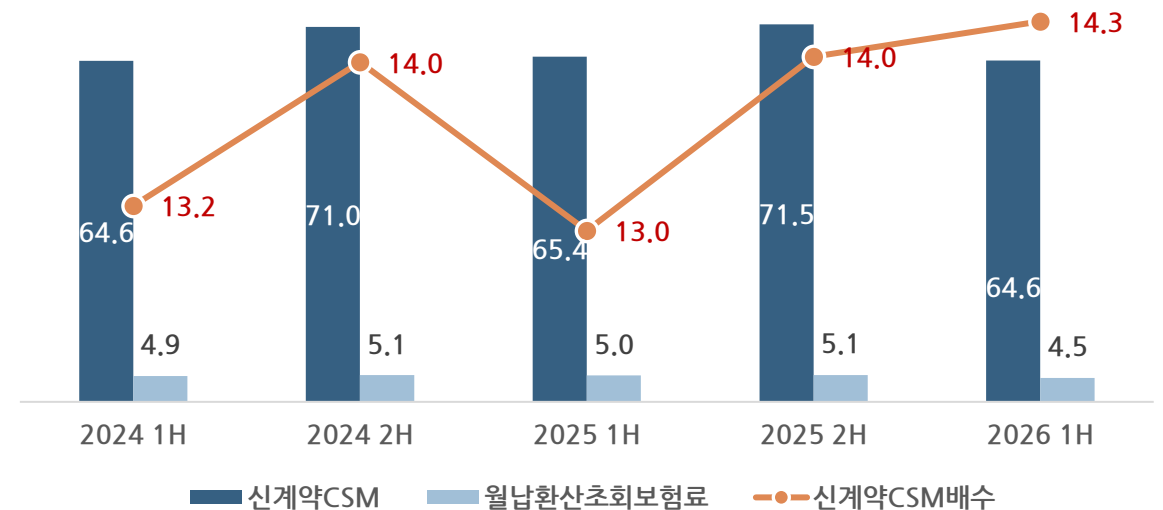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경영공시, 「사업보고서」

손해보험 신계약 CSM 배수

(단위: 천억 원, 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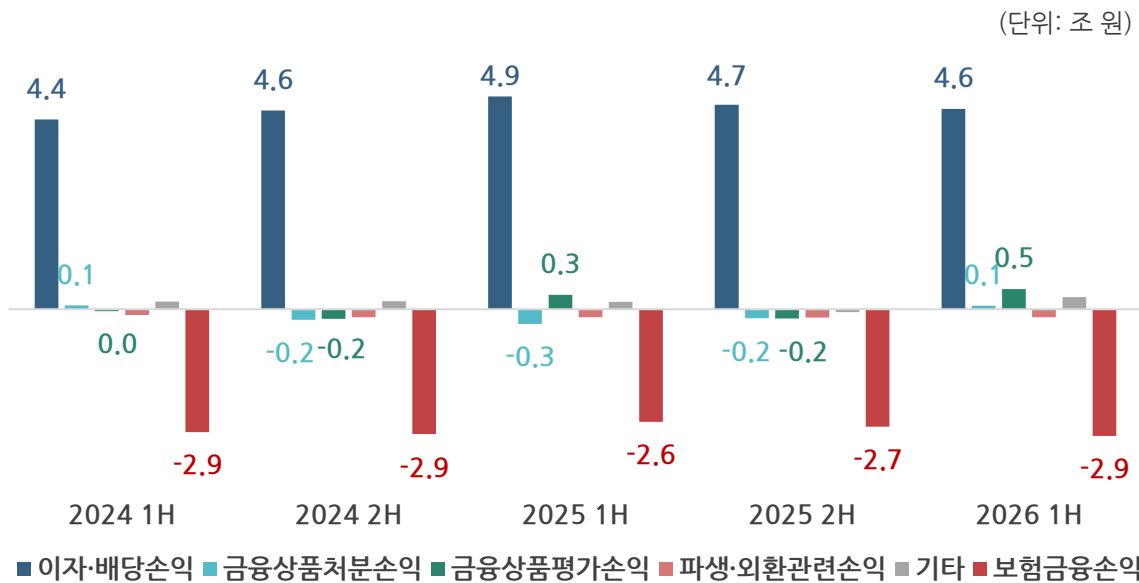


주: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대상, 신계약CSM배수 = 신계약CSM/월납환산초회보험료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, 「사업보고서」

## 2. 수익성 ② 손해보험: 투자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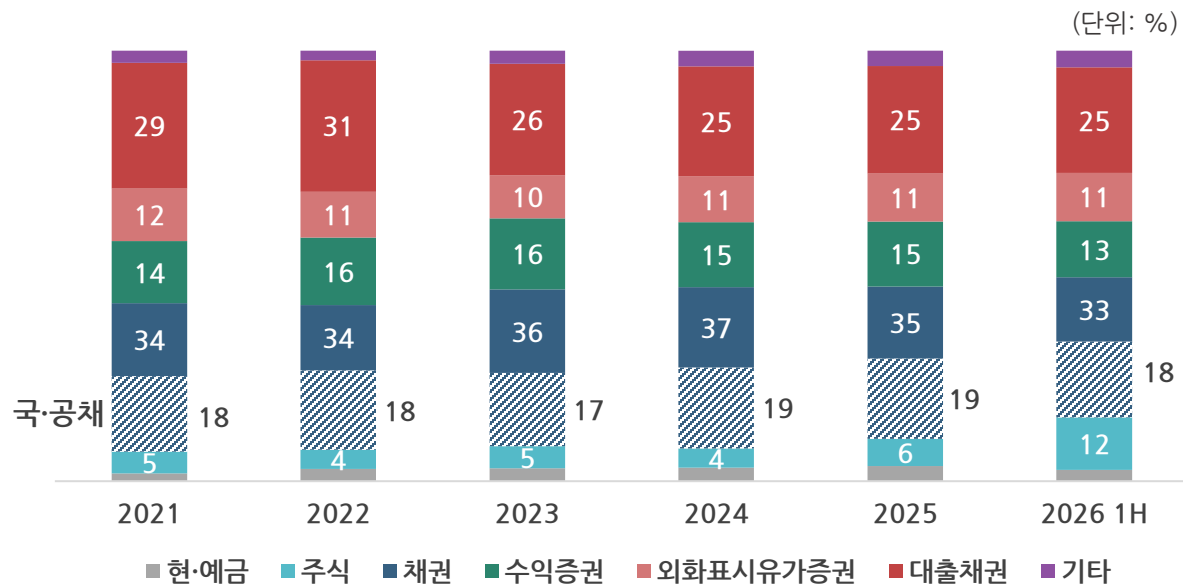
-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투자손익은 2.4조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0.1조 원 증가함
  - 처분·평가손익이 0.6조 원 증가한 반면, 이자·배당손익과 보험금융손익이 각각 0.3조 원 감소함
-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운용자산은 채권(33%), 대출채권(25%), 수익증권(13%) 순으로 비중이 높음
  - 주식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 채권과 수익증권 비중은 감소함

손해보험 투자손익 구성
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금융상품평가손익은 금융상품손상차손 포함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손해보험 운용자산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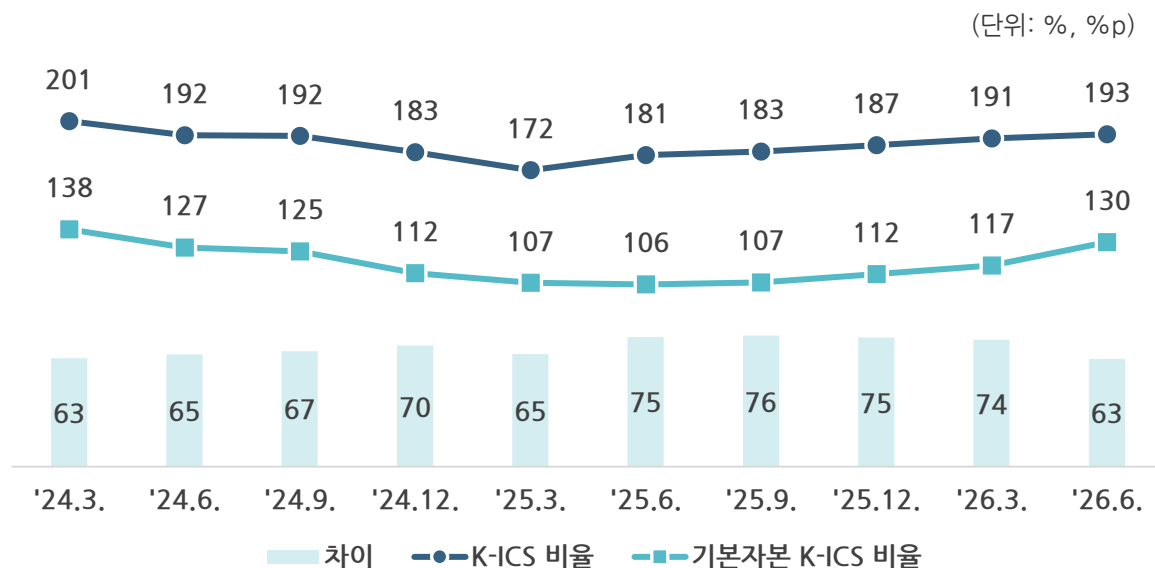


주: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2022년까지 IAS39/IFRS4 기준, 그 이후 IFRS9/17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# 3. 건전성 ① 생명보험: K-ICS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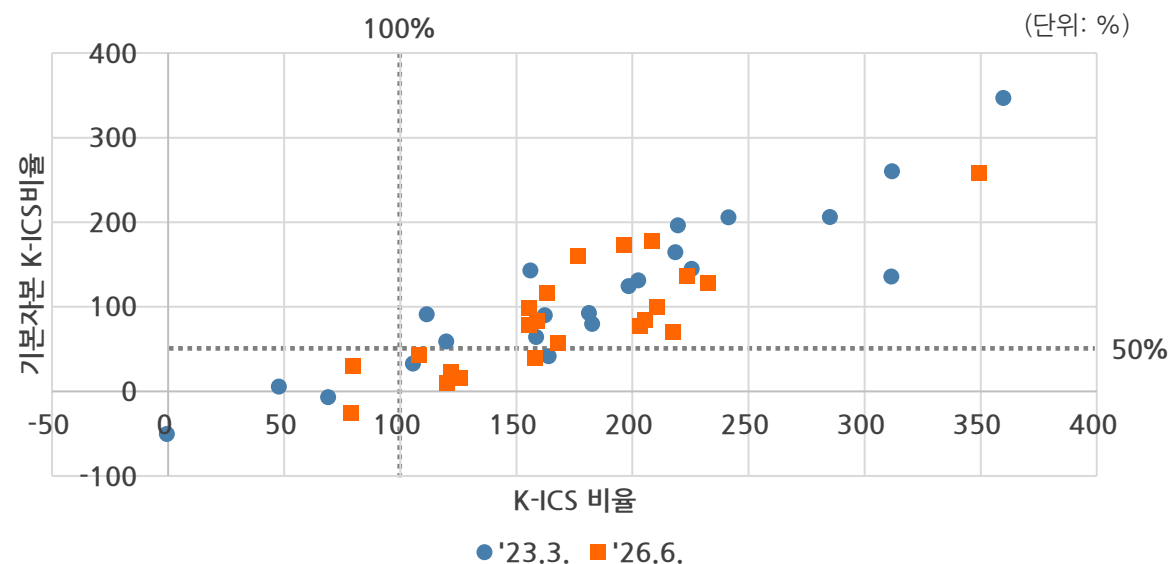
-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K-ICS 비율은 193%로, 전 분기 대비 2%p, 1년 전보다 12%p 상승함
  - 기본자본 K-ICS 비율은 전 분기 대비 13%p, 1년 전보다 24%p 상승함
  - 2023년 3월 말과 비교 시 22개사 중 13개사가 평균 46%p 하락함

생명보험 K-ICS 비율



주: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생명보험회사별 K-ICS 비율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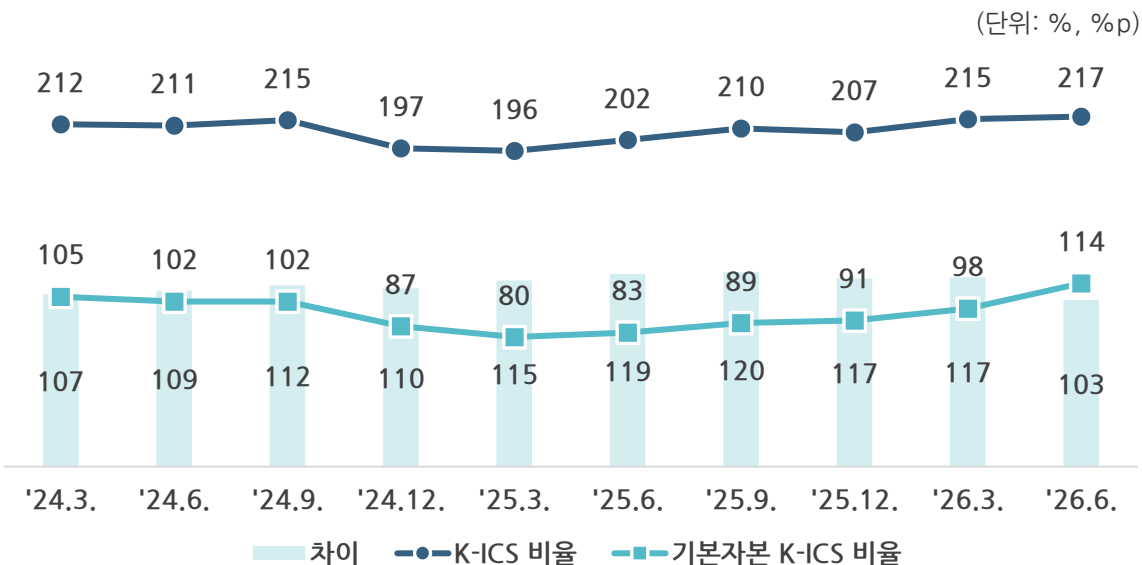


주: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# 3. 건전성 ② 손해보험: K-ICS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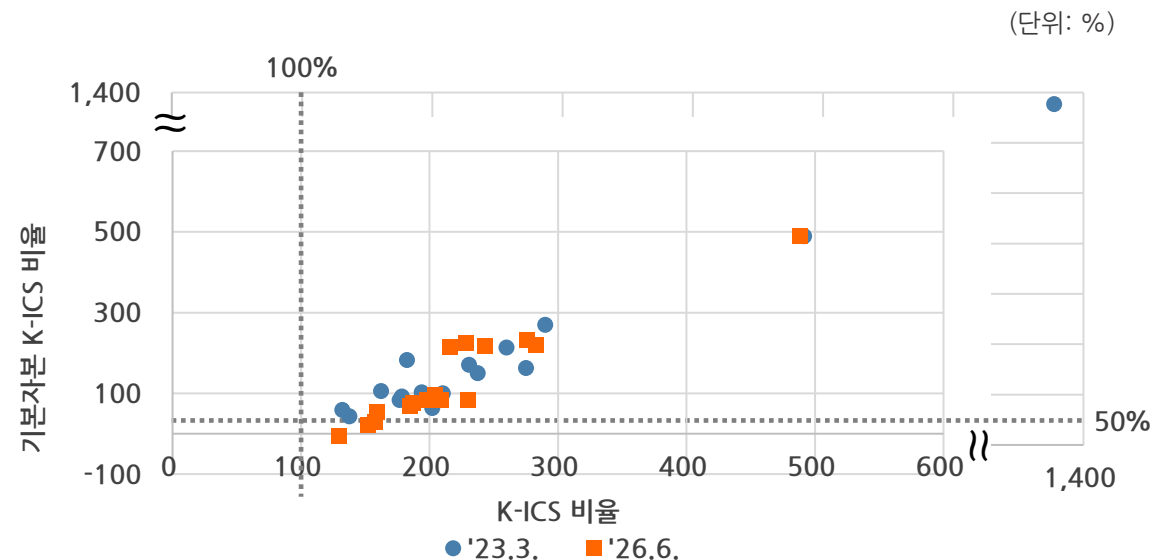
-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K-ICS 비율은 217%로, 전 분기 대비 2%p, 1년 전보다 14%p 상승함
  - 기본자본 K-ICS 비율은 전 분기 대비 16%p, 1년 전보다 31%p 상승함
  - 2023년 3월 말과 비교 시 16개사 중 10개사가 평균 53%p 하락함

손해보험 K-ICS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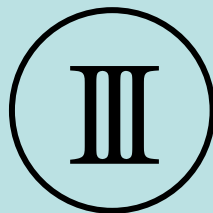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손해보험회사별 K-ICS 비율 분포



주: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,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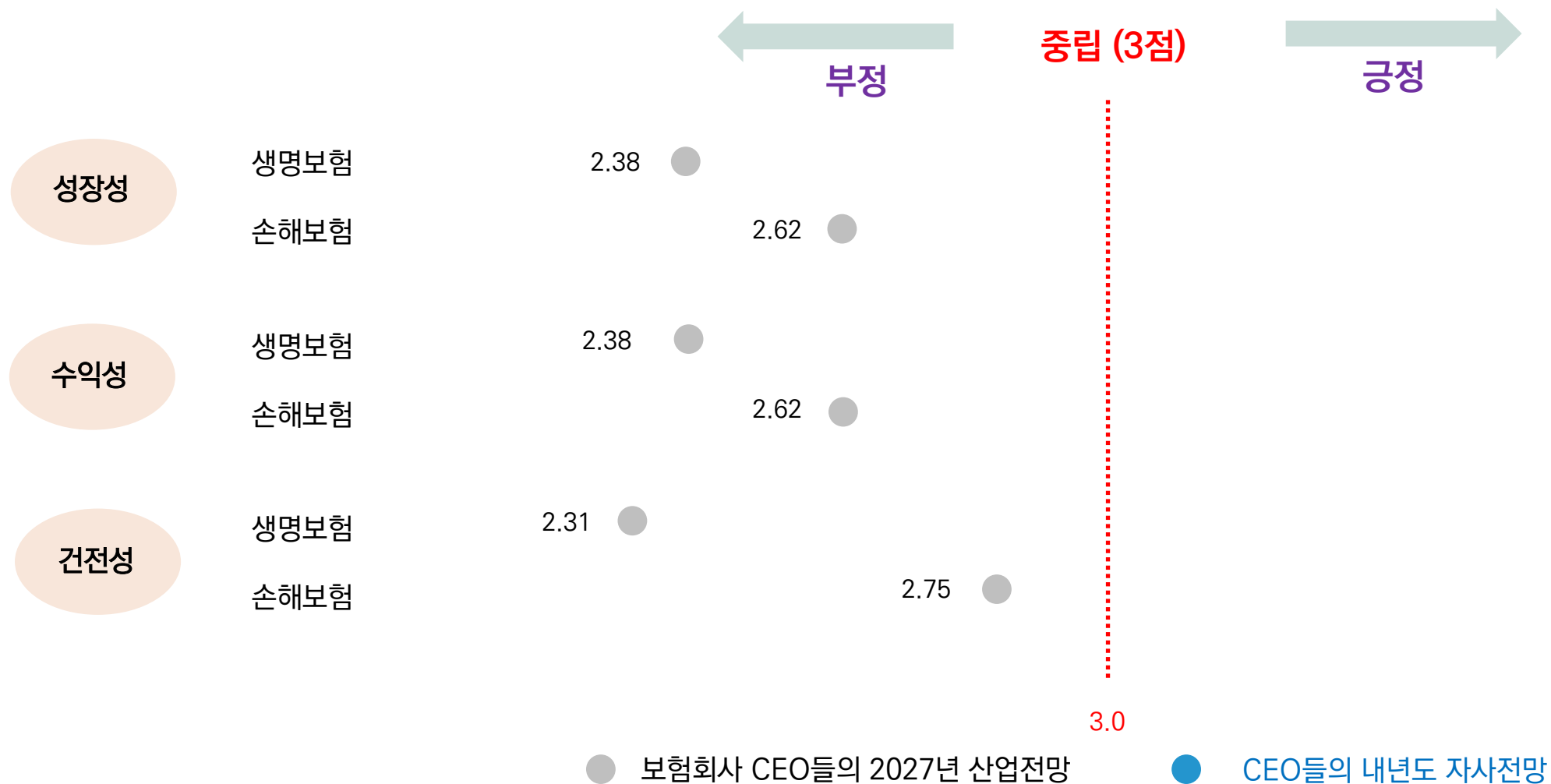


# 성장 제약요인

---

1. 영업구조
2. 수익구조
3. 자본구조
4. 효율성
5. 내부제약과 제도변화

## 국내 보험회사 CEO들의 2027년 전망



## 최근 보험산업의 성과

- 보험산업의 최종지표는 개선되었으나, 구성 항목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
  - 당기순이익 증가는 보험손익이 아니라 투자손익(평가이익)에서 발생함
  -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위험률차는 양 업권 음(-)으로 고착됨
  - 자본 증가분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이며, 이익잉여금 증가는 미미함



당기순이익 ↑

CSM ↑

K-ICS비율 ↑

투자손익

신계약CSM

가용자본(평가이익)

보험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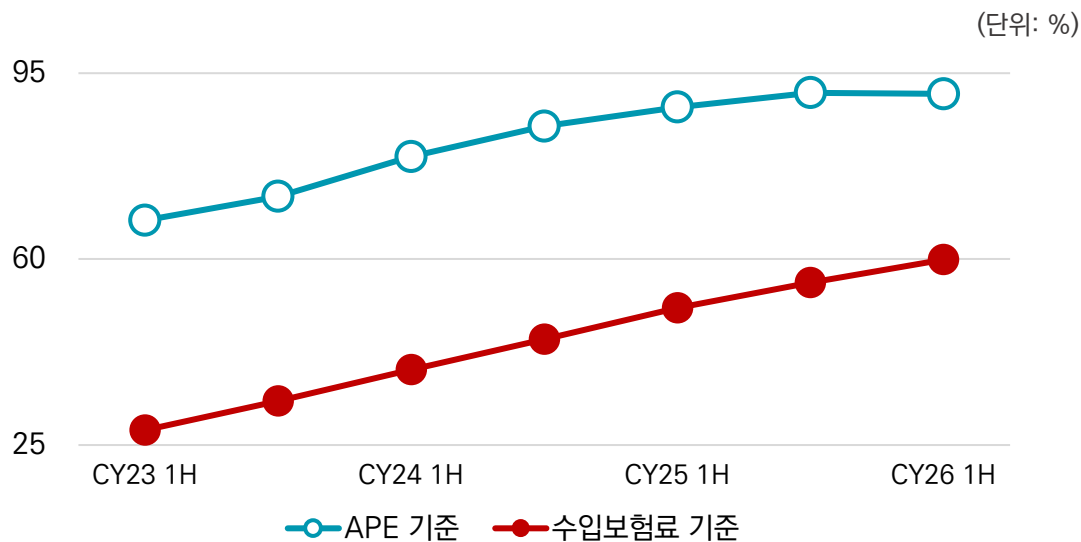
위험률차

이익잉여금

## 1. 영업구조: ① 상품 획일화 -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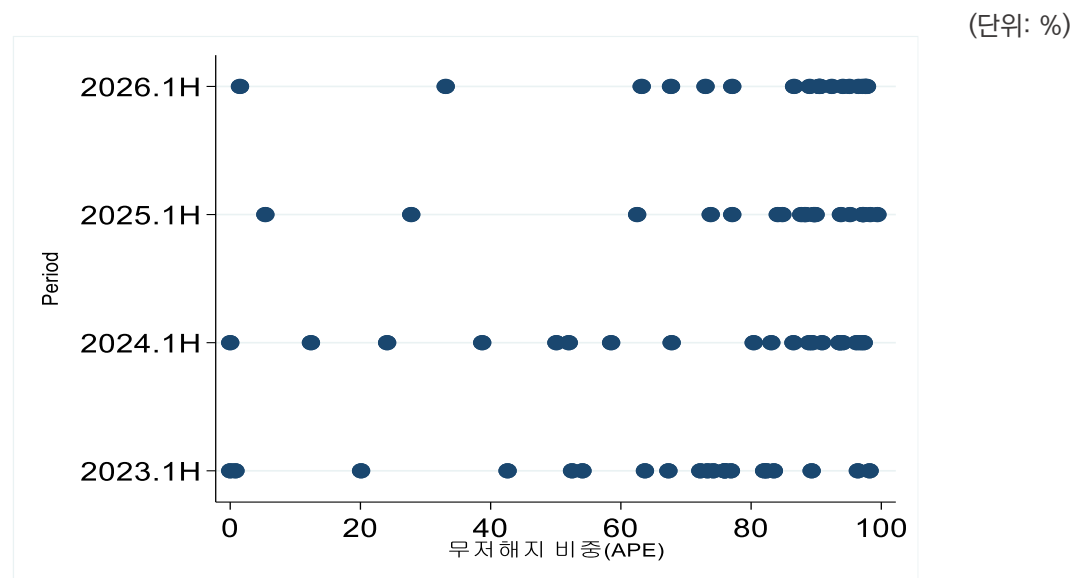
- 보험회사 매출이 CSM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집중됨
  - 생명보험 매출은 보장성보험, 그중에서도 무저해지환급형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함
  - 무저해지환급형은 해지 가정에 계약서비스마진(CSM)이 연동되어 가정 변동에 민감함

생명보험: 보장성상품 중 무·저해지환급형 비중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무·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비중의 회사별 분포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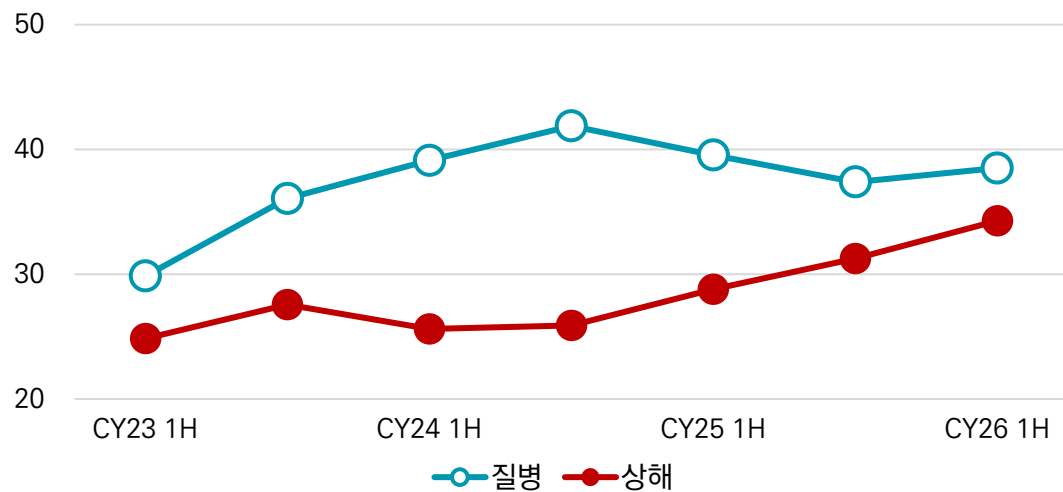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 1. 영업구조: ① 상품 획일화 - 손해보험

- 손해보험 매출은 장기보험으로 이동한 뒤 질병과 상해 두 담보로 분화됨
  -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축소되고 장기보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질병·상해보험 집중도는 높아짐
  - 질병보험에 쏠린 회사군과 상해보험에 쏠린 회사군 두 집단으로 나뉨
  - 질병·상해보험은 위험률차 악화가 집중된 담보임

보장성상품 중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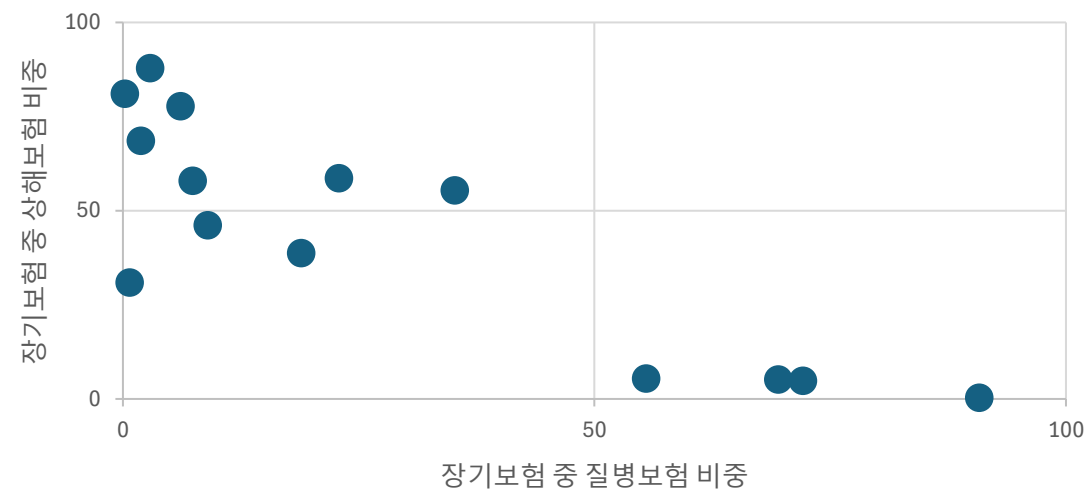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회사별 상품포트폴리오: 질병보험 vs. 상해보험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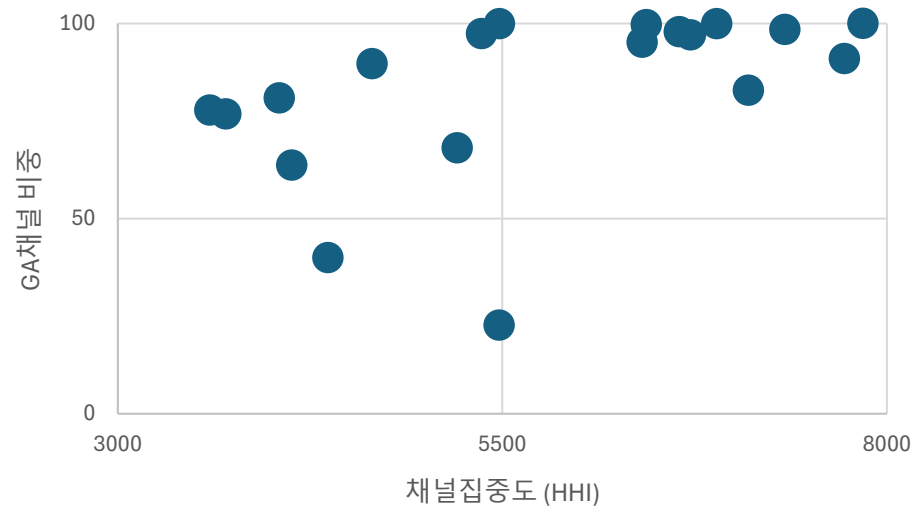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 1. 영업구조: ② 채널 집중

- 대면·GA채널 중심의 모집시장 구조 형성
  - CM채널 비중은 미미하여 디지털 전환이 지연됨
  - 보험 모집이 단일경로로 집중된 회사일수록 그 경로가 GA 채널로 나타남

채널 집중도 vs. GA채널 비중: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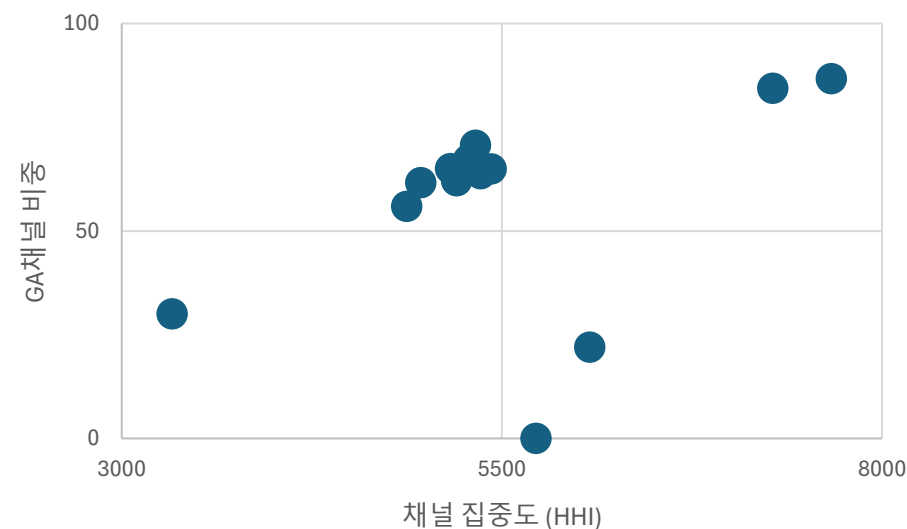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6년 상반기 APE 기준임

채널 집중도 vs. GA채널 비중: 손해보험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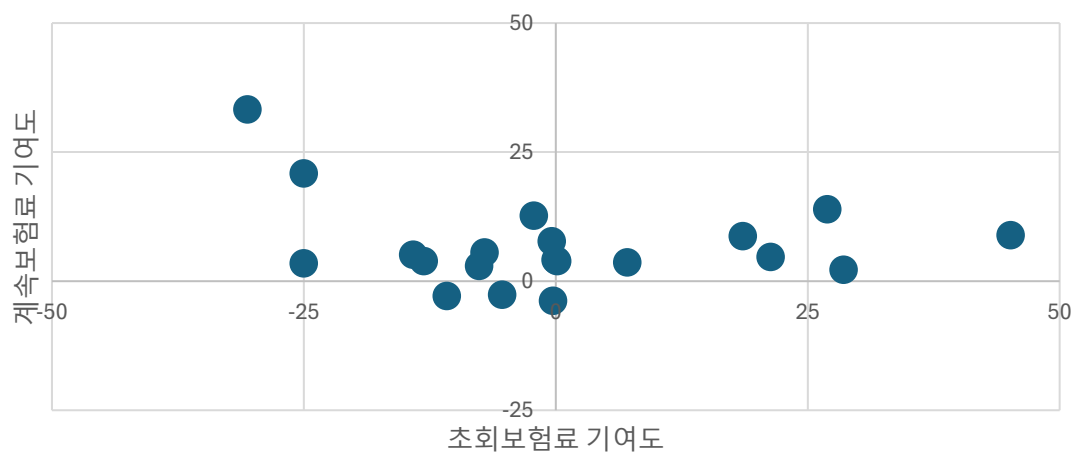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상반기 APE 기준임

## 1. 영업구조: ③ 성장원 변화

- 대다수 회사의 성장이 신규 계약(초회보험료)보다는 보유 계약(계속보험료)에서 발생
  - 분포가 좌상단에 집중되어 신계약 기여는 작고 계속보험료 기여가 큰 회사가 다수임
  - 생명보험 성장에서 초회보험료 기여도는 줄어들고 있음

생명보험: 초회보험료 기여도 vs. 계속보험료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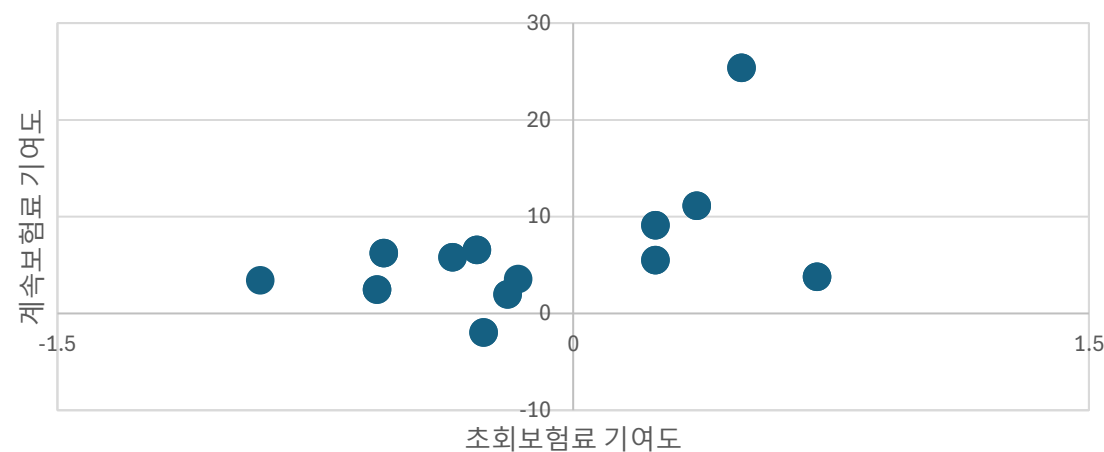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

장기손해보험: 초회보험료 기여도 vs. 계속보험료 기여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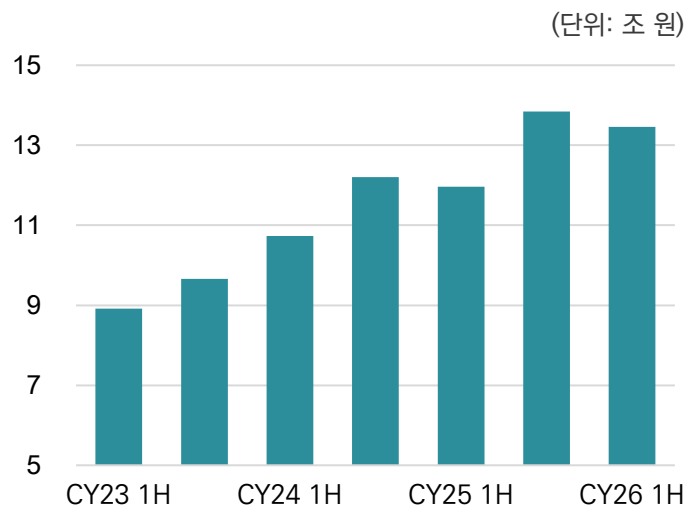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

## 1. 영업구조: ④ 비용성격 변화 -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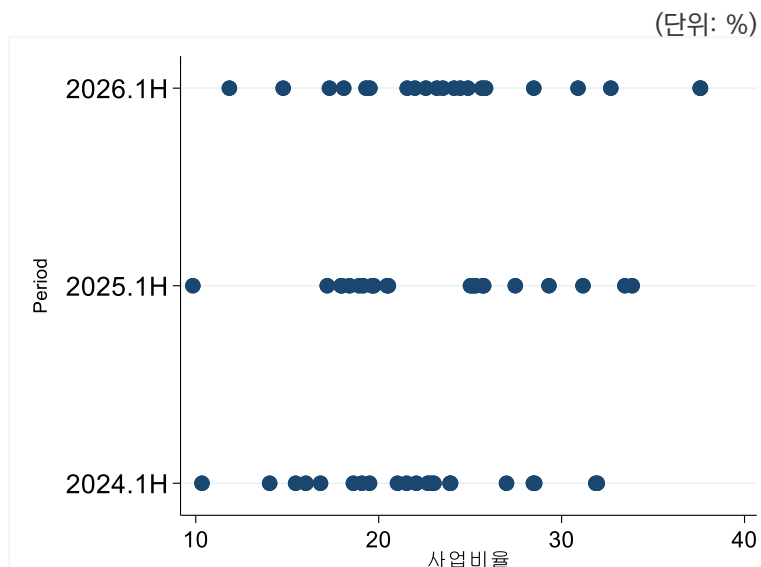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은 사업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과 분포가 함께 변화함
  - 전체 사업비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, 판매촉진비 증가율이 이를 크게 웃돌음
  - 비례수당 비중은 하락하여, 성과연동 보상에서 선지급·시책성 지출로 성격이 변화함
  - 사업비율은 중위값보다 상위 25% 구간에서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비용증가가 일부 회사군에 집중됨

### 생명보험 실제사업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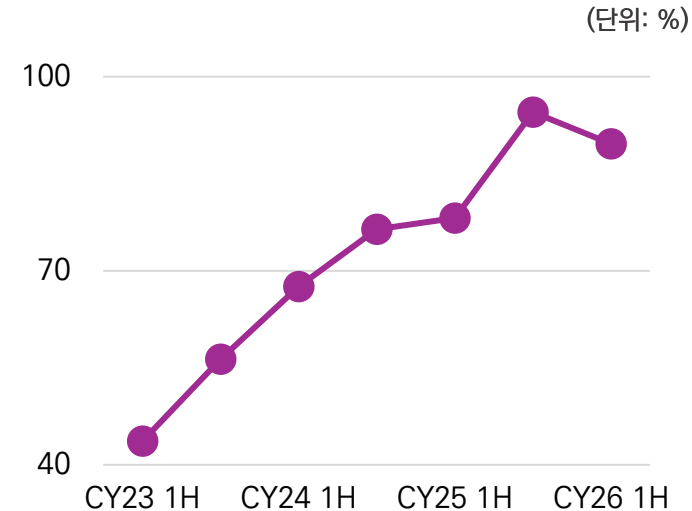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# 사업비율 회사별 분포 변화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# 사업비 항목의 변화: 판촉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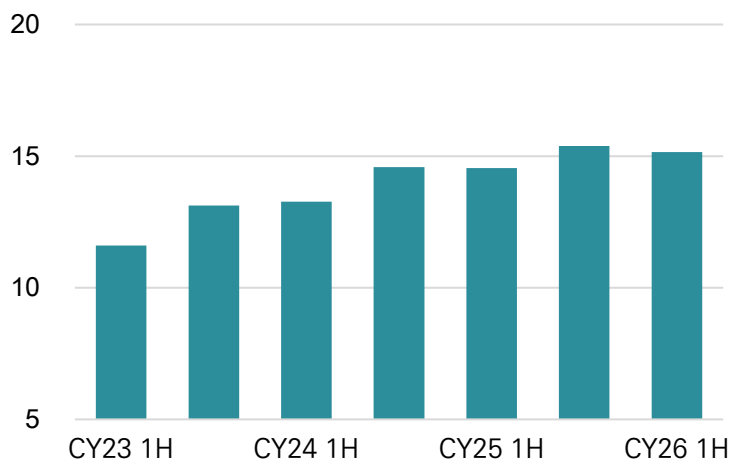
주: 비례수당 대비 판촉비 비중임

## 1. 영업구조: ④ 비용성격 변화 - 손해보험

- 손해보험산업은 사업비 총량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나, 분포의 분화는 뚜렷함
  - 사업비율 중위값보다 상위 25% 구간에서의 변화가 두 배 가량 빠르게 상승함
  - 판매촉진비 비중은 하위 25% 구간에서는 변화가 미미하나, 상위 25% 구간에서는 크게 상승함

손해보험 실제사업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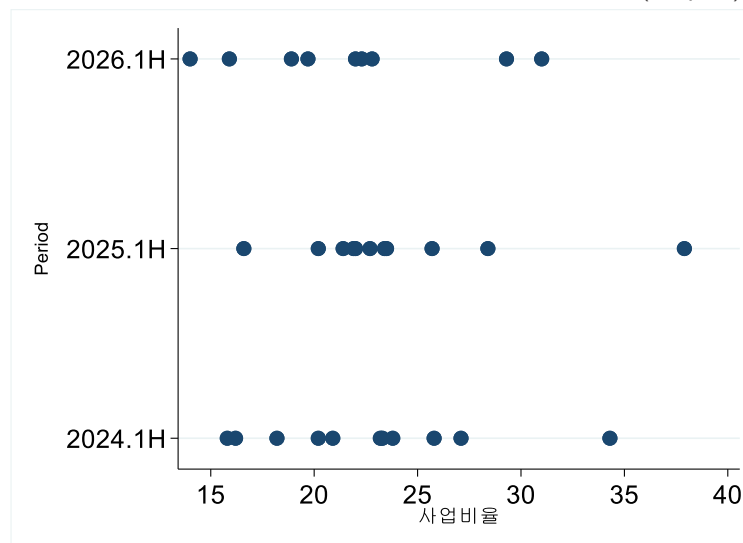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사업비율 회사별 분포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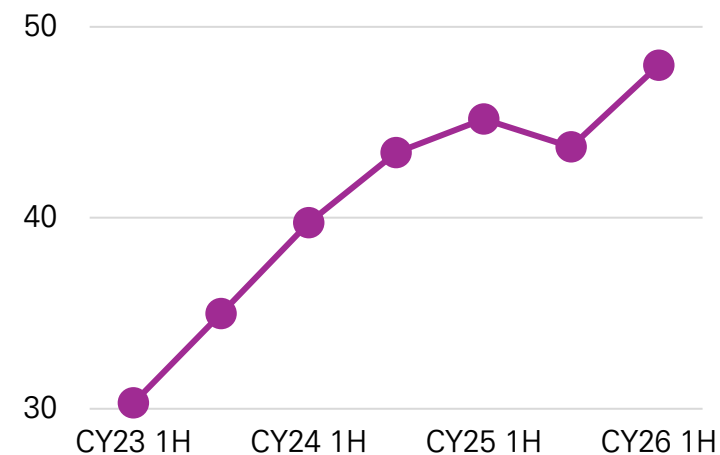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사업비 항목의 변화: 판촉비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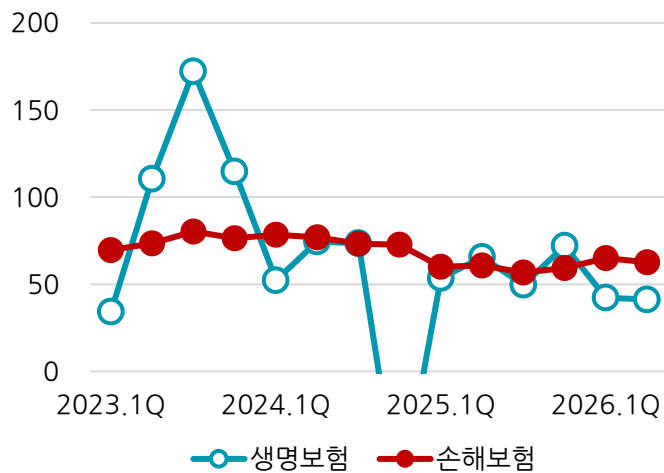
주: 비례수당 대비 판촉비 비중임

## 2. 수익구조: ① 본업경쟁력 약화

- 영업이익에서 보험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권별로 크게 대비됨
  - 손해보험이 61.5%, 생명보험이 40.1%이며, 추세와 변동폭은 업권별로 차이를 보임
  - 생명보험은 산점도가 특정 방향으로 모이지 않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상호 보완 기능이 미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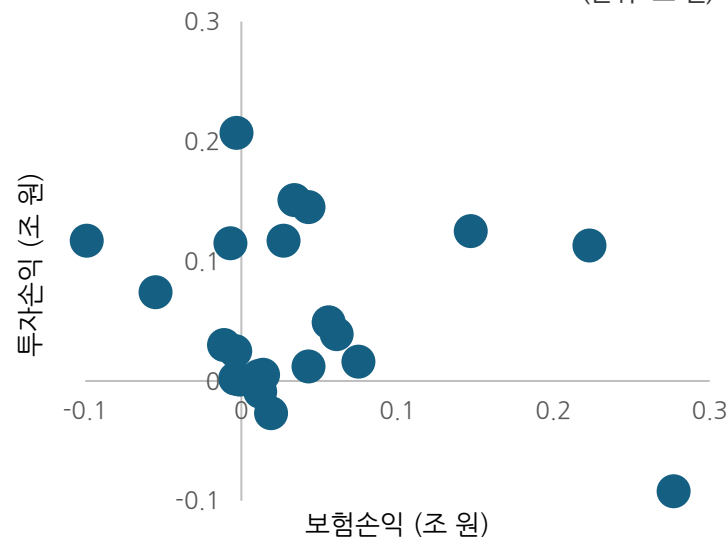
영업이익 대비 보험손익 변화 추이

(단위: %)



생명보험: 보험손익 vs. 투자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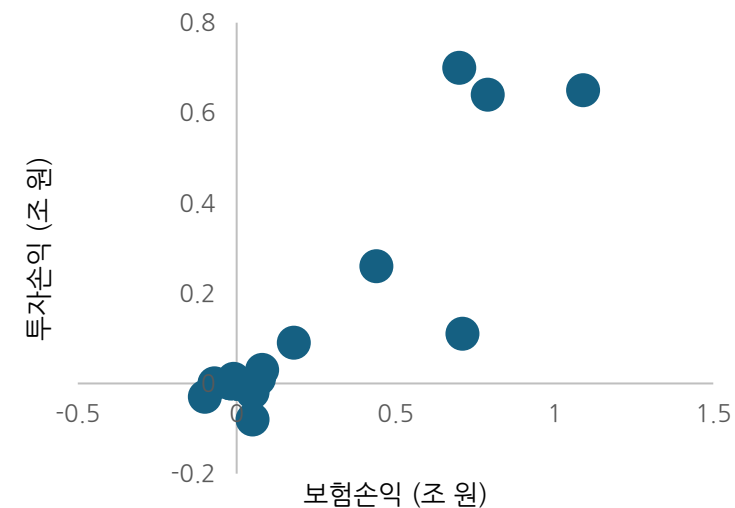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손해보험: 보험손익 vs. 투자손익

(단위: 조 원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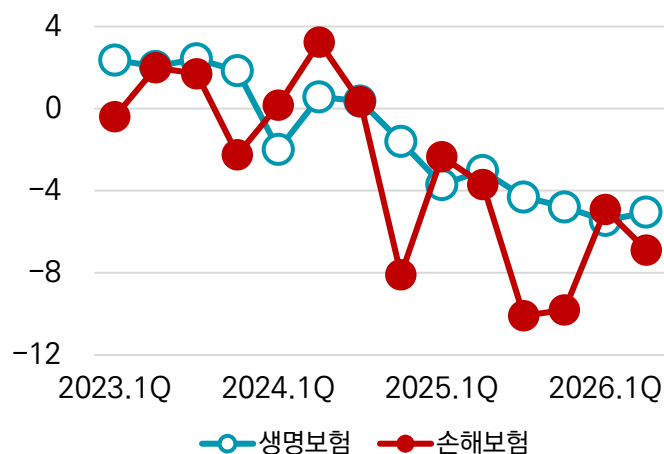
## 2. 수익구조: ② 가정의 이탈

### · 보험손익 감소의 원인은 가정에 놓여 있음

- 양 업권 모두 위험률차는 악화 추세이며, 2024년 4분기 이후 음(-)의 위험률차율이 고착됨
- 생명보험은 분포가 전반적으로 하향 이동하여 산업 공통의 악화 양상을 보임
- 손해보험은 분포가 하향 이동하는 동시에 좌우로 확대되어 회사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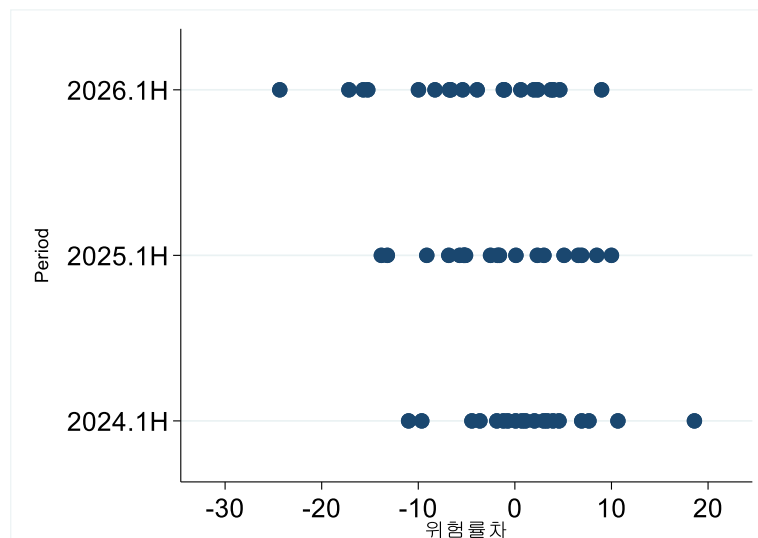
위험률차 추이

(단위: %)



생명보험 위험률차율 분포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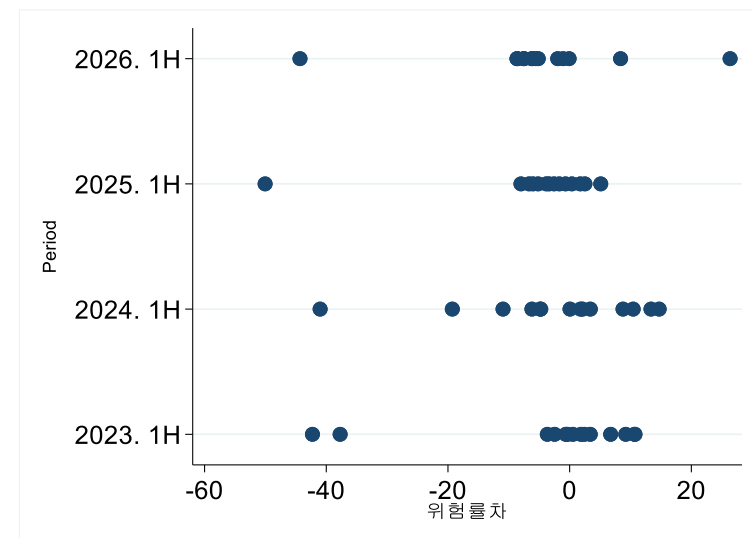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손해보험 위험률차율 분포 변화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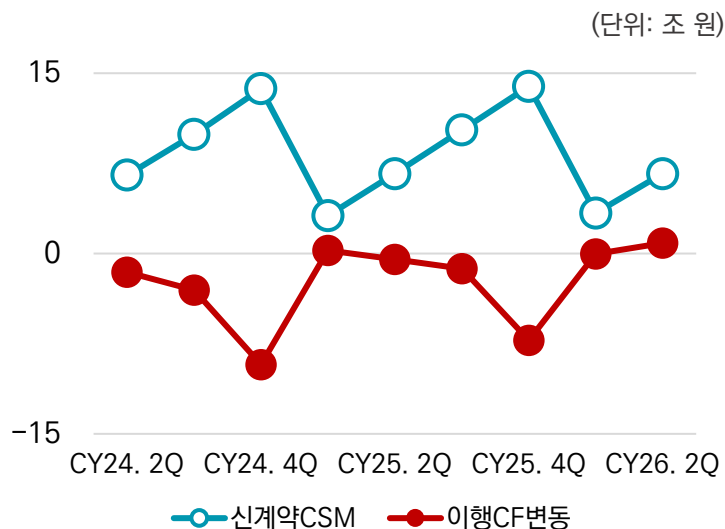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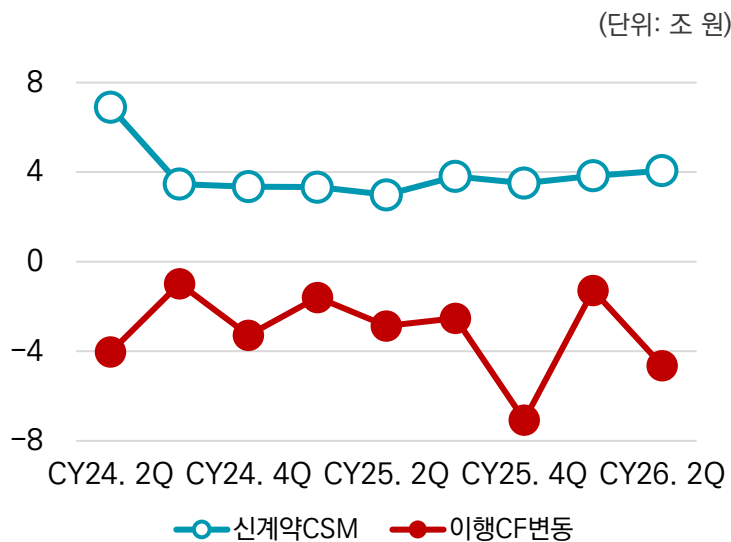
## 2. 수익구조: ③ CSM 축적의 한계

- CSM 잔액은 증가하나 축적의 질은 악화됨
  - 성장의 딜레마: 신규 판매가 많은 분기일수록 가정·경험조정에 따른 CSM 감소폭이 확대됨
  - 성장과 자본의 상충: CSM 증가는 보험위험액 증가를 거쳐 요구자본 부담으로 이어짐
  - 다만 상품별 이행현금흐름 추세는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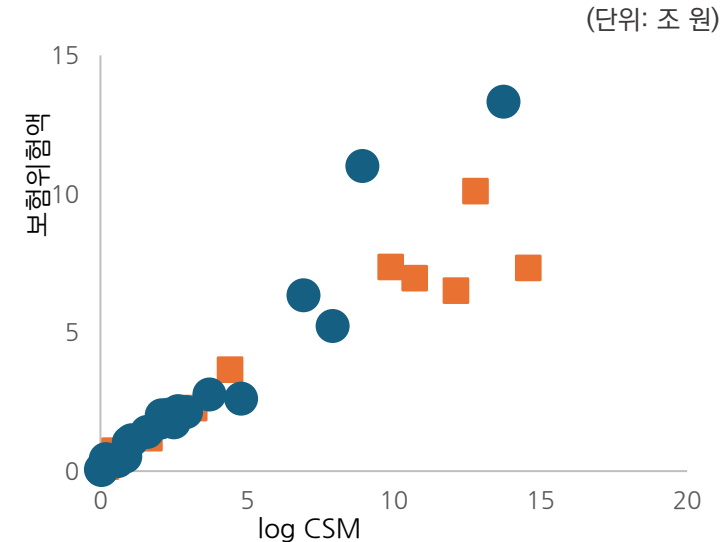
신계약CSM과 이행CF: 생명보험



신계약CSM 과 이행CF: 손해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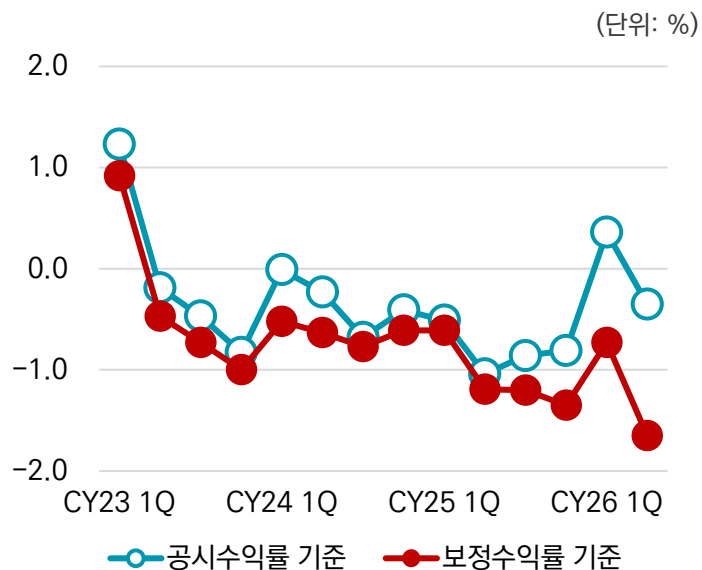
CSM과 보험 위험액



## 2. 수익구조: ④ 자산 대응력의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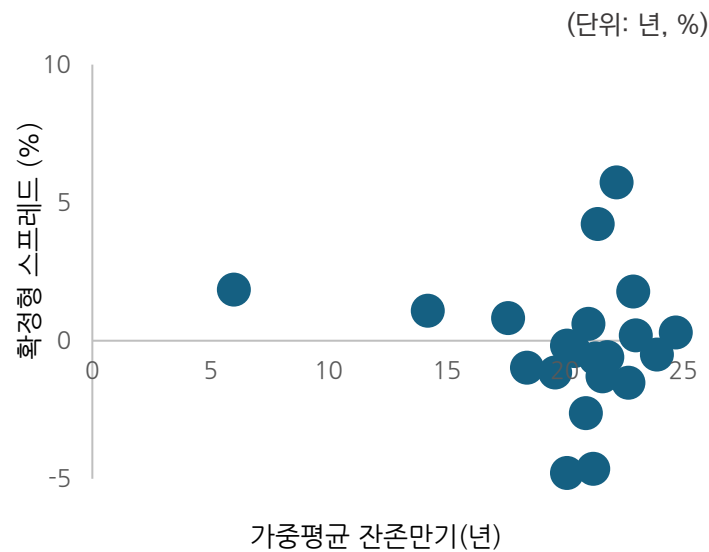
- 보험손익 부진 시 투자손익이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  - 생명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기준 흑자이나 고금리 계약군은 적자이며 해당 계약의 66%가 잔존만기 20년 이상임
  - 손해보험은 대출채권이 운용자산의 20%대 이며, 그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대출임
  - 중소기업 대출비중의 회사별 편차가 크고 상위회사는 운용자산의 1/3을 상회함

생명보험: 스프레드 (수익률-적립이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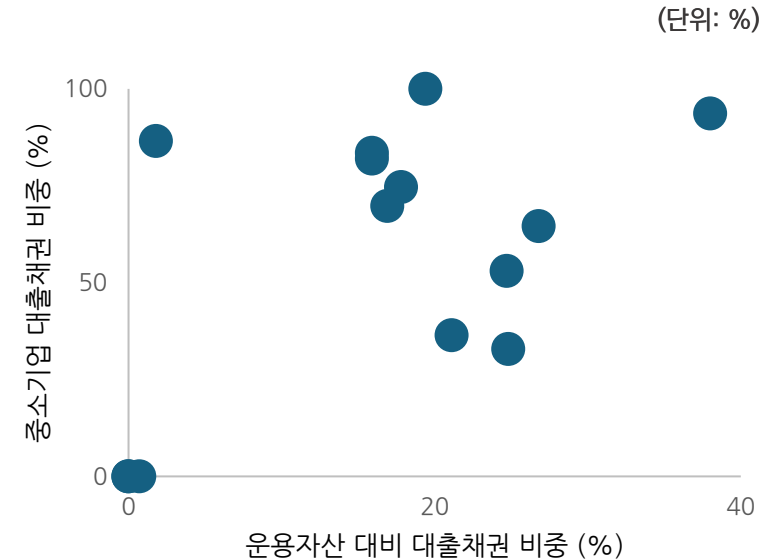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생보 역마진: 잔존만기·확정형스프레드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손해보험: 중소기업 대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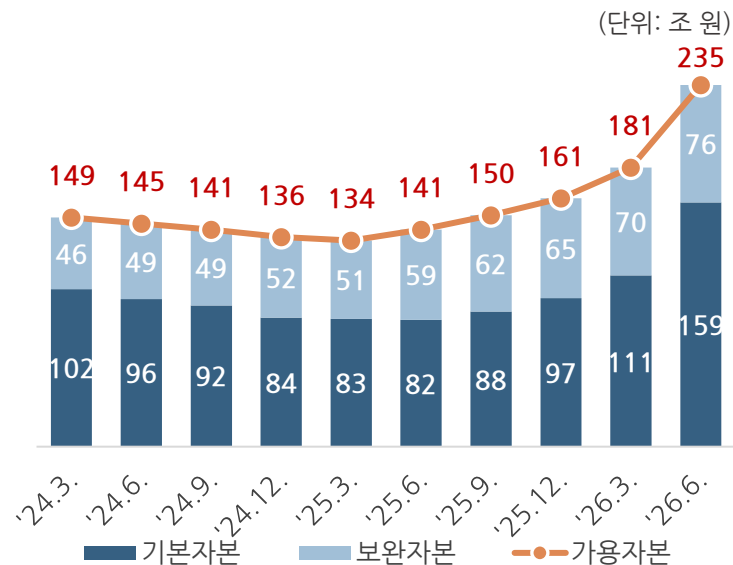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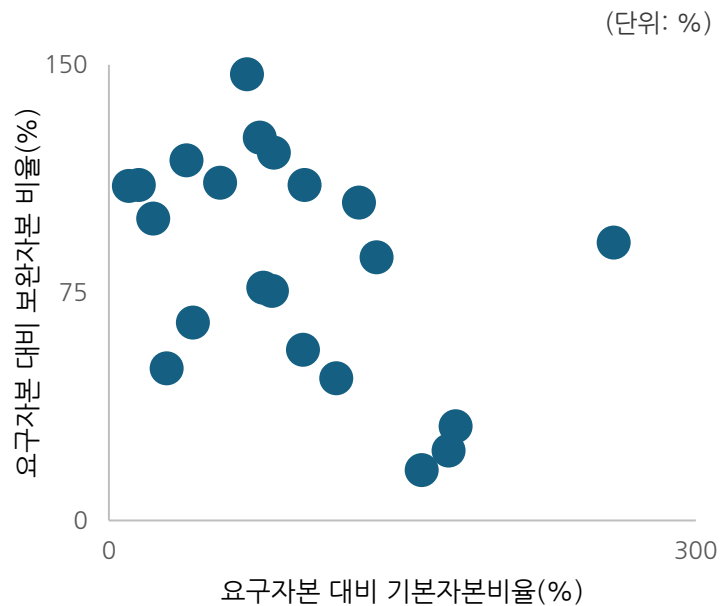
### 3. 자본구조: ① 자본의 양과 질 - 생명보험

- 생명보험산업의 가용자본은 증가하였으나, 증가분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임
  - 가용자본은 235조 원으로 전년대비 94조 원 증가하였으며,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비중은 7:3 수준임
  - 기본자본 비중 상승은 평가이익이 기본자본에 산입된 결과이며, 영업을 통한 자본 축적은 제한적임
  - 회사별 분포에서 기본자본비율의 편차가 확대되어 자본 구성의 회사 간 차이가 커짐

생명보험 가용자본 계층별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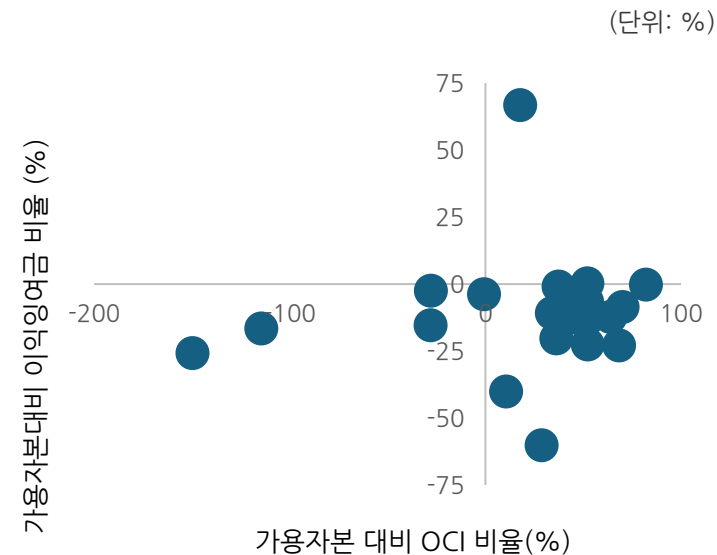


기본자본비율 vs. 보완자본비율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이익잉여금 비중 vs. OCI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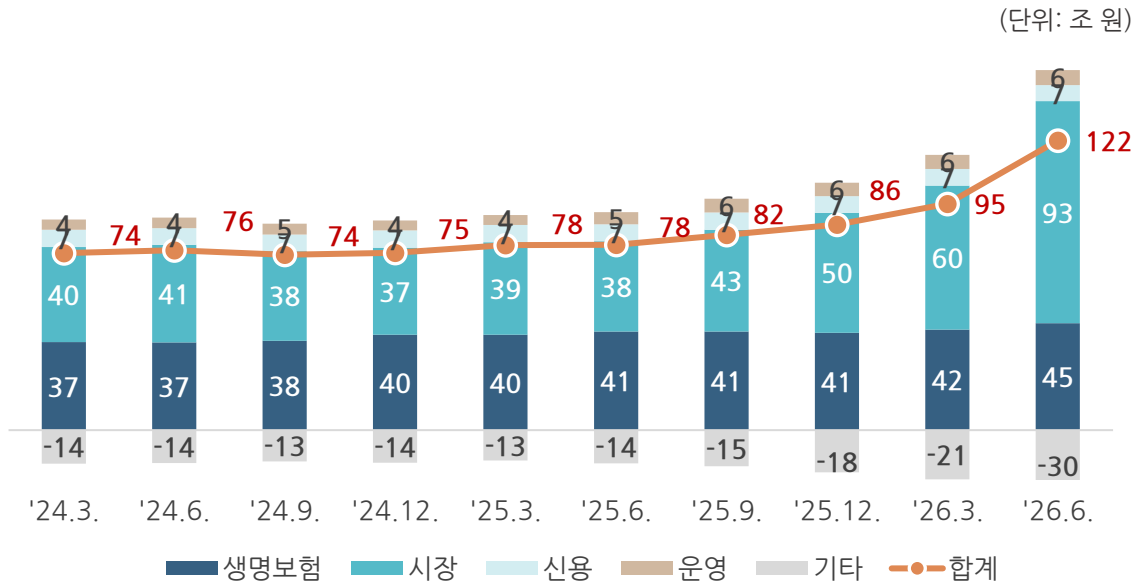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# 3. 자본구조: ② 위험의 이동 - 생명보험

· 요구자본 증가는 보험위험이 아닌 시장위험이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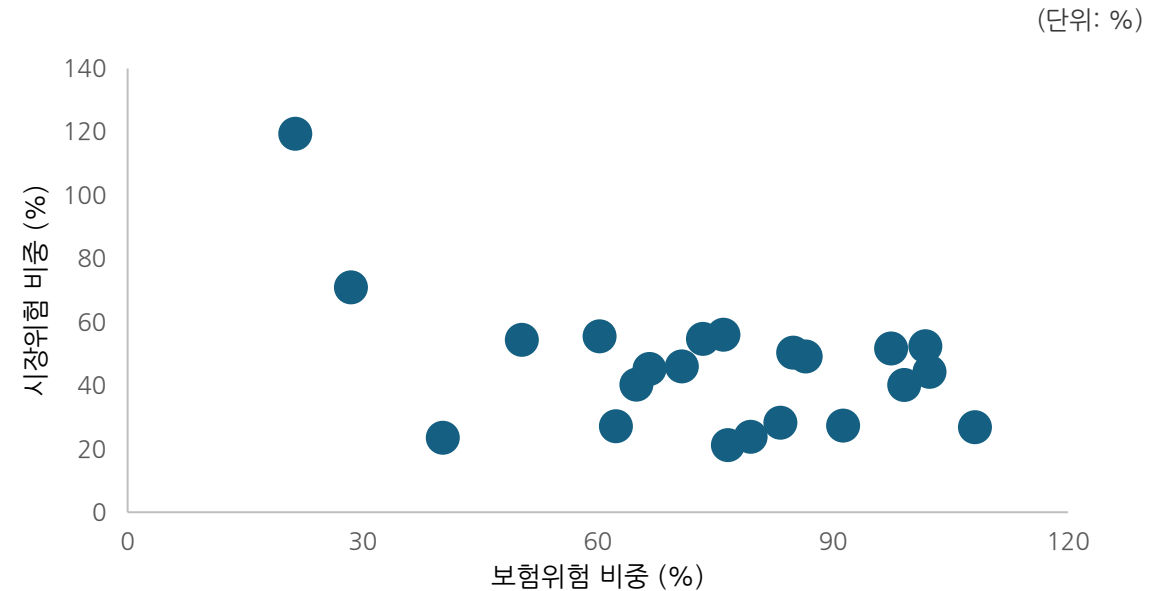
- 요구자본은 전년 대비 44조 원 증가하였으며, 시장위험액이 전체의 62%를 차지함
-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위험구성 자체가 이동하고 있음
- 주가 상승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동시에 증가시켜 K-ICS 순효과는 상쇄되고 민감도만 상승함

생명보험 요구자본 세부구성



주: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, 분산효과 반영, 기타는 법인세조정액과 기타요구자본의 합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생명보험 :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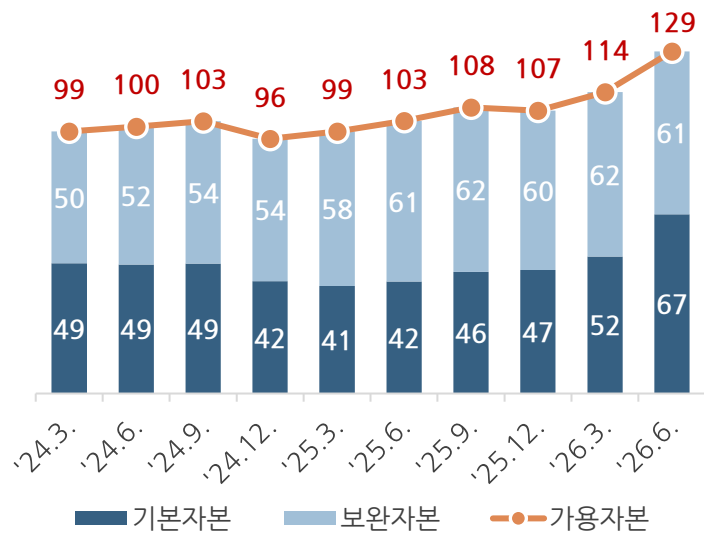
### 3. 자본구조: ③ 자본의 양과 질 - 손해보험

#### · 손해보험 가용자본도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원천 역시 평가이익임

- 가용자본은 1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하였으며, 전년 대비 기본자본 비중이 11%p 상승함
- 회사별 분포에서 이익잉여금 비중이 낮고 기타포괄손익(OCI)이 음수인 회사들의 경우 자본의 질이 가장 취약함

손해보험 가용자본 계층별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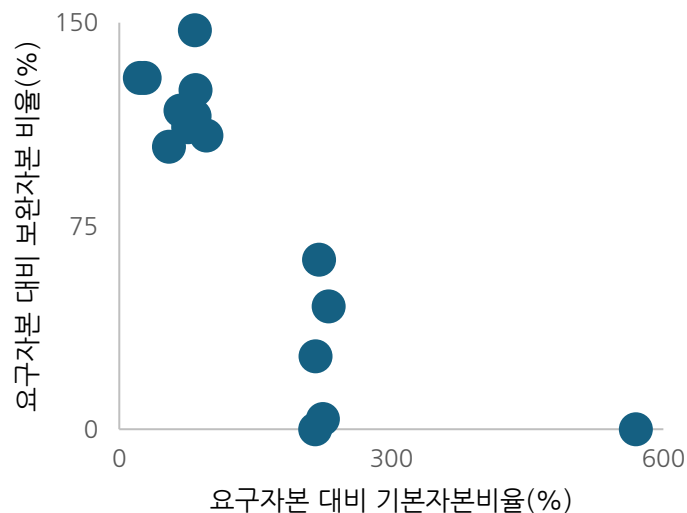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요구자본 대비 기본·보완자본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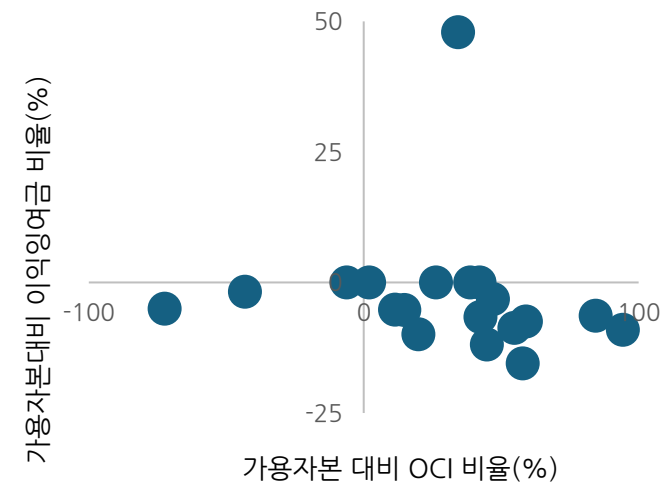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이익잉여금 비중 vs. OCI 비중

(단위: %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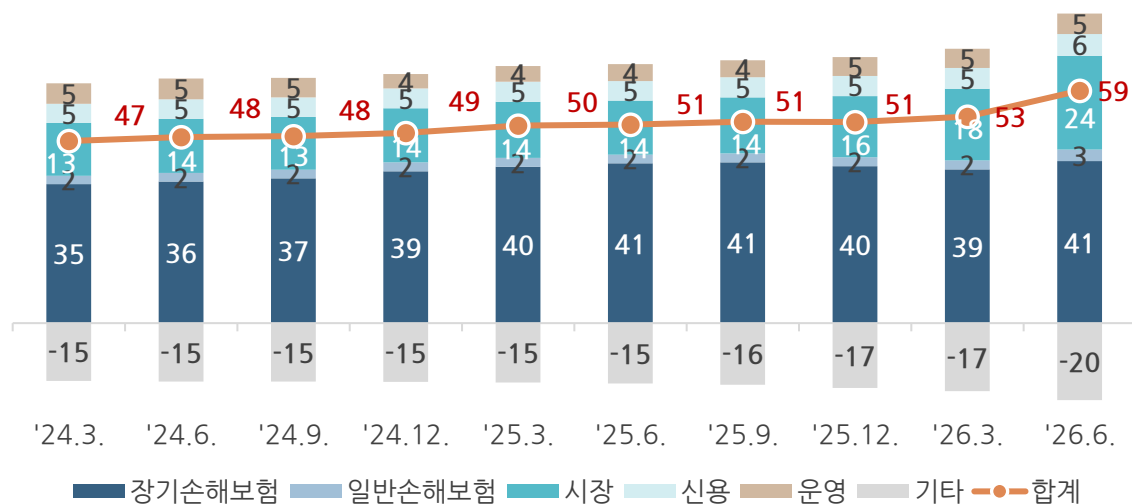
### 3. 자본구조: ④ 위험의 이동 - 손해보험

#### · 손해보험 요구자본 증가의 경우 시장위험이 주도함

- 요구자본 구성은 장기손해보험위험 52%, 시장위험 30%, 신용·운영위험 각 7%, 일반손해보험위험 4%임
- 주식위험액 확대로 시장위험액이 1년 전보다 10조 원 증가하며 요구자본 증가를 주도함
-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이 상승하여 위험 구성의 이동이 양 업권에 공통으로 나타남

손해보험 요구자본 세부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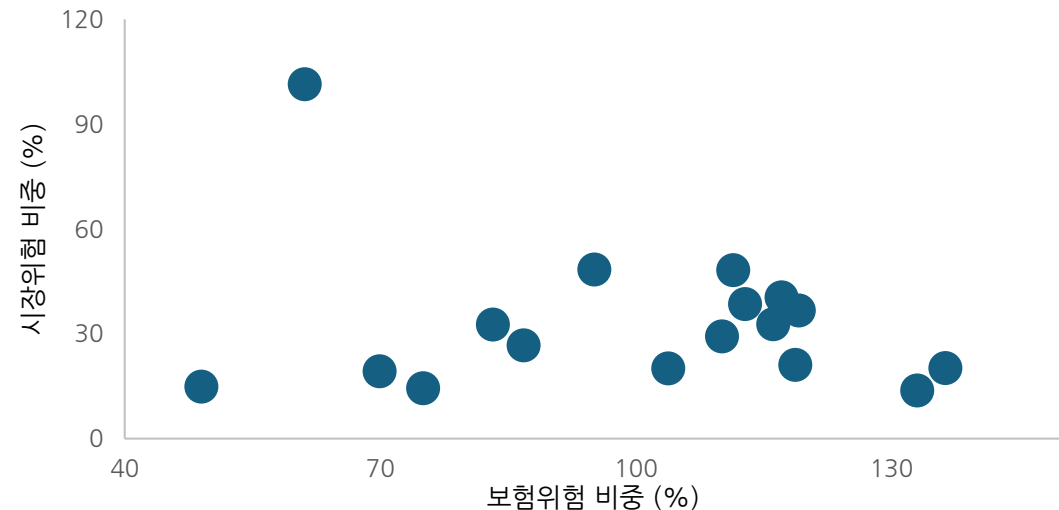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증·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,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, 분산효과 반영, 기타는 법인세조정액과 기타요구자본의 합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손해보험 :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

(단위: 천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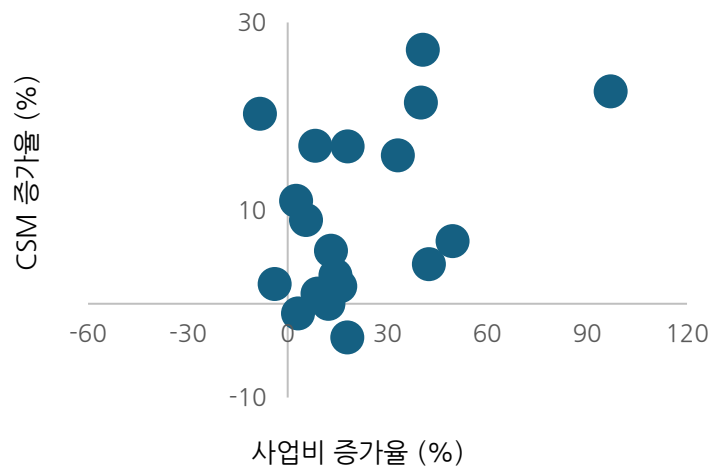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,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 대상, 보험위험액은 분산효과 반영  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

## 4. 효율성: 투입과 산출 연계 약화 - 생명보험

- 투입 증가가 산출로 연결되지 않음
  - 비용 증가(모집비)가 이익창출(신계약 CSM)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
  - 모집비가 유사한 회사 간에도 신계약 CSM 격차가 크게 발생함
  - 자산회전(운용자산 대비 보험료)은 늘어나고 있으나 질적 수익(운용자산 대비 투자이익)은 감소

판매비용 증가와 가치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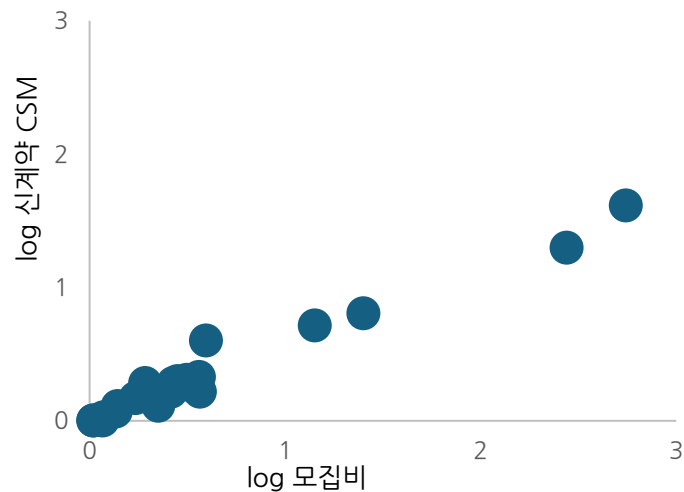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모집비 vs. 신계약 CS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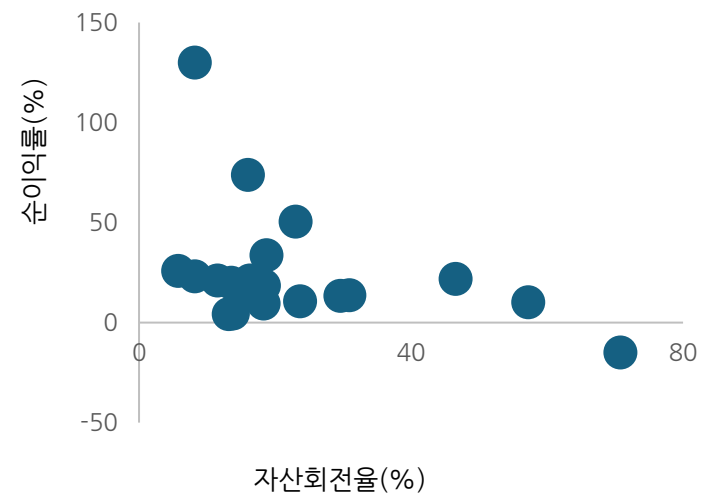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자산운용 효율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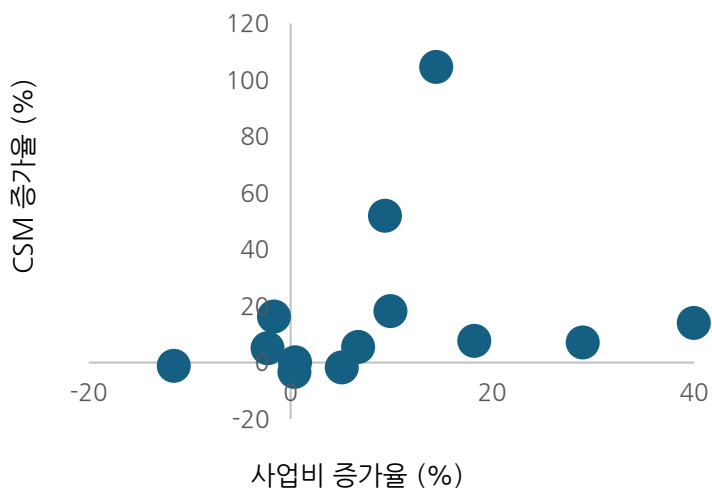
주: 2026년 상반기 기준임  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 4. 효율성: 투입과 산출 연계 약화 - 손해보험

- 투입 증가가 산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양 업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남
  - 사업비 증가와 이익창출(CSM 증가)과의 연계성이 낮음
  - 모집원가(신계약CSM 대비 모집비) 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반면 자본생산성(요구자본 대비 순이익)은 하락함
  - 자산회전(운용자산 대비 보험료) 상승과 질적 수익(이익률) 개선이 동반되는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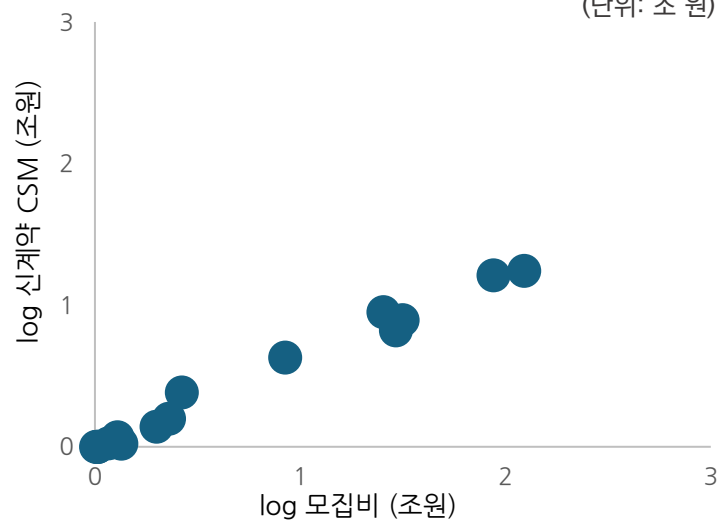
판매비용 증가와 가치 창출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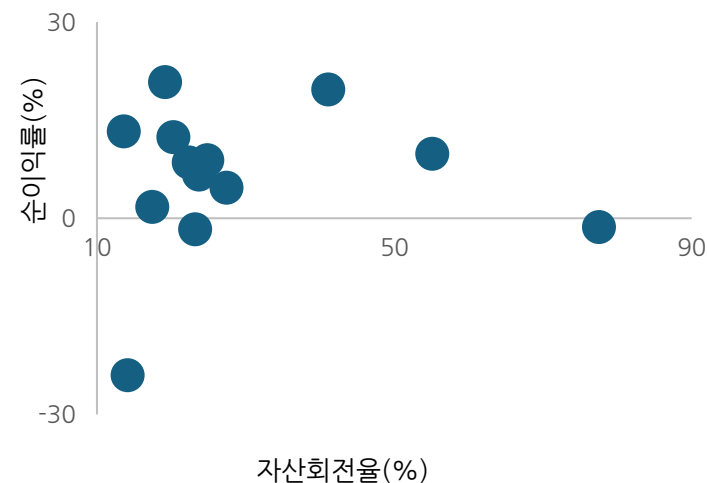
모집비 vs. 신계약 CSM

(단위: 조 원)



자산운용 효율: 회전율 vs. 이익률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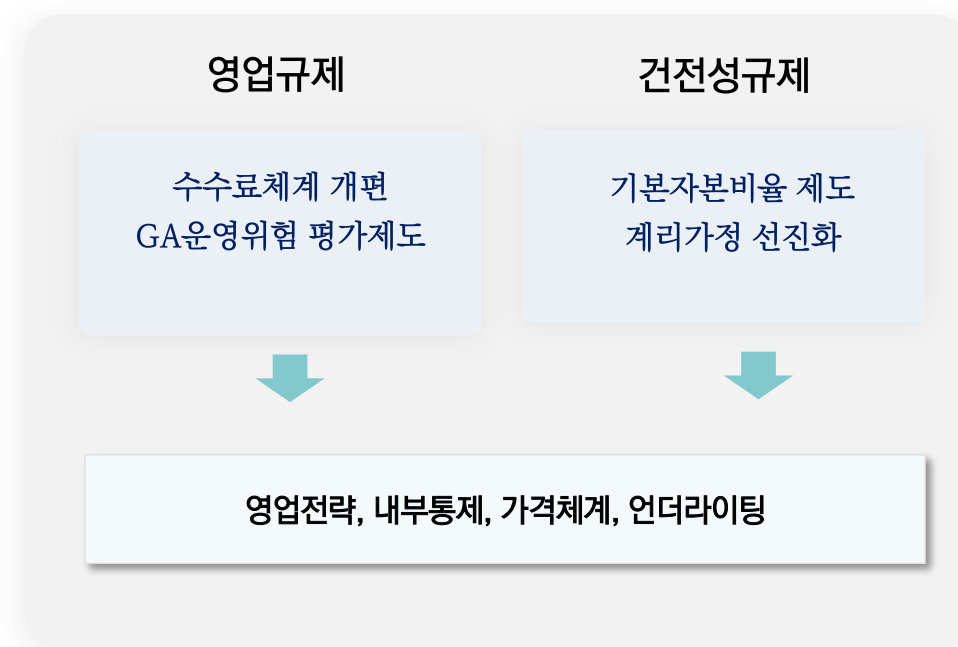
## 5. 내부 제약과 제도 변화

- 보험산업의 성장·비용·이익·자본의 질이 저하되는 가운데, 2027년 시행 예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성장 여력을 제한할 수 있음
  - 상품·채널 쏠림이 비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, 가정이탈과 평가이익 의존으로 이익·자본의 질이 저하됨
  - 영업규제는 모집비용 조정을, 건전성 규제는 자본확충을 요구함으로써 신계약 유인과 영업여력에 영향을 미침

### 내부 구조의 취약성



### 제도 변화



# 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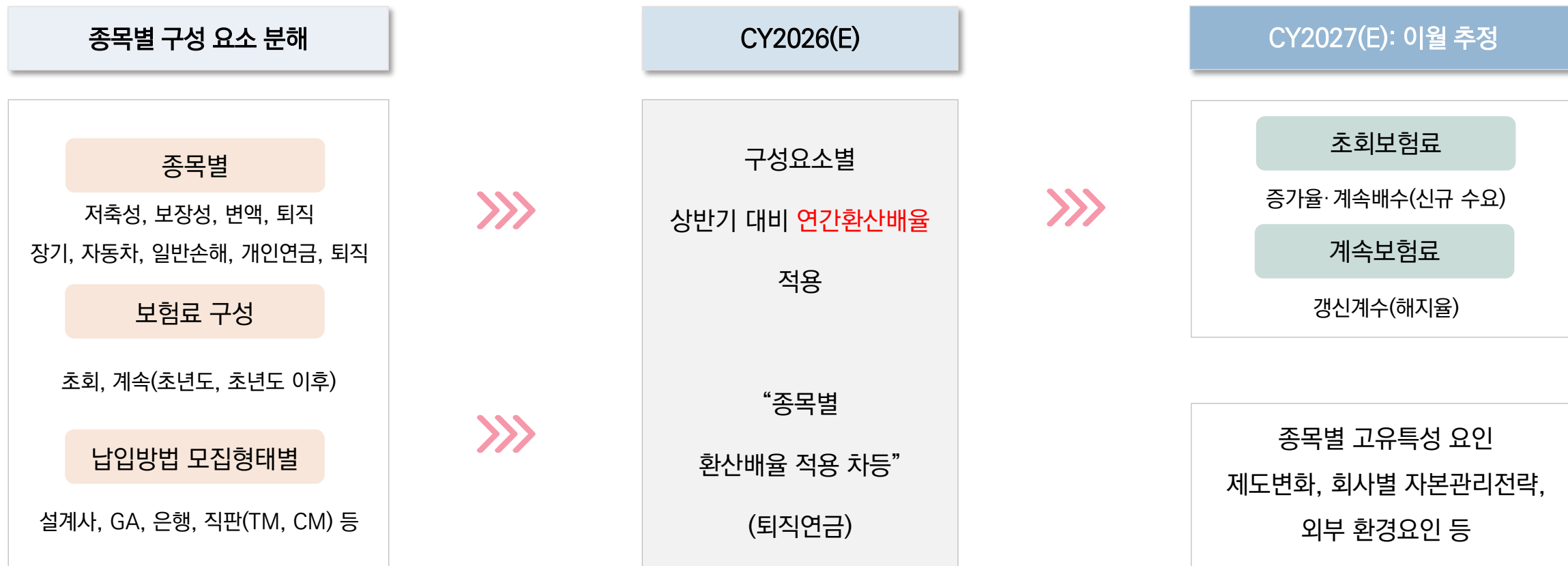
## 2027년 보험산업 전망

---

1. 개요
2. 성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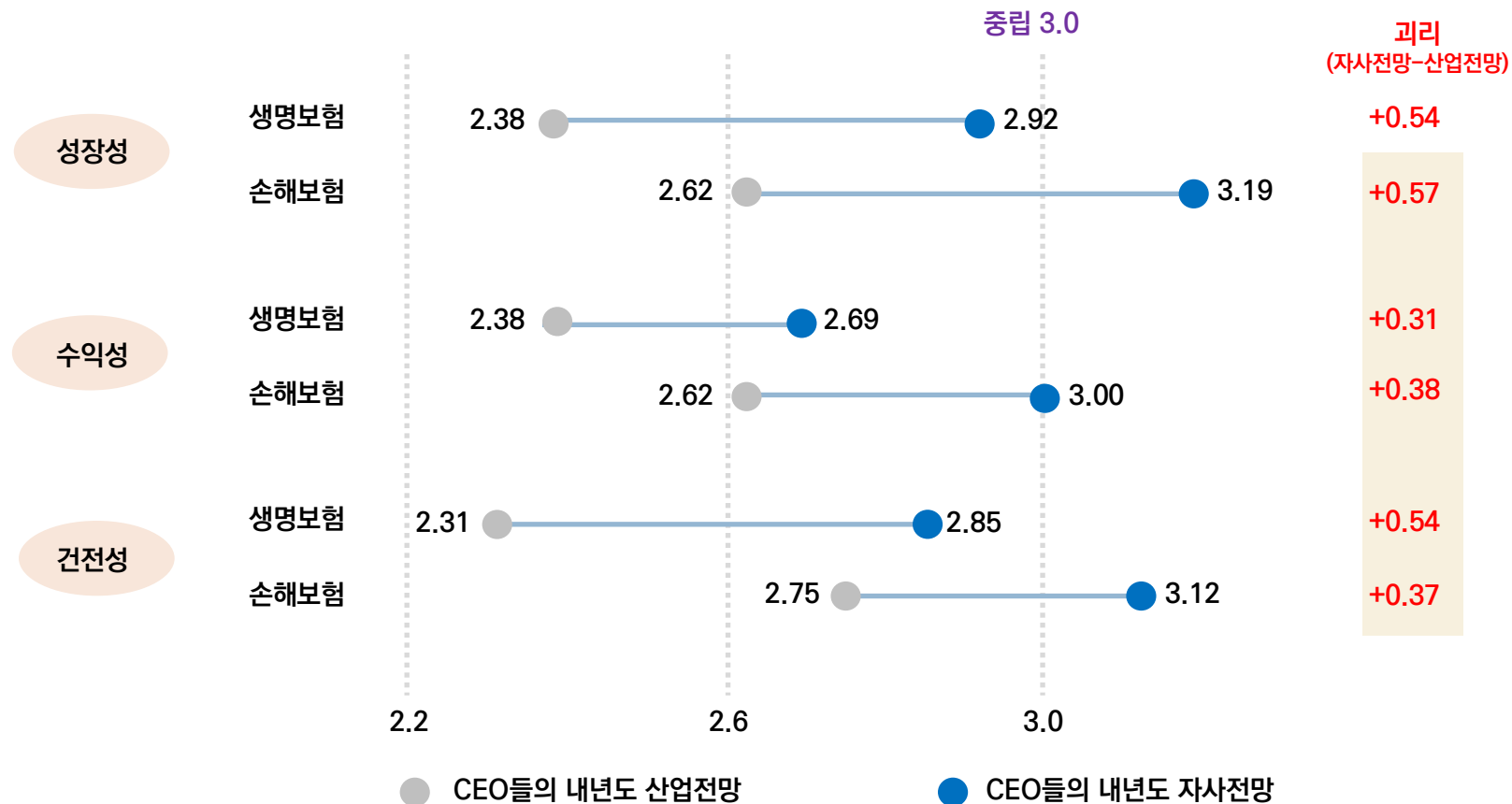
# 1. 개요: ① 전망 체계

- 경영환경 전망, 시계열 자료(수입보험료 구성 분해),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전망함
  - 경영환경의 불확실성, 제도변경 이후 시계열 정보의 한계 등으로 전망값에 대한 보수적 해석이 요구됨



# 1. 개요: ② CEO의 2027년 전망

- 성장성, 수익성, 건전성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을 하회하는 반면 자사 전망은 이를 상회함



주: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산업전망과 자사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임(N=29)

## 1. 개요: ③ 주요 결과

-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3.5%로, 2026년 성장률의 절반 이하로 둔화 예상
  -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생명보험 4.0%, 손해보험 5.0%임

### 생명보험

퇴직연금 포함: 2.3% (142 조 원)

퇴직연금 제외: 4.0% (112 조 원)

### 손해보험

퇴직연금 포함: 4.5% (157조 원)

퇴직연금 제외: 5.0% (122조 원)

## 2. 성장성 ① 보험산업: 초회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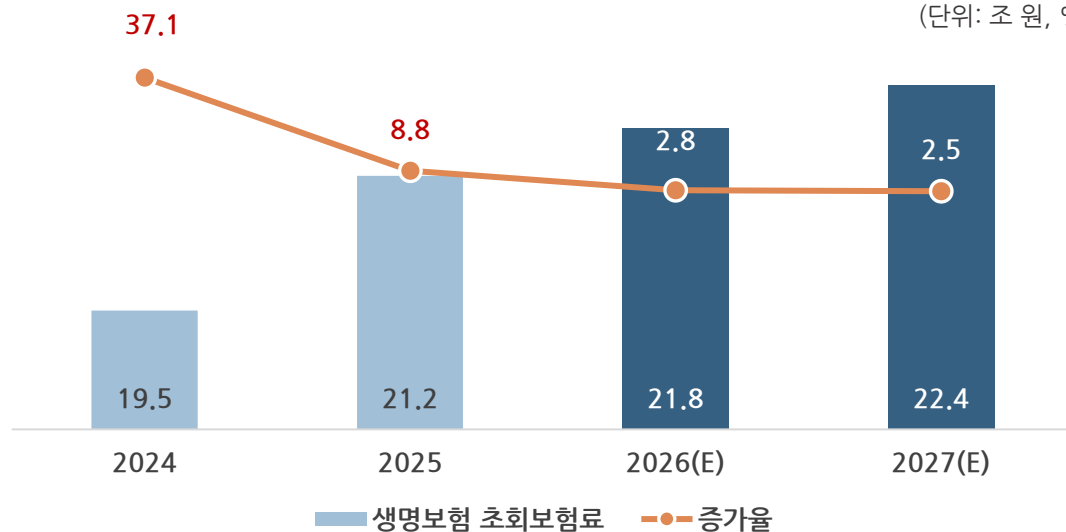
· 2027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\*는 전년 대비 2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-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일시납 연금 증가세 둔화로 2.5% 증가가 예상됨
-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인보험 중심으로 5.4% 증가가 예상됨

\* 생명보험은 퇴직연금, 손해보험은 장기 저축성보험 제외

###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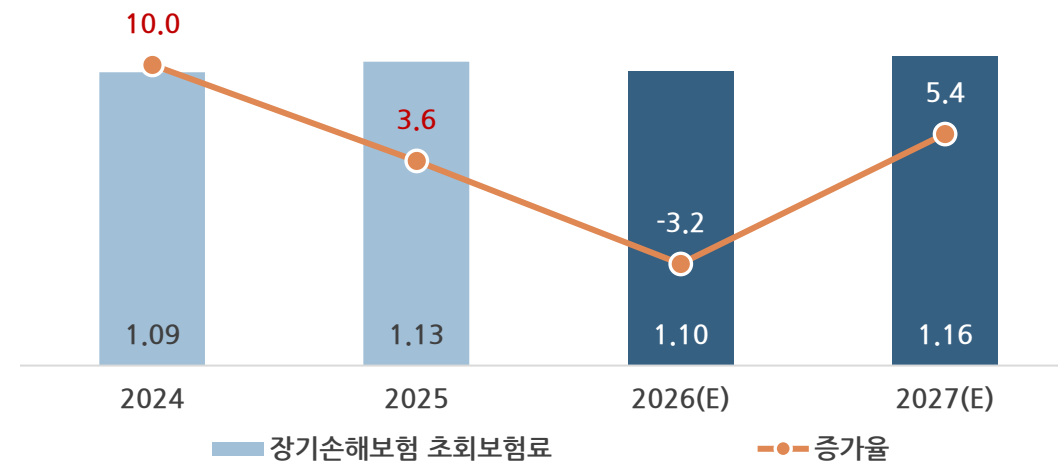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

주: 퇴직연금 제외

###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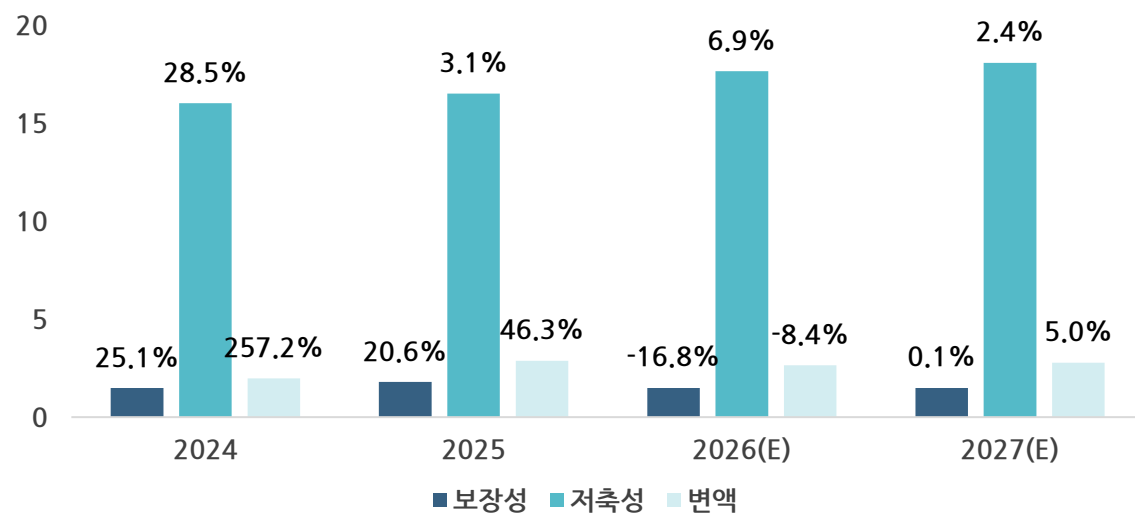
주: 저축성보험 제외

## 2. 성장성 ① 보험산업: 종목별 초회보험료

- 생명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전년 급증의 기저효과로 2026년 16.8% 감소 후 2027년 0.1% 증가할 전망임
  -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연금 증가세 둔화로 2.4% 증가, 변액보험은 주가 회복으로 5.0% 증가할 전망임
-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인보험이 5.9%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
  - 장기물보험은 2026년 급감(-34.4%) 후 소폭 회복(+1.9%)이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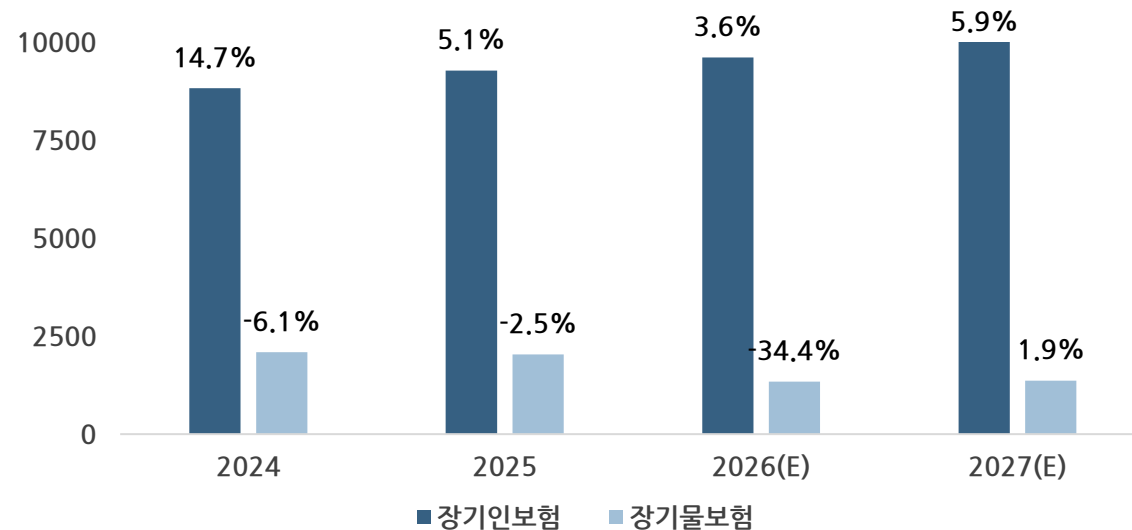
### 생명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

###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(단위: 천억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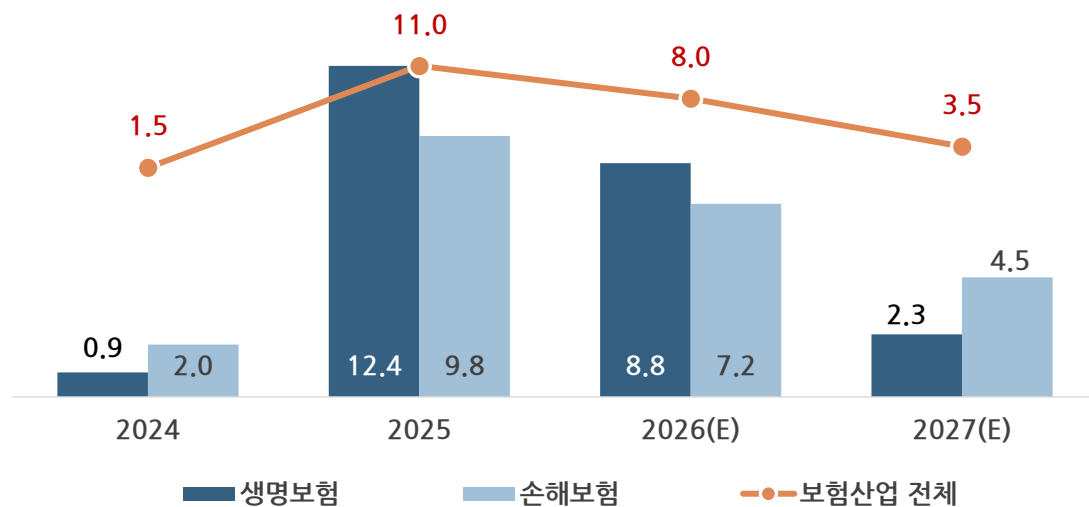


### 3. 성장성 ① 보험산업: 수입(원수)보험료

-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3.5%로 2026년(8.0%)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
  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.3%,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.5%로 예상됨
-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규모는 2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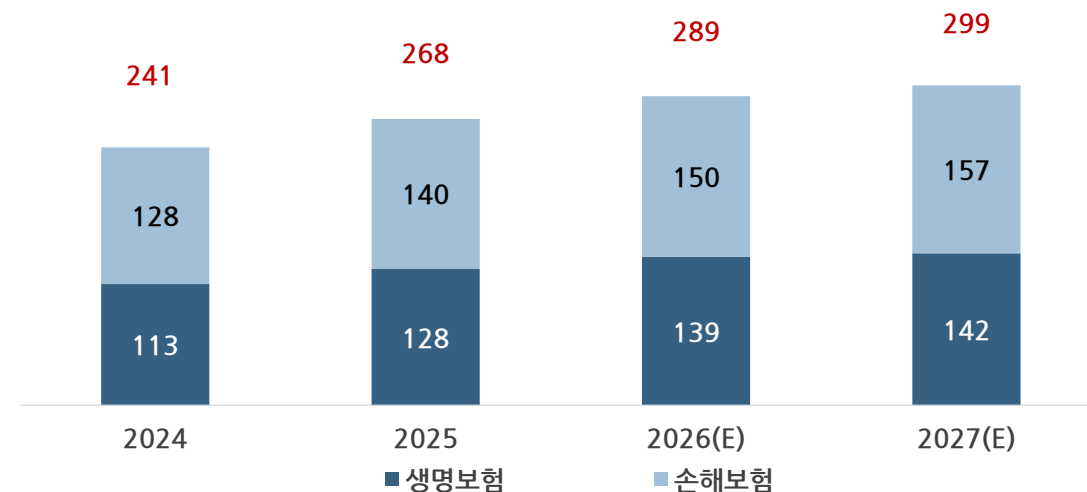
#### 보험산업 수입(원수)보험료 증가율 전망

(단위: %)



#### 보험산업 수입(원수)보험료 규모 전망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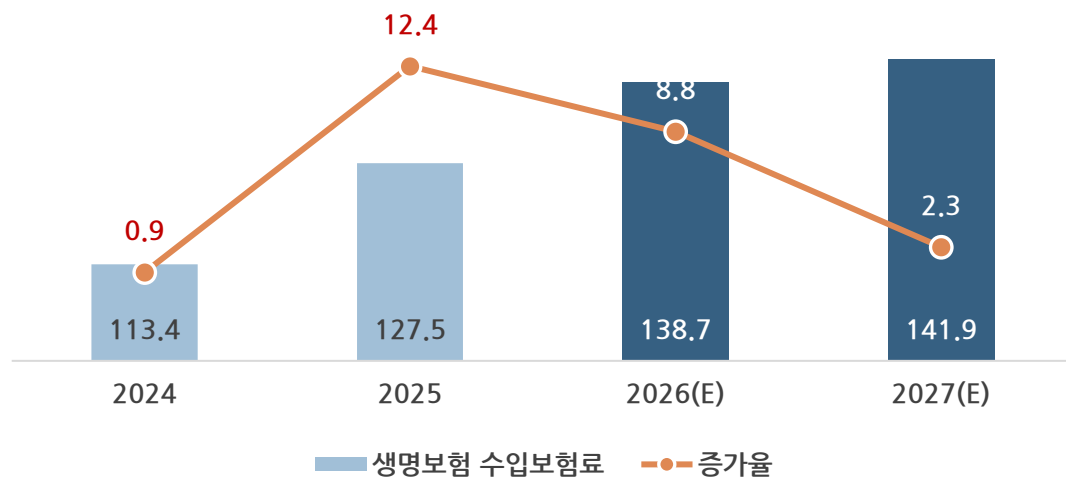
### 3. 성장성 ② 생명보험

#### · 202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- 보장성보험은 신계약 둔화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임
-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일시납 연금 수요가 둔화되며 0.5% 감소가 예상됨
- 변액보험은 주가 회복에도 계속보험료 감소로 1.0% 감소, 퇴직연금은 2026년 급증의 기저효과로 3.6% 감소가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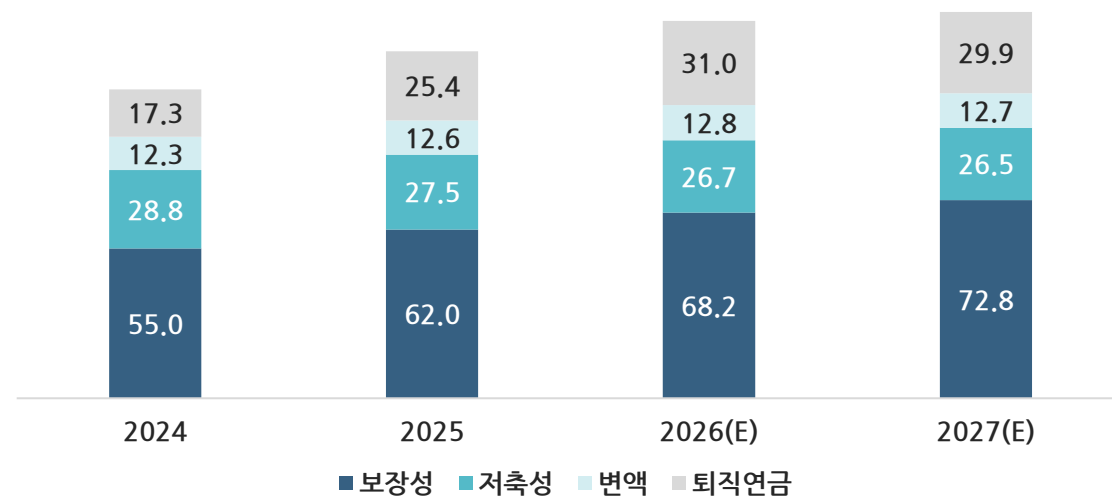
####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

####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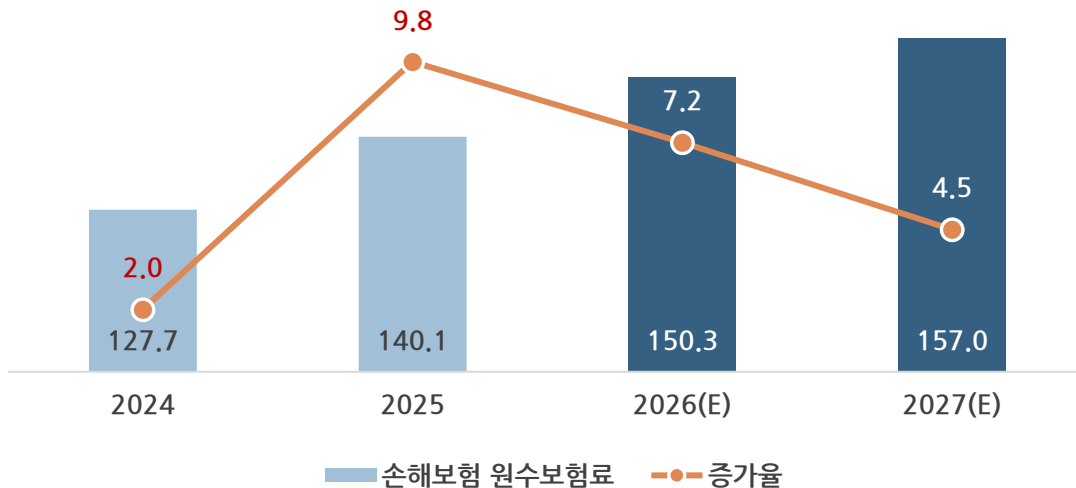


### 3. 성장성 ③ 손해보험

- 202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6년(7.2%)보다 둔화된 4.5%가 될 것으로 전망됨
  -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인보험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5.5% 성장하나 증가율은 2026년(5.7%)보다 소폭 둔화됨
  - 자동차보험은 2026년 보험료 인상 효과 약화로 3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 -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중심으로 6.2% 증가, 퇴직연금은 2.8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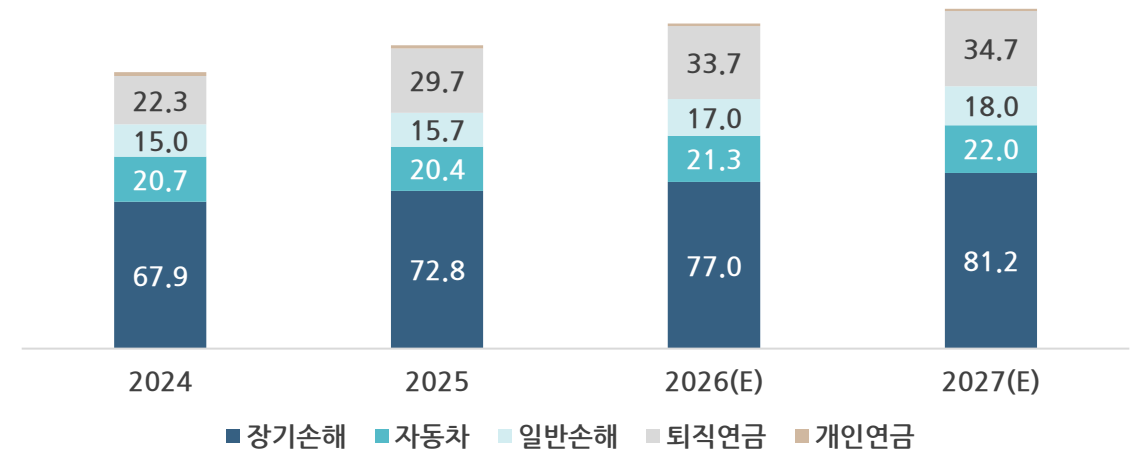
####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

####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

(단위: 조 원)



**감사합니다.**

# [참고]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조 원, %)

| 구분      | 2024  |       | 2025  |      | 2026 상반기 |      | 2026(E) |      | 2027(E) |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| 보험료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| 증가율  |
| 생명보험 전체 | 113.4 | 0.9   | 127.5 | 12.4 | 65.2     | 8.4  | 138.7   | 8.8  | 141.9   | 2.3  |
| 보장성보험   | 55.0  | 13.1  | 62.0  | 12.7 | 33.6     | 10.8 | 68.2    | 9.9  | 72.8    | 6.8  |
| 저축성보험   | 28.8  | 2.7   | 27.5  | -4.6 | 14.2     | -1.3 | 26.7    | -3.0 | 26.5    | -0.5 |
| 변액보험    | 12.3  | 0.4   | 12.6  | 2.8  | 6.5      | 3.9  | 12.8    | 1.8  | 12.7    | -1.0 |
| 퇴직연금    | 17.3  | -26.2 | 25.4  | 46.4 | 10.9     | 18.4 | 31.0    | 22.1 | 29.9    | -3.6 |
| 퇴직연금 제외 | 96.1  | 8.1   | 102.1 | 6.3  | 54.3     | 6.6  | 107.7   | 5.4  | 112.0   | 4.0  |

# [참고]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조 원, %)

| 구분      | 2024  |       | 2025  |       | 2026 상반기 |       | 2026(E) |       | 2027(E) |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        | 보험료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| 증가율   |
| 손해보험 전체 | 127.7 | 2.0   | 140.1 | 9.8   | 70.2     | 8.4   | 150.3   | 7.2   | 157.0   | 4.5   |
| 장기손해보험  | 67.9  | 6.0   | 72.8  | 7.3   | 38.0     | 6.0   | 77.0    | 5.7   | 81.2    | 5.5   |
| 개인연금    | 1.7   | -13.2 | 1.5   | -13.6 | 0.6      | -13.0 | 1.3     | -13.7 | 1.1     | -13.3 |
| 자동차보험   | 20.7  | -1.8  | 20.4  | -1.8  | 10.7     | 4.2   | 21.3    | 4.8   | 22.0    | 3.0   |
| 일반손해보험  | 15.0  | 7.1   | 15.7  | 4.7   | 9.0      | 8.0   | 17.0    | 7.8   | 18.0    | 6.2   |
| 퇴직연금    | 22.3  | -7.2  | 29.7  | 33.3  | 11.8     | 24.1  | 33.7    | 13.5  | 34.7    | 2.8   |
| 퇴직연금 제외 | 105.4 | 4.1   | 110.4 | 4.8   | 58.3     | 5.7   | 116.5   | 5.5   | 122.3   | 5.0   |

# 2027년 보험산업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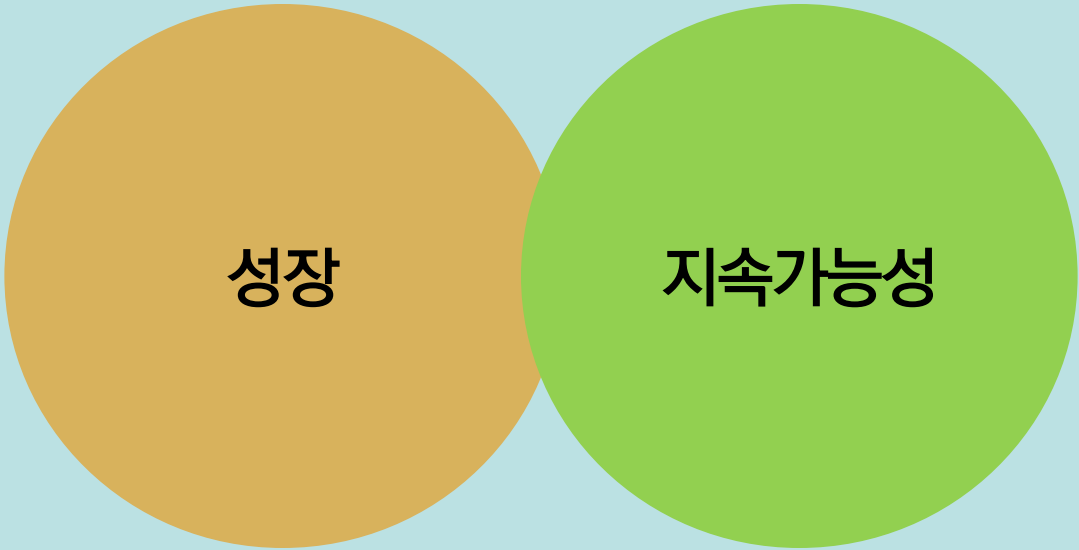
---

김 해 식(연구조정실장)

2026.10.22.

# 2027 목표

---



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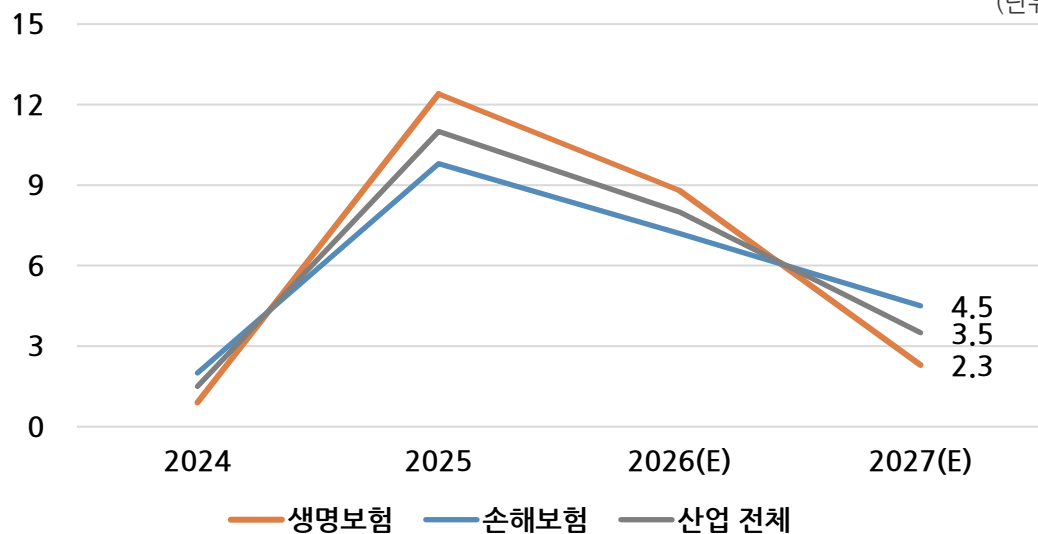
지속가능성

# 성장 구조

- 총보험료 299조 원, 전년 대비 9.9조 원 증가한 3.5% 성장
  - 보험료 증가액의 **89%**가 **생명보험 보장성**과 **손해보험의 장기손해**에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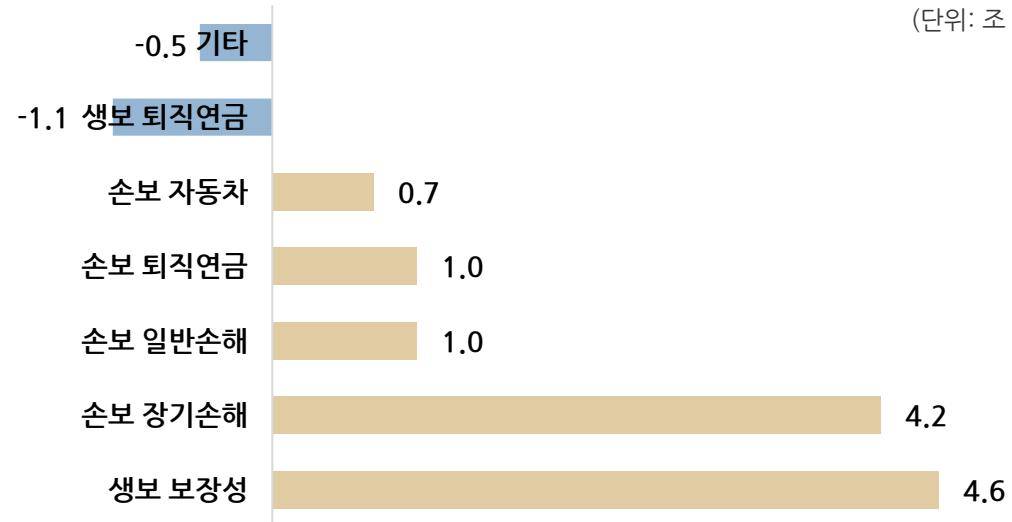
수입보험료 성장률 - 성장세 지속과 증가율 둔화

(단위: %)



2027 보험 종목별 보험료 순증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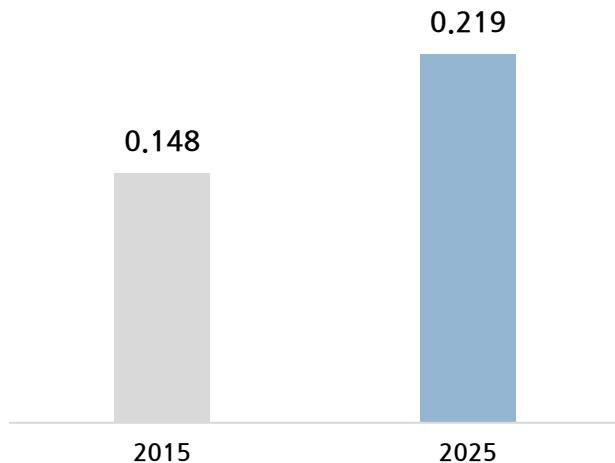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# 환경 변화와 성장 기회

## AI 주도 성장

### 수출품목 집중도(0~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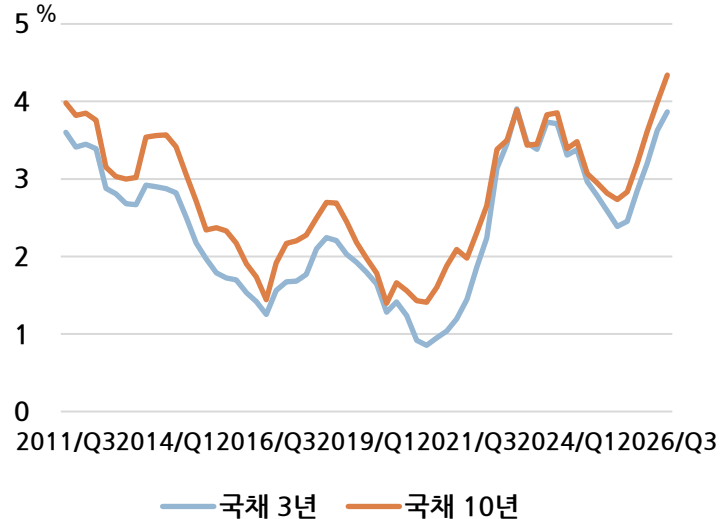


### 생산증가율: 전자산업 +6.32% vs. 제조업 +2.23%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회 | ①기업위험, ②인프라투자, ③내부 생산성 |
| 위험 | ①동일 위험 집중. ②기술, 위탁 의존  |

## 장기금리, 장기자산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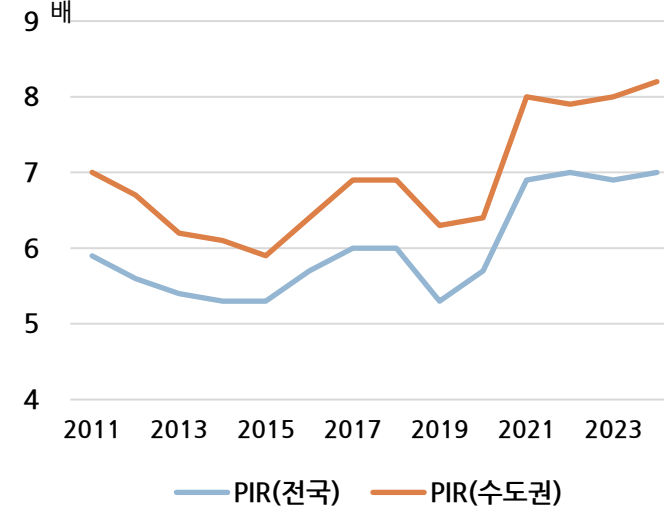
### 국채 시장금리 추이

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회 | ①신규투자 수익, ②보장상품·연금 재설계 |
| 위험 | ①ALM 불일치, ②신용, 유동성     |

## 불균형 성장

### 주택가격-소득지수(PIR) 추이



- 주택가격(26.9, 전월대비) 수도권 0.7%, 전국 0.4%
- 반도체 중심 성장의 소득·소비 확산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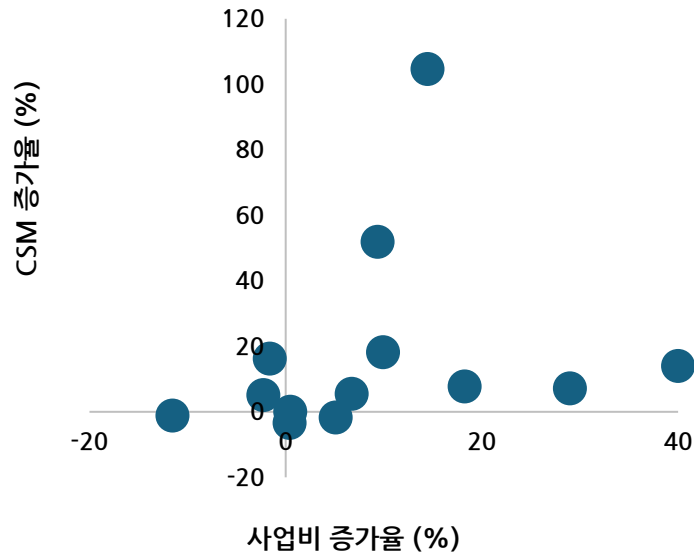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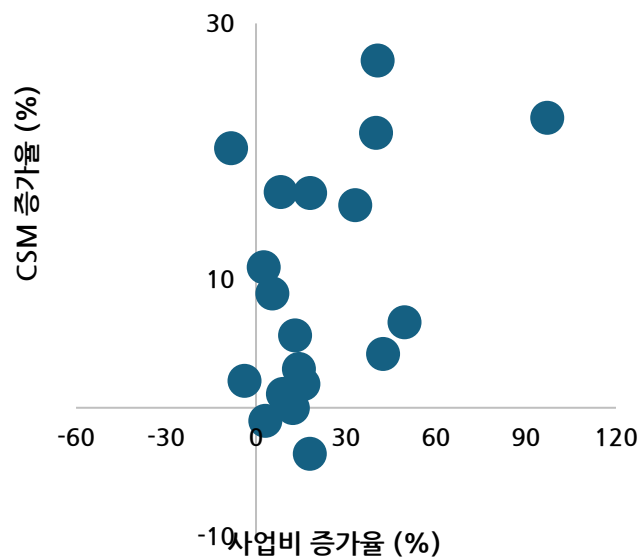
|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회 | 고객·산업·지역별 맞춤 보장과 서비스 |
| 위험 | ①보장공백 확대 가능성, ②해지    |

# 성장과 가치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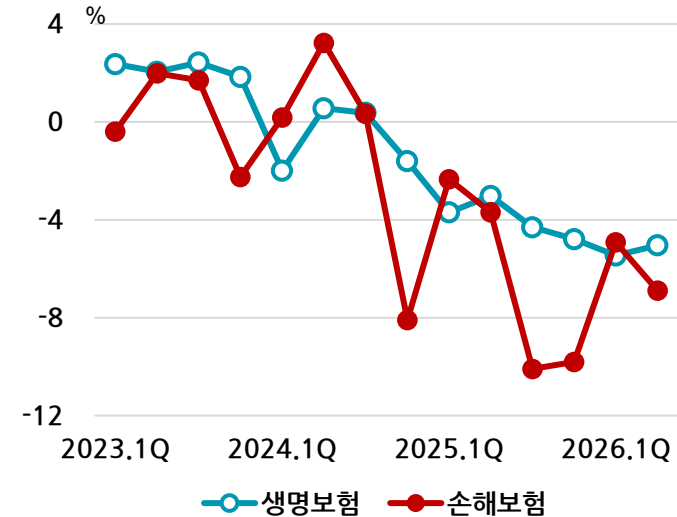
## · 외형성장과 경제적 성과의 괴리

- 판매부터 지급과 자본관리까지 **가치 실현** 경로를 점검할 필요

사업비 지출과 신계약 CSM - 생명보험(좌), 손해보험(우)



위험률차 추이



# 2027 과제

---

AI 주도 성장

장기금리, 장기자산 수급

불균형 성장

상품과 채널 쏠림

예·실차와 비용 부담

ALM, 자본 부담

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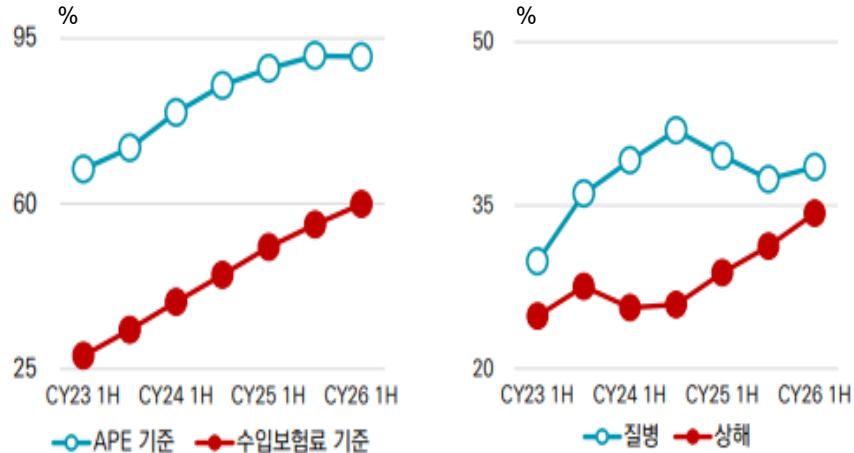
지속  
가능성

- ① 어디에서 성장할 것인가?
- ② 어떤 위험까지 인수할 것인가?
- ③ 보장 약속을 무엇으로 이행할 것인가?
- ④ 어떤 비용과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?
- 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판단하고 고칠 것인가?

# ① 성장구조와 포트폴리오 전환

- 기존 계약 기반을 토대로 보험회사별 강점에 맞춰 보장 기능을 확대
  - 서비스 수행 범위와 품질 기준, 데이터 활용, 이해 상충 관리가 정책과제

## 포트폴리오 쏠림 - 무저해지 보장성(좌), 질병, 상해보험(우)



## 성장 구조 전환

### 건강 사업모형

- 예방·회복·돌봄 서비스
- 서비스 효과와 품질, 유지와 지급 성과 검증

### 연금 사업모형

- 퇴직연금 + 장수연금
- 유동성과 소득보장 선택 구조 설계

### 신 위험 사업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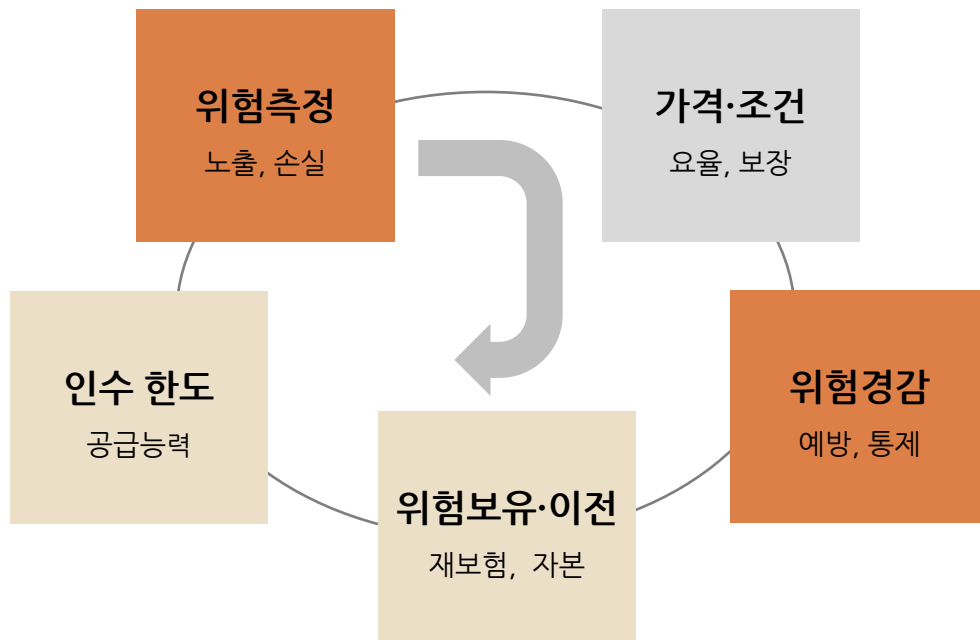
- 위험진단과 예방 산업별 위험자료와 전문인력 확보
- 인수체계 구축

주 : 생명보험은 보장성 중 무저해지환급형 비중,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질병, 상해 비중  
 자료 : 2027 보험산업 전망, 보험연구원

## ② 성장 영역의 보험가능성과 위험인수여력

- 위험감내능력과 자본여력을 고려하여 위험별 보험료와 인수규모, 보유·이전 비율을 결정
  - 노출 데이터와 실제 손실을 연결하는 **공동 위험데이터 기반 확충**이 정책 과제

신 위험 인수의 연결고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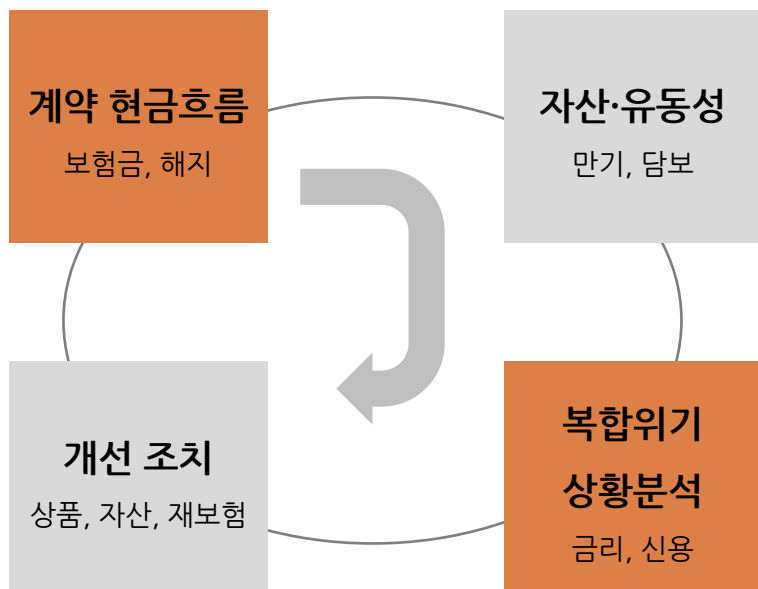
신 위험의 보험가능성

| 성장 영역            | 공급 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강·돌봄            | 장기 위험률과 보험금 원가, 서비스 이용행태, 보장조건의 지속가능성 |
| 연금과 종신소득         | 장수와 해지 경험, 장기 보증, 재보험                 |
| AI·사이버, 기후, 기업위험 | 위험노출과 손실의 연결, 동시다발적 손실, 인수한도, 재보험     |

### ③ 장기보장과 자본, ALM

- 계약의 이행과 새로운 보장 공급을 뒷받침할 자산, 유동성, 자본을 확보
  - ORSA의 **취약성 진단을 개선조치, 책임자, 이행기한과 재점검 연계**가 정책과제

장기보장 유지의 연결고리



장기보장 공급

| 구분      | 재무적 지속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채      | 고금리 보증, 장기 보험금 원가, 해지와 갱신 민감도                     |
| 자산, 유동성 | 만기별 불일치, 신용집중, 보험금과 해지 지급, 담보와 지급 자원              |
| 자본      | 가용자본의 증가 원인, 요구자본의 위험 구성, 충격 이후 흡수력, 재보험의 실질 위험이전 |

## ④ 비용, 위험률과 생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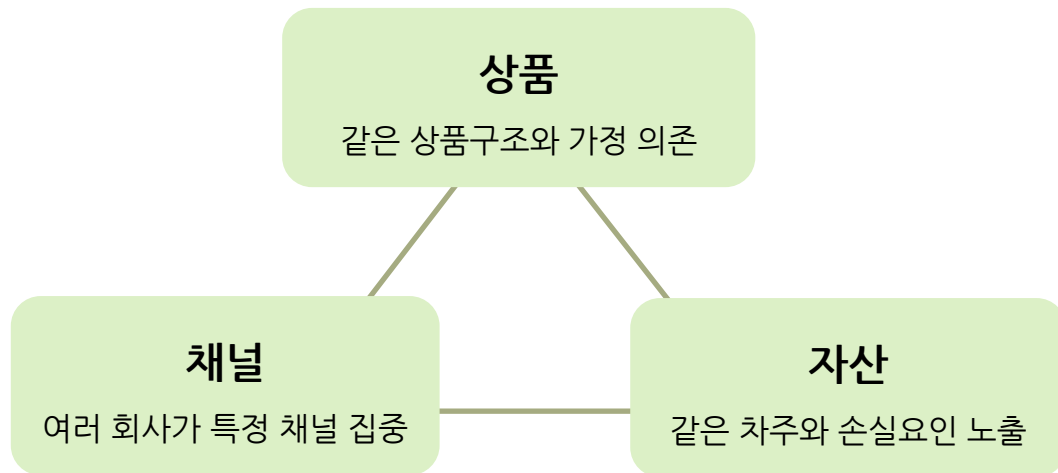
- 보험료 인상만으로 비용 증가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, 보험금, 판매, 운영 비용을 동시에 재설계할 필요
  - 필요한 비용은 반영하고,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발생 원인별 우선 개선이 정책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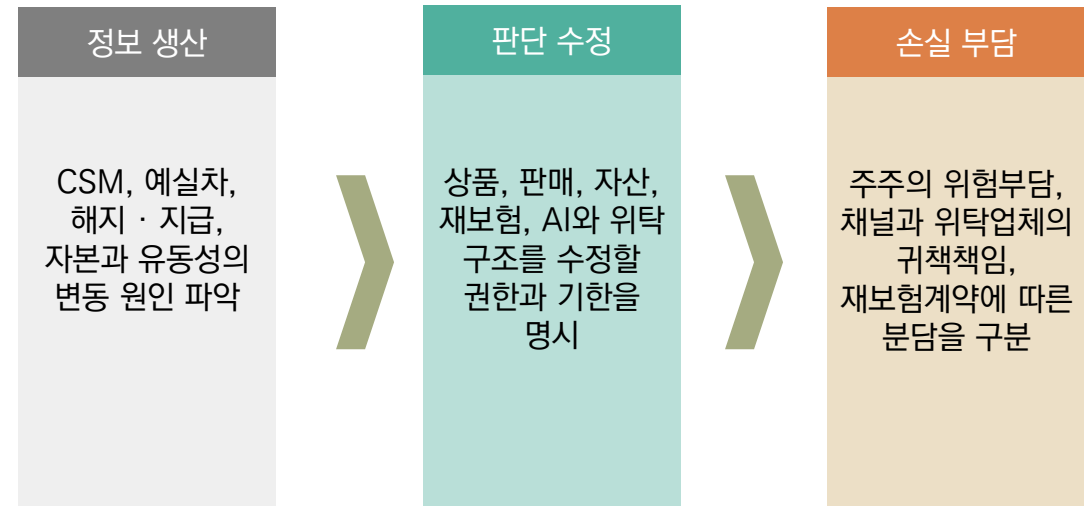
## ⑤ 시장질서와 신뢰

- 상품, 채널, 자산의 집중위험을 동시에 관리
  - 다양한 공급경로와 질서 있는 계약이전, 정리의 조건 마련이 정책 과제

### 시장 차원의 점검



### 정보 생산 - 판단 수정 - 손실 부담



# 2027 도전과제

· 보험회사는 선택하고, 정책은 그 선택의 조건을 설정

| 도전 과제      | 경영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장구조 전환    | 보유계약 가치 유지, 강점에 맞춰 인력과 자원을 재배분   | 서비스 범위, 품질과 이해상충 기준 정비            |
| 보험가능성 확보   | 위험 데이터, 효율, 인수 한도와 재보험을 동시 설계    | 공동 데이터와 위험분담 기반, 보장공백 대응          |
| 장기보장 유지    | 계약군별 현금흐름과 복합 충격 기준으로 자산, 자본을 관리 | ORSA 진단과 개선조치 연결, 건전성 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|
| 비용과 생산성 개선 | 보험금, 판매, 운영의 비용구조를 재설계           | 원가 정보, 판매보수 유인, 업무처리 기준 개선        |
| 시장질서와 신뢰   | 상품, 채널, 자산의 집중위험을 통합 관리          | 공통 쏠림 점검, 대체 공급과 질서 있는 정리 조건 마련   |

## [참고]

---

정책의 효과는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.

### 정책 변화

- 사례 분석
- 설문 조사
- 실증 분석

### 시장참여자 행태 변화

- 행태 가정

### 성과와 부작용

- 모의 실험, 민감도

# [참고] 행태기반 시뮬레이션 예시

· 판매한도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 제약을 줄이고 시장집중도를 높임

\* 실제 정책효과의 예측치가 아니고, 가상 모형의 결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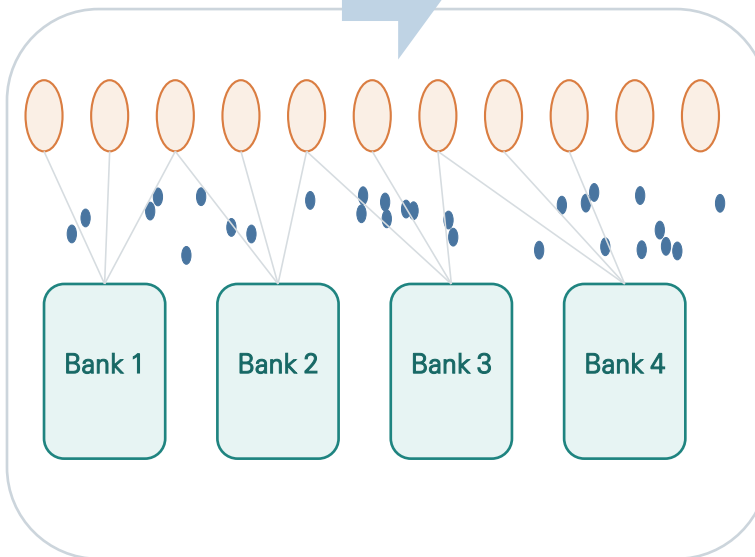
## 모형 흐름

- 0 가상 소비자 2만명 생성
- 1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
- 2 은행 판매가능 확인
- 3 판매비중 한도 적용
- 4 한도제한시 대체제안
- 5 계약 체결 / 유지계약 해지
- 6 성과지표 산출

## 일반 / 계열사

25% / 25%

50% / 25%



## 모형 결과

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최초 선택을 변경한 사례 **약 80% 감소**  
소비자 후생 80% 개선을 의미하지 않음

시장집중도 (HHI) 상승 **1,316 → 1,423**  
상위 보험회사 실적 확대

총 신계약 **변화 미미**  
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

**감사합니다.**